





The 10th Annual Report of Museum 2018

박물관연보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since 1984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발간사

박물관의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자.

-2018 박물관 연보를 발간하면서-

우리 박물관은 제주인의 삶이 녹아들어간 민속관과 제주의 자연생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자연사관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2018년에는 공립박물관 최초 3천300만명의 누적 관람객수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 문화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결과라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지난 2018년에는 박물관 전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과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물관을 신설하여 탐라지도병서, 삼읍도총지도, 굴수소조, 남환박물, 탐라장계초, 목장신정절목 등 보물 6점을 전시하였으며, 기증특별전으로 『강정마을 윤씨일가의 옛생활을 보다』를 비롯하여 『제주의 숨겨진 꽃보물』,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등 특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제주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제주의 향기를 품다」라는 주제로 목포와 부산에서 이동전시를 개최하였으며 탐라문화제, 고마로축제등에 부스를 운영하여 박물관 운영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4만1여점이 넘는 소장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광식물 수장고 및 민속수장고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청각실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여 13개 과정 110회의 프로그램과 특별강좌 4회를 실시하여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박물관을 찾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설·추석, 동짓날, 정월대보름날 행사 등 민속한마당을 비롯하여 제주에서의 여름을 시작하는 ‘뚝 먹는 날’ 등 전래의 세시풍속행사를 재현하여 제주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읍성을 비롯한 원도심 문화자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

하여 ‘보물섬 제주 살살이 훑어보기’를 주제로 하여 「보물섬 제주읍성」책자를 발간하고 그에 발맞추어 걷기 프로그램, 강좌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민과의 교감의 날 행사로 1일 명예관장제를 매달 실시하여 박물관 운영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구성, 매주 화,목요일 실시하는 아침 친절인사 등 관람객과 도민 등 모든 고객에게 더 친절히 다가가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관광지 평가에서 당당하게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8년 박물관 연보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사람들의 1년을 가감없이 정리한 장입니다. 오늘의 성과를 기록함으로 우리 박물관이 추구하는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생활 속 문화체감으로 도민행복 실현’의 목표 아래 ‘60만 제주도민이 중심이 되는 최고의 박물관’으로 도약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언제나 행복을 선사하는 박물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정 세 호





Contents

I 일반현황

II 자료수집 및 보존처리

III 전시

IV 사회교육

V 학술총서 및 교류사업

VI 기타

부록

학예조사연구 보고서



I 일반 현황

1. 연혁
2. 기구
3. 정·현 원
4. 시설 규모
5. 세출 현황
6. 세입 현황
7. 주요 기능
8. 소장 유물
9. 관람료 및 주차료
10. 휴관일
11. 관람객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ual Report of Musuem

1. 연혁

- 1978. 9. 3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계 승인(문화공보부)
- 1978. 12. 18. 착 공
- 1980. 11. 28.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 및 공포
- 1983. 12. 30.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료 징수조례 공포
- 1984. 5. 2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개관
- 1988. 2. 12. 제주도문화진흥원으로 통합(민속부로 개편)
- 1989. 7. 14.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환원
- 1996. 9. 02. 별관 신축(1층, 자연사수장고)
- 2002. 2. 06. 별관 증축(2층, 연구실 및 자료실)
- 2006. 7. 01. 명칭 변경(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2008. 3. 05. 문화진흥본부로 통합(문화진흥본부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개편)
- 2008. 7. 01. 세계자연유산홍보관 및 해양종합전시관 개관
- 2009. 10. 20. 제주특별자치도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규정 제정(훈령108호)
- 2011. 1. 18.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환원
(행정지원팀, 고고민속과, 자연사과)
- 2014. 8. 13. 조직개편(행정지원팀, 민속자연사연구팀)
- 2016. 4. 26. 특별전시실 및 사회교육장 준공
- 2016. 7. 28. 「제주자치도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운영팀, 민속자연사연구팀)
- 2017. 3. 29.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 2017. 6.24. 박물관 전시환경(전시실) 리모델링
- 2017. 07. 01.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시실 재개관 및 개정조례 시행
- 2018. 08. 28.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팀의 명칭 및 팀장의 직급에 관한 규정」
(운영과, 민속자연사연구과)
- 2018. 10. 11.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 2019. 1. 1. 개정 조례 시행(매주 월요일 휴관 및 운영시간 변경 등)

2. 기구(2과)



3. 정·현원 (2018.12. 기준)

(단위: 명)

구분	합계	일반직					연구직	
		4급	5급	6급	7급	9급	연구관	연구사
정원	14	1	1	3	3	-	1	5
현원	14	1	1	4	1	1	1	5
증감	-	-	-	1	△2	1	-	-

※ 청원경찰 6명, 공무원 6명/7명

4. 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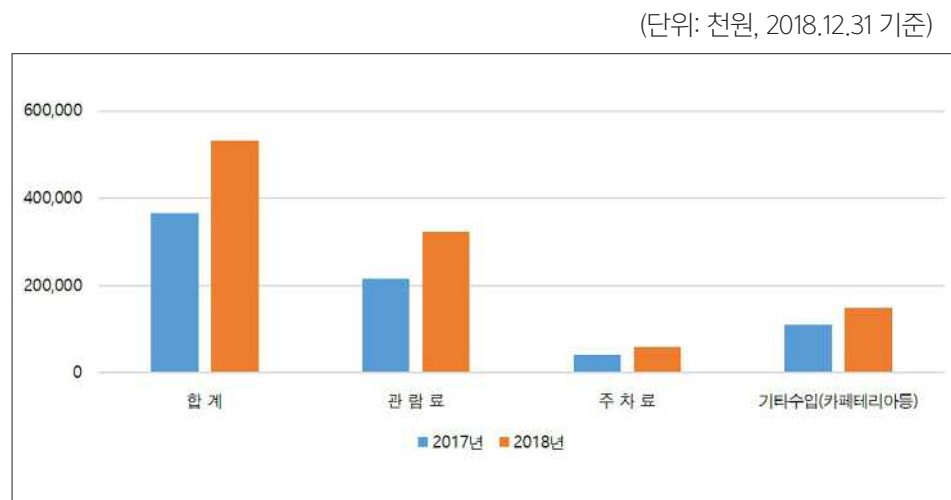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8년 12월 기준	
총 부지 면적(㎡)		31,515	
건물 총 면적(㎡)		7,209.58	
전시실면적	상설 전시실(㎡)	3,383.35	
	기획/특별전시실(㎡)	211.07	
수장고 면적(㎡)		711.00	
수장고 운영현황	화재방지시설	ABC소화기	○
		하론소화기	○
		CO2소화기	○
	도난방지시설	○	
	항온항습시설	○	
이용자 편의공간 및 시설		시청각실, 문화상품판매소, 카페테리아 휴게실, 모유수유실(2개소), 장애인경사로 노약자 및 장애인 EV(전시실 내부) 주차장(61면), 공중화장실 등	

5. 세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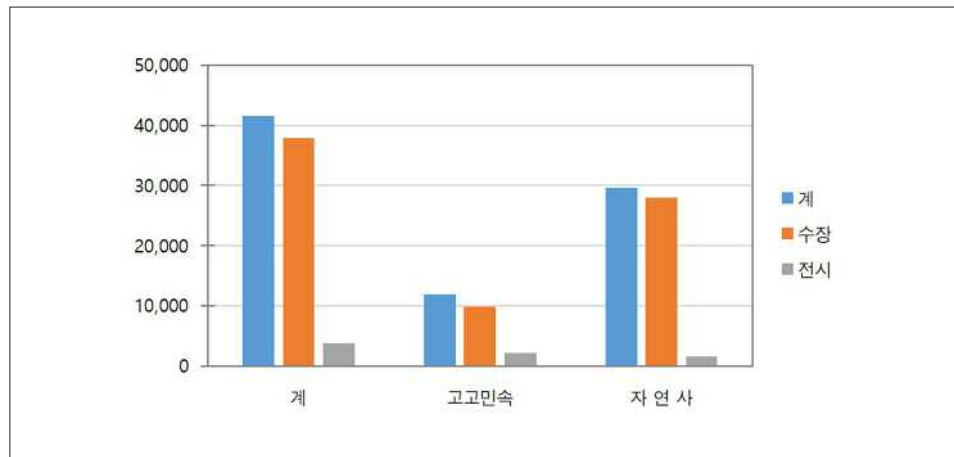


6. 세입 현황



7. 소장유물

(단위: 천원, 2018.12.31 기준)



8. 주요 기능

- 민속자연사 자료 수집·전시·보존관리 및 조사 연구
- 특별전 기획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지원 및 홍보
-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운영

9. 관람료 및 주차료

(단위: 원)

구분	성인		청소년·군경		어린이		도민(단체)	주차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금액	2,000	1,600	1,000	800	무료	무료	성인 1,000(800) 청소년·군인 500(400)	승용 1,000원

○ 관람 기준

- 성인: 25~64세 이하, 청소년: 13~24세 이하, 어린이: 12세 이하
- 매표시간: 08:30~18:00 (사전 예약으로 연장 가능)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2018. 10. 11.)으로 운영시간 변경

○ 매표시간(09:00~17:30), 운영시간(09:00~18:00)

※시행일: 2019. 1. 1.

10. 휴관일

○ 새해 첫날: 1월 1일

○ 명절: 설 연휴(음력 1. 1~2), 추석 연휴(음력 8. 15~16)

○ 개관기념일: 5월 24일

○ 훈증소독기간: 연 6일(상·하반기 각 3일간)

○ 도지사가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음.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개관 및 휴관)

○ 매주 월요일

○ 새해 첫날: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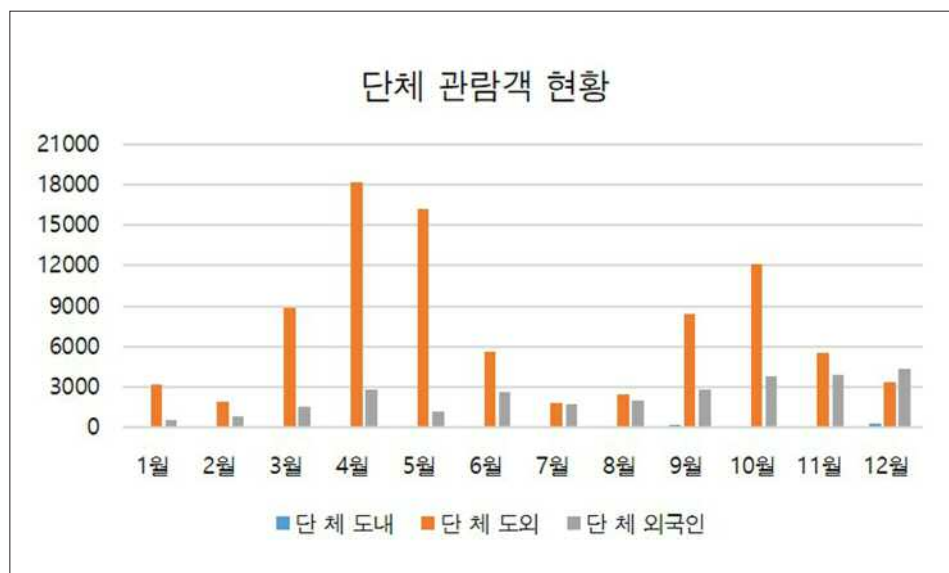
○ 명절: 설 연휴(음력 1. 1~2), 추석 연휴(음력 8. 15~16)

○ 훈증소독기간: 연 6일(상·하반기 각 3일간)

○ 도지사가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음.)

※시행일: 2019. 1. 1.

11. 관람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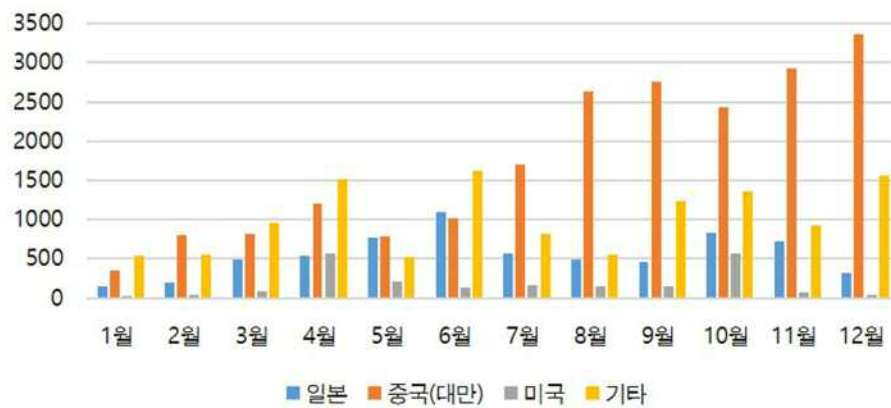


무료 관람객 현황



외국인현황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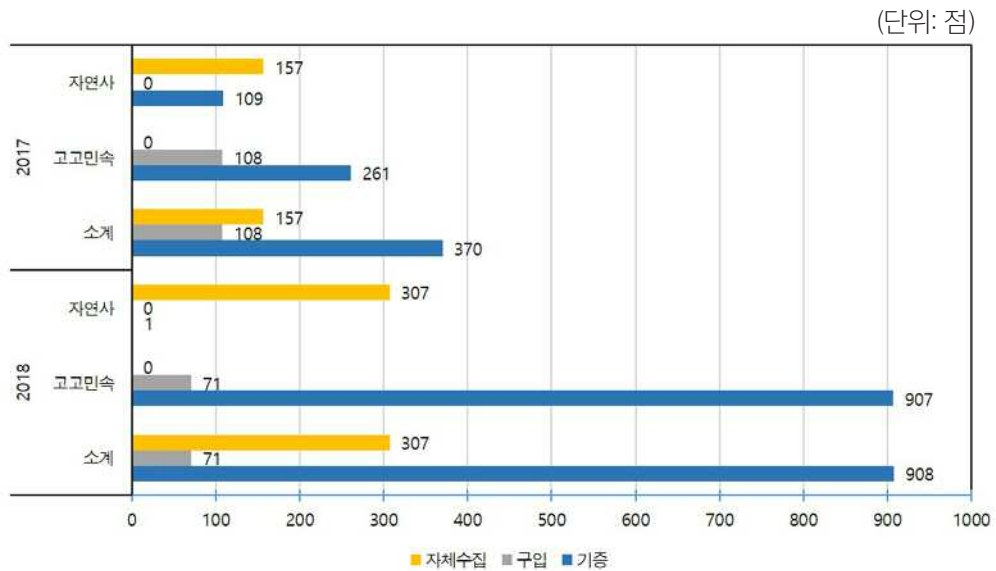
II 자료수집 및 보존처리

1. 자료 수집
2. 자료보존처리
3. 수장고 현대화사업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ual Report of Musuem



1. 자료수집



2018년에 수집한 자료는 고고민속분야 978점, 자연사분야 308점 등 총 1,286점이다. 이 중 유상 구입한 자료는 71점으로 모두 고고민속자료이며, 기증 자료는 908점으로 고고민속 907점, 자연사 1점이다. 특히 자연사자료는 기증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수집 하였으며, 곤충 200점, 조류 7점, 포유류 1점, 파충류 1점, 패류 30점, 암석 68점 등이다. 매해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인문·자연 분야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으며, 수집한 자료들은 특별전시 및 연구, 사회교육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한편 고고민속 자료 등 유상구입은 『제주특별자치도박물관 자료수집 및 수장고 관리규정』에 따라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기증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5조(무상기증자 예우) 규정에 따라 자료기증서 및 소정의 선물(상품권)을 전달하고, 박물관 로비 기증자 명단을 게시해 놓고 있다.

2018년 기증 자료(908점/ 민속 907, 자연사 1)

(단위: 점)

연번	자료명	수량(점)	크기(cm)	시대	기증자	비고
1	구덕 등	7	29×29 외	광복 이후	배봉환	민속
2	저울 등	41	길이 56.7 외	광복 이후	조영희	민속
3	등장 등	13	60×98 외	1877년 외	고명진	민속
4	회화	1	-	2000년 이후	김해곤	민속
5	호랭이	2	길이 42.5 외	2000년 이후	강찬근	민속
6	돛도구리	1	높이 15	광복 이후	정영민	민속
7	화폐액자 등	282	-	일제강점기 외	박용권	민속
8	대정8년유생부 등	18	21.5×23 외	일제강점기	양기남	민속
9	지리오겔 등	9	15×23 외	1850년 외	김익수	민속
10	서예족자 등	240	32.5×104.5 외	2000년 이후	전방언	민속/고고
11	표창장 등	8	43×31 외	광복 이후	고남화	민속
12	동래정씨족보 등	123	23×34외	조선시대	정창림	민속
13	돌절구 등	3	43×45 외	광복 이후	김종근	민속
14	청광스님회화	3	202×69 외	광복 이후	현승전	고고
15	참전용사증서 등	9	41×29.5	광복 이후	고지선	고고
16	벼루	1	12.1×18.2×2	광복 이후	오용순	민속
17	고문서 등	23	14.3×27	조선시대	전방언	고고
18	항아리	24	20.5×19.5×33 외	광복 이후	강영생	민속
19	한복 등	12	66 외	광복 이후	양종렬	민속
20	기름기계 등	3	22.5×22×36 외	광복 이후	김익중	민속
21	필름	63	12.4×9.8 외	광복 이후	한정엽	민속
22	상례비요 등	2	22.9×31.6 외	광복 이후	강상돈	민속/고고
23	궁시액자	1	45×35	광복 이후	정현재	민속
24	남국의무가 등	5	18.2×25.6 외	광복 이후	한익자	민속/고고
25	갈옷 조끼 등	6	72×60 외	광복 이후	(사)전통천연 염색연구회	민속
26	난초화 등	6	62×32.2 외	광복 이후	양기남	민속/고고
27	반야심경 병풍	1	453×118	광복 이후	김봉진	고고
28	푸른바다거북	1	70×53	2000년 이후	이동규	자연사
계	28명 28건	908				

기증자료 사진



고남화님 기증자료



고명진님 기증자료



강영생님 기증자료

2018년 구입 자료(민속 22건 71점) : 39,953천원

(단위: 점)

연번	자료명	수량	크기(cm)	시대
1	탐라록	1	29.5×20.8	1703
2	김연 간찰	1	50.8×34.3	1730
3	성환 간찰	2		
4	박만정 간찰	2		
5	박두인 간찰	1	111×28.8	
6	민창도 간찰	1	51.1×33.5	
7	민흥도 간찰	3		
8	오시복 간찰	1	46.5×33.5	1680
9	심중량 간찰	3		1706
10	민진후 간찰	1	48.8×30	
11	한세양 간찰	1	42.3×34.7	1706
12	한세량 간찰	1	40.4×29.7	1706
13	한종노 간찰	10		
14	허지 간찰	19		
15	홍원도 간찰	5		
16	황명하 간찰	2		
17	유명현 간찰	1		
18	김일기 간찰	8		
19	김시경 간찰	2		
20	권규 간찰	1	41.8×28	1702
21	이인휘 간찰	2		
22	이진휴 간찰	3		
계	22건	7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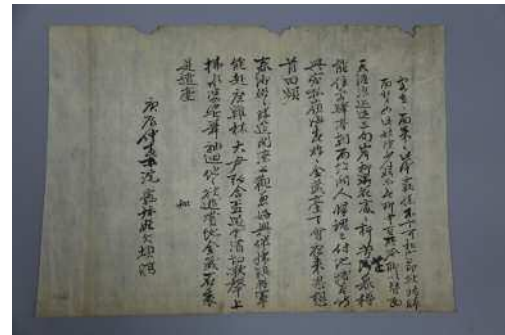
구입자료 사진



담라록



김연 간찰



오시복 간찰



허지 간찰

■ 2018년 자체 수집 자료(자연사 총 307점)

(단위: 점)

구분	자료명	점수	채집일자	채집지	비고
계	총	307			
소계		200			
	왕잠자리	1	20170707	제주시 연동(한라수목원)	
	두점박이좀잠자리	1	20170924	한라산(숨은물뱅딴)	
	두점박이좀잠자리	1	20170924	숨은물뱅딴	
	애사마귀붙이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Melittia bombiliformis Stoll	1	20170719	제주시 아라동(관음사)	
	Melittia bombiliformis Stoll	1	20170719	제주시 아라동(관음사)	
	꼬마독나방	3	20170706	조천읍 선흘리	
	꼬마독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무늬독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붉은수염독나방	5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외줄들명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큰조명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수수꽃다리명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갈고리박각시	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머루박각시	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물결박각시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우단박각시	13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줄박각시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포도박각시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Triracola plagiata (Walker)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각시뿔노랑수염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곧은띠수염나방	6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꼬마은무늬밤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남방구리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담색쌍검은밤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뿔노랑밤나방	2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멸강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무궁화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보라무늬밤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봉인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쌍검은밤나방	6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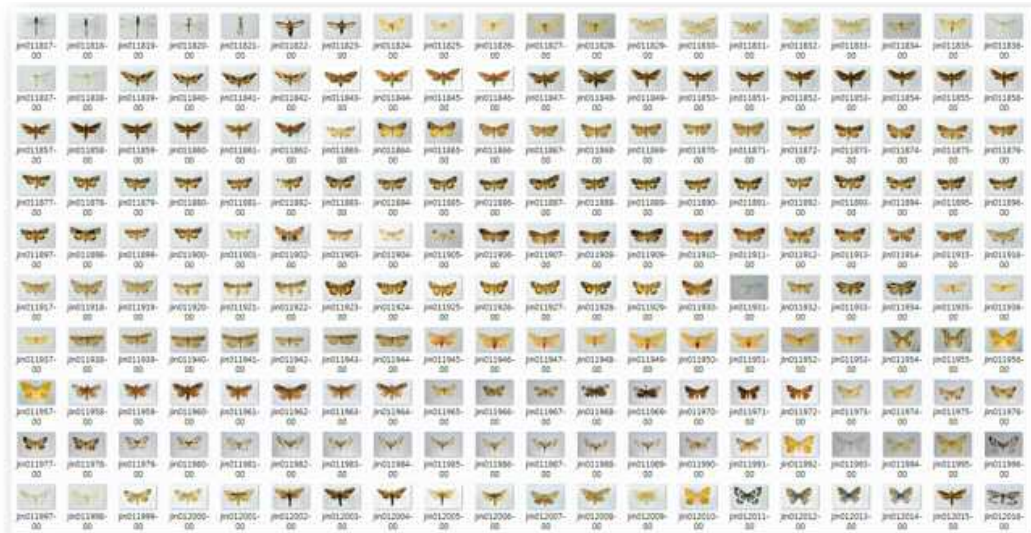
구분	자료명	점수	채집일자	채집지	비고
	애흰줄띠은잎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얼룩어린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연무늬끝짚름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왕뿔무늬저녁나방	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잔디밤나방	3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주홍흰무늬저녁나방	7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큰갈고리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흰몸은빛밤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흰배저녁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흰줄이끼밤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교차무늬주홍테불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앞날개무늬불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앞선두리불나방	7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줄점불나방	7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홍줄불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가중나무산누에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참나무산누에나방	2	20170918	조천읍 선흘리	
	대민나방	7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노랑쌔기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뒷검은푸른쌔기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흰띠알락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갈고리가지나방	3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끝짚룩노랑가지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먹그림가지나방	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버드나무얼룩가지나방	3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불화색가지나방	8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뿔무늬큰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세줄날개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알락제비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연노랑제비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외줄노랑갈고리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큰제비푸른자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큰흰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흑점박이흰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흑점박이흰가지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구분	자료명	점수	채집일자	채집지	비고
	고려재주나방	2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긴띠재주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꽃술재주나방	4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노고지리재주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뒷검은재주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재주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주름재주나방	1	20170720	한라산(1100습지)	
	알락제비가지나방	1	20170806	숨은물뱅디	
	큰흰띠검정물결자나방	1	20170806	한라산(만세동산)	
	갈색가지나방	1	20170816	장구목	
	물결부전나비	3	20170924	숨은물뱅디	
	굴뚝날도래	1	20170530	한라산(만세동산)	
소계		68			
	현무암	1	20180415	제주시 도두항길 도두봉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415	제주시 애월읍 요석산업	
	현무암	1	20180415	신화역사공원-오설록 도로변	
	조면암	1	20180415	산방산 해안도로변	
	현무암	1	20180415	서귀포시	
	조면안산암	1	20180415	서귀포시 서귀항	
	현무암	1	20180415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내	
	현무암	1	20180415	제주시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416	제주시 제주항 입구	
	현무암	1	20180416	민속자연사박물관 석물전시장내	
	현무암질안산암	1	20180416	제주시 구좌읍	
	현무암	1	20180416	서귀포시 구좌읍	
	조면현무암	1	20180416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조면현무암	1	20180416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현무암	1	20180416	서귀포시 수망리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416	제주시	
	조면현무암	2	20180420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조면현무암	1	20180420	제주시 구좌읍	
	현무암	1	20180420	서귀포시 수망리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420	제주시 애월읍 요석산업	
	현무암	1	20180420	제주시 구좌읍	
	조면안산암	1	20180420	서귀포시 서귀항	

구분	자료명	점수	채집일자	채집지	비고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420	제주시 제주항 입구	
	조면현무암	3	20180521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현무암	3	20180521	서귀포시 수망리	
	현무암질조면안산암	3	20180521	제주시	
	현무암	1	20180521	서귀포시 산방산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521	제주시 애월읍	
	조면암질안산암	1	20180521	서귀포시 서귀항	
	현무암	1	20180521	제주시	
	현무암질조면안산암	1	20180521	제주시	
	현무암	1	20180521	민속자연사박물관 석물전시장내	
	조면현무암	1	20180521	제주시 제주항 입구	
	조면현무암	1	20180521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현무암질안산암	1	20180521	제주시 구좌읍	
	조면현무암	1	20180521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현무암	1	20180521	서귀포시 수망리 천	
	현무암	1	20180521	제주시 김녕	
	현무암	1	20180521	명도암입구 삼거리 계곡	
	응회암	12	20180528	하추자도	
	응회암	9	20180529	상추자도	
	부석	1	20180723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계		7			
	쇠물닭	1	20180509	조천읍 신촌리	
	큰유리새	1	20180727	제주시 교래리	
	큰오색딱다구리	1	20180815	제주시 노형동	
	딱새	1	20180409	제주시 오라동	
	노랑턱멧새	1	20180528	제주시 아라동	
	황새	1	20181012	한국교원대학교	
	황새	1	20180823	충북대학교 수의대학	
소계		1			
	오소리	1	20180911	제주시 노형동	
소계		1			
	붉은바다거북	1	20180721	서귀포시 대정읍	
소계		30			
	전복	30	20180907	추자도	



암석자료수집(68점)



곤충자료 수집(200점)

41,643점(고고·민속 11,968점, 자연사 29,675점) 소장자료 중 3,764전시(9%)

고고민속분야 자료

(단위: 점)

구분		계	전시	수장 (보관)	유상 (구입)	무상 (기증)	자체 수집	비고
합계		11,968	2,135	9,833	7,452	4,468	48	978
고고미술	소계	3,172	55	3,117	1,518	1,653	1	390
	고고	54	1	53	31	23	-	-
	전적	1,785	4	1,781	1,057	727	1	287
	판각	29	-	29	13	16	-	-
	회화	882	5	877	185	697	-	91
	조각	45	26	19	6	39	-	2
	무기	14	-	14	9	5	-	2
	공예	296	19	277	213	83	-	8
	기타	67	67	4	63	-	-	-
	소계	8,796	2,086	6,710	5,934	2,817	47	588
민속	의	1,253	252	1,001	898	336	19	10
	식	2,165	569	1,596	1,471	695	-	150
	주	875	141	734	725	150	-	7
	생산생업	2,336	825	1,541	1,916	451	-	7
	신앙의례	849	216	633	414	422	13	-
	예능오락	125	30	95	57	54	14	12
	사회과정	440	16	424	86	354	-	327
	의약	139	21	118	127	12	-	-
	교통운수	255	2	253	196	59	-	-
	기타	329	14	315	44	284	1	75

※ 분류기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용도/기능에 따른 분류

자연사분야 자료

(단위: 점)

구분		계	자료위치		수집방법			비고	
			전시	수장 (보관)	유상 (구입)	무상 (기증)	자체수집		
	합계	29,675	1,629	28,046	9,027	4,873	15,775	308	
동물	척추	계	2,847	337	2,510	1,094	411	1,342	-
		포유류	107	15	92	28	49	60	1
		조류	30	26	4	-	-	-	-
		파충류	1,155	154	1,001	266	157	732	7
		양서류	47	7	40	30	13	14	
		어류	10	0	10	-	-	-	2
	무척추	계	100	5	95	1	-	99	-
		곤충	1,398	130	1,268	769	192	437	-
		소계	14,628	689	13,939	4,624	527	9,477	230
		패류	12,016	353	11,663	3,896	190	7,930	200
		갑각류	2,612	336	2,276	728	337	1,547	-
		강장류	1,479	235	1,244	389	164	926	30
		해면류	585	66	519	192	75	318	-
		연체류	253	25	228	95	58	100	-
		극피류	46	-	46	6	5	35	-
		완충류	39	-	39	4	13	22	-
		태형류	200	10	190	42	22	136	-
		환형류	8	-	8	-	-	8	-
식물	계	1	-	1	-	-	1	-	
	관속식물	1	-	1	-	-	1	-	
	해조류	5,377	30	5,347	2,554	129	2,694	-	
균계	균류	4,271	0	4,271	1,965	-	2,306	-	
지질	계	1,106	30	1,076	589	129	388	-	
	암석	130	0	130	-	1	129	-	
	토양	1,738	524	1,214	142	156	1,440	-	
	화석	1,146	220	926	115	144	887	68	
기타	계	34	0	34	26	-	8	-	
	사진	소계	558	304	254	1	12	545	-
		산악(동물)	4,955	49	4,906	613	3,649	693	-
		동물	3,985	2	3,983	613	3,128	244	-
		식물	260	2	258	-	-	-	-
		지질	338	-	338	-	-	-	-
		경관(지질)	406	-	406	-	-	-	-
		해양	151	-	151	-	-	-	-
	자연물(식물)	60	-	60	-	-	-	-	
	산악(고상돈)	2,770	-	2,770	-	-	-	-	

2018년 폐기자료 (자연사 총 11점) - 2018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통과

- 폐기대상자료 : 어류 11점
- 폐기사유 : 파손 심하고 자료보존가치 현저히 저하
 - 몸체 부분 파손 및 표피 탈락
 - 지방성분 표피 외부로 유출
 - 보존처리 가능성 희박

구분	자료명	규격(cm)	상태
어류	백새치	244×48	몸체부분 파손
	붕장어	82	표피탈락
	붕장어	72	표피탈락
	붕장어	69	표피탈락
	돛새치	109×14	지방성분 유출
	삼치	90×8	지방성분 유출
	갯장어	147×15	표피탈락
	부시리	158×38	지방성분 유출
	삼치	85×15	지방성분 유출
	젯방어	120×40	지방성분 유출
	방어	85	지방성분 유출

2. 자료보존처리

우리 박물관에서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로서 오랜 세월이 흘러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후세까지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힘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올 해는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전시를 위하여 소장자료 중 「태극기」를 보존처리 하였으며, 대정8년 유생안 등 67점, 정창립 기증자료 고문서 101점 및 전방언 기증 고문서 25점에 대한 배첩처리를 실시하였다.



태극기 보존처리



배첩



배첩

3. 수장고 현대화

3-1. 광식물수장고 현대화

1984년 5월 박물관 개관당시 수장고를 신축하여 고고민속과 자연사자료를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1996년 9월 동물, 해양생물, 광식물수장고를 신축하여 자연사자료를 분리, 관리하여 왔다. 1999년 10월 동물수장고 모빌렉, 자료진열장을 제작 설치하였고, 2010년~2014년 고고민속 수장고를 준2층 복층화하고 수납장을 제작·설치하는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는 노후화된 자연사수장고의 문 교체를 비롯하여 광식물수장고내 모빌렉 및 자료에 맞는 수납장을 제작·설치하여 수납공간을 효율화 및 표준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3-2. 민속수장고 현대화

민속 소장자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속수장고의 현대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후 수납장 및 준비실의 확보로 소장자료의 등록 및 관리가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12월까지 수장고 출입문 교체 및 자료실 철거 및 바닥 도색, 수장고 내 수납장을 제작 설치하였다.



III 전시

- 1. 상설전시
- 2. 특별전시
- 3. 이동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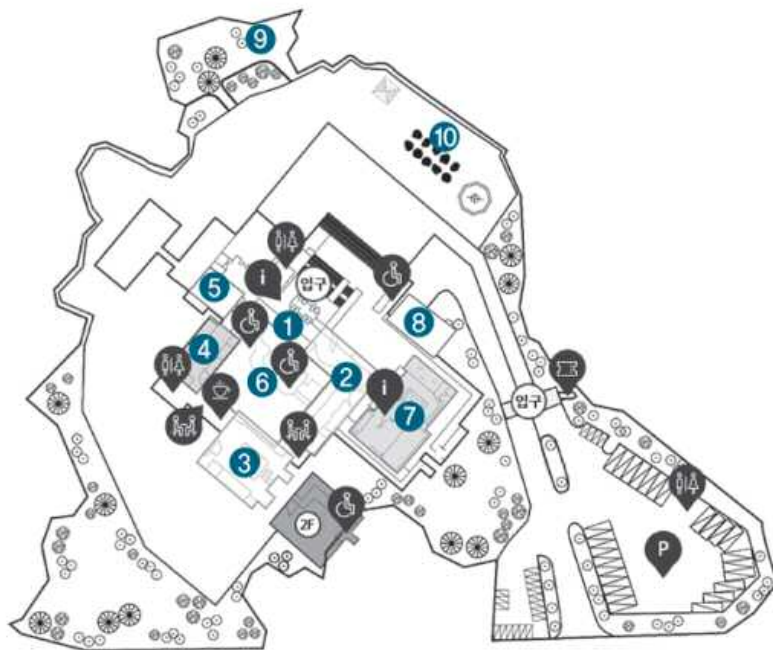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ual Report of Musuem



1. 상설전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5월 24일에 개관하였으며, 2018년 개관 34주년을 맞아 누적관람객 33만명을 기록하는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제주의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우리 박물관은 제주의 전통민속과 자연사 자원을 융·복합한 전시로 매달 3만명이상의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상설전시관은 자연사전시실, 제1민속전시실, 제2민속전시실, 제주체험관, 해양종합전시관, 수놓음관, 특별전시실로 구성되어있다. 야외에는 대형 용암석 전시장과 돛통시, 정주석등과 맷돌, 절구같은 생활용구가 전시된 석물전시장이 있다.



- ① 제주상징관 ② 자연사전시실 ③ 제1민속전시실 ④ 제2민속전시실 ⑤ 제주체험관
⑥ 야외전시장(중앙정원) ⑦ 해양종합전시관 ⑧ 수놓음관 특별전시실 ⑨ 야외석물전시장 ⑩ 암석전시장

1-1. 제주 상징관

로비 상징조형물은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기에 전체 윤곽을 한라산을 모티브로 하여 제주 문화를 대표하는 10대 상징물 중 한라산, 돌하르방, 돌담, 해녀, 감귤, 제주 초가, 남방에 등 7건을 표현하였다. 조형물 안으로 들어서면 설문대할망 신화와 삼성신화를 영상으로 표현하여 제주의 탄생에 관한 상징적 기능을 담아냈으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용암동굴 및 거대 용암수형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관람객들에게 제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산갈치가 로비에 전시되어 있다.



1-2. 자연사전시장

자연사전시실은 크게 지질관, 육상생태관으로 구분하여 제주도의 지질, 동·식물 표본 등 1,600여점을 입체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지질관에는 지구내부모형을 비롯하여 제주의 형성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산 분출물, 용암동굴 생성물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고생대시대부터의 화석에서부터 신생대 제주의 서귀포층 패류화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제주를 구성하는 암석을 지도와 함께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화산의 대표적인 백두산과 울릉도를 구성하는 암석을 비교, 전시하고 있다.

한라산의 형성과정 및 한라산 백록담 주변의 지질학적 경관을 영상과 모형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스마트테이블을 통해 다양한 제주의 오름, 계곡, 동굴 및 꽃자왈 등의 자연경관과 지질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3관왕 코너를 통해 세계적인 제주의 경관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육상생태관은 제주도의 식물 분포도를 통하여 고도별로 주요 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디오라마 기법을 통하여 해안 습지대, 상록수림대, 낙엽수림대, 침엽수림대, 관목림대(백록담 일대)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동식물의 생태적 습성 과 서식환경을 현장감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버섯, 곤충, 척추동물의 골격 등의 코너를 따로 마련하였다.



1-3. 제1민속전시실

민속 전시실은 1, 2 민속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1, 2층 중층으로 이루어졌고, 1층은 제주인의 일생, 제주초가,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전통배를 중심으로 약 2,000여점의 민속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2층은 의, 식, 주와 관계된 제주사람들의 일상생활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짧은 시간에 옛 제주인의 생활을 알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제주의 민속이 집약된 공간이다.



1-4-1. 제2민속전시실

제2 전시실은 제주의 생업·생산 주제관이다. 제주해녀, 제주의 농업, 사냥, 목축, 제주의 무속신앙, 불미공예, 제주의 말문화가 코너별로 전시되어 있다.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고가구도 보여주고 있다.



1-4-2. 제주의 가치를 담은 보물관

중요 문화재급 자료 신규발굴로 전시유물 공개 공간의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어 제주의 가치를 담은 보물관을 신설하였다. <제주삼읍도총지도>, <남환박물> 등 지방문화재 6점을 독립진열장을 제작하여 진열하였으며 임금님 진상품 코너도 마련하였다.





1-5. 제주체험관

제주체험관은 제주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소리를 비롯하여 정낭, 갈옷, 돛통시, 제주어 체험, 물질마중 트릭아트, 올레 등 다양한 제주 전통 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다.



1-6. 야외전시장(중앙정원)

제주도는 돌이 많은 고장으로 예부터 돌을 가공한 생활용구와 석구들이 많았다. 나무나 흙에 비해 영구적이며, 재료를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곳에서는 곡식을 도정했던 연자매를 비롯하여 돌방에, 맷돌, 정주석 그 밖에 동자석, 망주석, 비석등을 전시하고 있다.



1-7. 해양종합전시관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여 다양한 어류의 산란장과 월동장이 되고 있다. 또한 아열대와 한대 생물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바다로 해양종합전시관에는 그 바다에 서식하는 어류, 해조류, 패류 등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관 중심부에는 2004년 제주에서 발견되어 박제로 제작된 13m크기의 브라이드 고래골격을 전시중이며, 바닥에 리액티브 시스템(Reactive system)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고래와 더욱 친밀함을 느낄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해조류, 대형어류 표본, 연산호, 산갈치와 고래상어, 돌묵상어, 소가오리 등을 수중 디오라마와 설명 패널로 연출하고 있다.



1-8. 수눌음관(특별전시실)

수눌음관 내 특별전시실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개최된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를 비롯하여 『강정마을 윤씨일가의 옛생활을 보다』,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등 4회의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1-9. 야외석물전시장 및 암석전시장

박물관 마당에는 암석전시장이 마련되어 현무암, 조면현무암 및 아아용암과 파호 이호이용암등의 대형암석들을 보여주고 있다. 석물전시장에는 제주도의 옛 선인들의 돌을 활용한 지혜를 엿볼수 있는 여러 형태의 특색있는 용구들을 볼 수 있다.

수용통, 고래, 방패, 절구를 비롯하여 화로, 도구리 등의 생활용구와 동자석, 석등, 망주석 같은 신앙생활 용구를 비롯한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2. 특별전시

특별전은 상설전시 외에 기획 전시를 통해 미공개 소장자료 전시 및 관람객에게 독특한 제주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하고 있으며, 개관 이래 모두 140회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2018년에는 2017년 11월부터 개최된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를 비롯하여 『강정마을 윤씨 일가의 옛 생활을 보다』,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과, 『제주의 향기를 품다』를 주제로 목포 및 광주에서의 도외이동전시 등 5회의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표. 2018년도 특별전 개최 현황

전시제목	전시기간	전시내용	비고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12. 08. ~ 3. 31	서중천의 경관, 생태, 인문환경 등 300점	제주도내 4개 국·공립박물관
강정마을 윤씨일가의 옛 생활을 보다	4.23.~7.31.	제주인의 일상복, 가재도구, 용기류, 논 다루는 소리 등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8.8.~10.14.	멸종위기식물의 채색세밀화, 모형 및 표본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11.12.~ 2.28.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구술, 유품, 사진 등	협조기관 : 국가기록원,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3·4기 전우회 등
제주의 향기를 품다	9.17~10.11(목포) 12.6.~ (부산)	제주의 독특한 문화 등에 대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2-1. 『서중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김종만), 제주대학교박물관(관장 문혜경), 제주교육박물관(관장 김보은) 등과 함께, 한라산 계곡에 대한 학술조사를 수행한 바, 지난 2012년 광령천을 시작으로 2013년 중문천, 2014년 창고천에 이어 2015년 연외천, 2016년에는 서귀포시 서중천을 대상으로 학술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2016년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이 공동으로 수행한 서중천에 대한 학술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되었다. 전시 내용으로는 서중천의 옛 기록을 비롯하여, 발원지인 흙불은오름에서 해안에 이르는 서중천의 3D 영상, 생태사진, 생물표본, 화산탄 체험 등이 선보인다. 이 밖에 호랑지빠귀 포토존, 자연의 소리 영상 그리고 고사리 축제와 서중천 학술탐사과정도 소개된다.

서중천의 주요 자원으로는 바위그늘유적을 비롯하여 제한이곡지굴, 잣성, 숲길 등의 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제주십자고사리, 원앙, 팔색조 등 다양한 생태적 자원을 간직하고 있다. 최근 서중천 일대를 중심으로 생태탐방로, 머체왓 숲길 등이 개설되면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제주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국내외의 탐방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함과 동시에, 서중천 일대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에 대한 가치가 더 한층 재조명되기를 희망한다.



2-2. 『강정마을 윤씨 일가의 옛 생활을 보다』 특별전

우리 박물관에 서귀포시 강정동 윤경노(97)옹이 2006~2007년에 이어 2015년 복식, 옹기, 궤, 서적, 문서, 그릇 등 150여점을 추가로 기증하였다. 그에 따라, 한 집안에서 내려오는 생활유물을 통해 제주인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보는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들 기증품은 생활 모습이 바뀌면서 더 이상 쓰임새가 없어져 창고에 쌓아 보관해 오다 박물관 기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 다시 21세기로 이어지는 시대적 변화 속에 제주의 역사, 제주인들의 삶의 양태, 전통 문화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특별전은 의복, 옹기, 궤, 윤경노의 논 다루는 소리 등 4개의 주제로 짜여졌다.

윤경노옹은 “우리 일가에서 기증한 생활유물들을 박물관에서 잘 보관·관리해 후세대까지 선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등 제주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보존해 나갈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2-3. 『제주의 숨겨진 꽃보물』 특별전

제주에는 18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고 그 중 희귀식물 290여종이 지정 보호되고 있다. 말 그대로 ‘식물의 보고(寶庫)’이자 ‘보물섬’이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식물의 실상을 바로 알린다는 의미에서 「제주의 숨겨진 꽃 보물」 특별전을 마련하였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식물 종의 꽃들을 알기 쉬운 채색 세밀화(검은별고사리 등 25점)를 비롯하여 모형(금자란 등 12개)과 표본(솔잎난 등 7점), 영상(복수초 개화 1점) 등을 통하여 제주의 생태 환경 보호 및 자연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야생식물 절멸 위급(CR-야생에서 절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절멸 위기(EN-야생에서 절멸할 가능성이 높음), 취약(VU-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등 3개의 테마로 나누어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감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곳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청정 제주를 잘 보존해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4.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2018년은 6·25전쟁 68주년이 되는 해로, 제주의 젊은이들은 가족의 안녕과 학교 교육보다는 기꺼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달려가, 목숨을 담보로 대한민국을 지켰다. 당시 제주도는 4·3으로 인하여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음에도, 제주도민들은 자원입대하여 큰 전공과 희생을 남겼기에, 당시 참전 용사들이 남긴 흔적이 바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역사가 되고 있다.

특별전에는 참전용사님들의 육성 인터뷰를 비롯하여 전쟁 유물과 개인 소품, 전우들의 사진 그리고 제주와 인연을 맺은 여러 사연들이 전시되었다. 특히 제주 출신의 호국영웅 강승우 중위, 고태문 대위, 김문성 중위, 한규택 하사를 비롯하여 학도병과 여자해병대의 참전실화들이 소개되었다. 그리고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국가기록원의 참전 당시 사진 자료와 전쟁기념관, 해병대사령부, 제주교육박물관, 해병대 3·4기 전우회 소장 유물들이 공개되었다.



특별전을 계기로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안겨준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 위해, 관련 단체와 유족, 청소년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특별전 개막식은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1시에 한국전쟁 유관 기관과 단체를 비롯하여 참전용사들과 유족들을 초청하여 박물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 행사에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한국전쟁 관련 단체인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해병대 3·4기 전우회, 해병대제9여단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전시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한국전쟁 관련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였다.



3. 이동전시

3-1. 『제주의 향기를 품다』 도외 이동전시

우리 박물관은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대외로 알리기 위하여 제주의 세시풍속 및 생활사를 주제로 『제주의 향기를 품다』 도외 이동전시를 개최하였다. 우리 박물관에서 수집한 자료 70여점을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목포지역과 부산지역에서 순회로 전시하였다. 본 전시를 통해 과거 제주인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의 생애를 각종 유물 및 사진자료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 특히 제주출신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향 문화를 타지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이동 전시 개최 현황

구분	전시기간 및 장소	내용
『제주의 향기를 품다』 목포 특별전	2018.9.17. ~ 10.11.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제주인의 생활사를 유물과 사진으로 연출
『제주의 향기를 품다』 부산 특별전	2018.12.6. ~ 2019.1.20.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



『제주의 향기를 품다』 목포 특별전



『제주의 향기를 품다』 부산 특별전

3-2. 도내이동전시

우리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행사와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여 각종 행사장에서 이동 전시를 실시함으로써 박물관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협력망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제57회 탐라문화제, 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 고마로 축제 행사장 등지에서 이동전시를 실시하였다.

※ 이동 전시 개최 현황

구분	전시기간 및 장소	내용
제57회 탐라문화제	10.10~10.14. 탐라문화광장	제주민속사진 및 영상전시, VR체험
고마로 축제	2018.10.19.~10.20.	보물섬 제주읍성 홍보 및 VR체험
고상돈로 전국걷기대회 (고상돈기념사업회)	11.04. (1100고지 고상돈 묘역 일대)	고상돈 산악인 에베레스트 등정 사진 30점

▶ 제57회 탐라문화제

탐라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되는 제주의 대표행사이다. 탐라개벽 이래 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이어오면서 제주 선인들이 창조해 낸, 제주문화유산의 특성인 서민문화성과 고유문화성의 가치를 한껏 드높여 천년탐라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며 함께 어울리는 축제이다.

우리 박물관은 제주의 민속사진 및 영상을 전시하는 부스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문화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였다.

▶ 고마로축제

수천 마리의 말을 방목했던 광활한 숲 ‘고마장’의 풍경을 칭했던 ‘고수목마’의 역사를 알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시작한 고마로 축제에서 2018년 박물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인 보물섬 제주읍성걸기를 홍보하였다.



탐라문화제



고마로축제

▶ 고상돈 이동전시

2018년 11월 4일(일) 고상돈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전국 『고상돈로 전국 걷기 대회』를 맞아 한라산 1100고지 고상돈 묘역 일대에서 에베레스트 등정 사진 30점을 전시함으로써, 고상돈 산악인 불굴의 정신을 널리 알렸다.



IV 사회교육

Folklore & Natural History Museu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nual Report of Musuem



사회교육

박물관의 사회교육은 소장 자료 등을 활용한 향토 역사·문화교육, 지역 정체성 확립 등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 박물관은 지역대표 문화복합공간으로서 전통문화 교육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립 등 문화향유시설로 다가서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문화기반시설의 도심 집중으로 인한 문화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다양한 사회교육 과정을 통해 향토 민속 문화와 자연 자원을 주제로 하여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이론 교육 및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획과 운영에 있어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2018년에는 설·추석 민속한마당을 비롯하여 감물염색체험, 박물관 제주학 아카데미,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역사기행교실, 자연유산 생태교실, 박물관 창의마당, 어린이날행사, 바다생물체험마당, 박물관 청소년교실, 청소년 역사기행교실, 세시풍속 동지팔죽 등 11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

2018년 사회교육 운영

유치부

- ▶ 동화구연교실(4월~11월): 제주의 신화와 설화 동화구연
- ▶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12월):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

초등부

- ▶ 창의야 나랑 놀자(3~10월 둘째주 토요일): 생활과학과 자연과학에 대한 체험
- ▶ 동화구연교실(4월~11월): 제주의 신화와 설화 동화구연
- ▶ 제주 설화구연대회(11월 25일): 제주 설화 구연 대회
- ▶ 보물섬 제주읍성 성안으로 가즈아~ (9월~11월): 제주 읍성 및 원도심 탐방
- ▶ 감물염색체험(8월): 감물염색 체험
- ▶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기행교실(4월, 5월): 지역사 교육 및 사적지 탐방

청소년

- ▶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기행교실(11월): 지역사 교육 및 사적지 탐방

성인

- ▶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4월~10월): 제주학 강좌
- ▶ 제주 담채화교실(3월~10월): 담채화 기본실기 및 현장스케치
- ▶ 한문우연(매주 화요일): 한문강독
- ▶ 성안으로 가즈아(10월): 제주읍성 및 원도심 탐방
- ▶ 죽음학강좌 (3월 23일): 죽음의 이해
- ▶ 건축학 강좌 (4월 중 목요일): 제주 건축과 초가의 이해
- ▶ 보물섬 제주 살살이 훑어보기 강좌(9월 중 목요일): 일곱 개의 별과 달을 품은 탐라왕국
- ▶ 감물염색 체험(8월): 감물염색

관람객

- ▶ 새해맞이 덕담나누기 판화체험(1월 11일): 덕담 판화찍기 및 채색 체험
- ▶ 샌드아트(4월 3일): 4·3 70주년 기념 행사
- ▶ 제주 감빛에 담긴 옷이야기(10월 31일): 생활한복, 전통항복 등 패션쇼
- ▶ 설 민속한마당(2월 16~17일): 설 민속한마당
- ▶ 정월대보름(3월 2일): 부럼깨기
- ▶ 어린이날(5월 5일)
- ▶ 닭먹는날(8월 1일)
- ▶ 추석 민속한마당(9월 24일~25일)
- ▶ 동지(12월 22일)



V 학술총서 및 교류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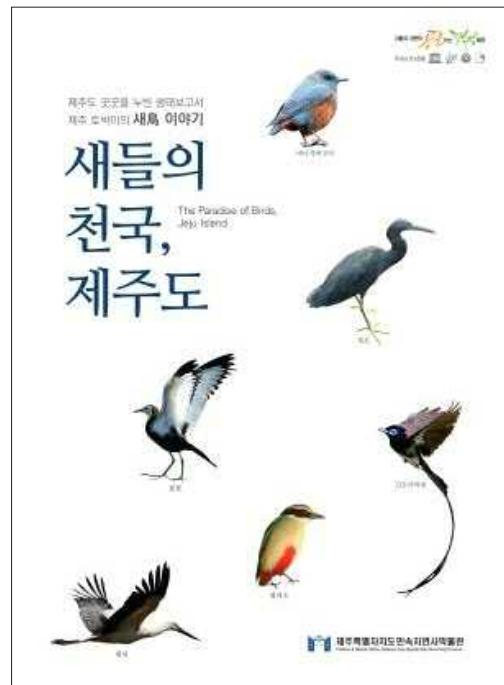
1. 『새들의 천국 제주도』 발간
2. 『6·25 참전실화』 발간
3. 『제주인의 삶과 도구(성산읍)』 총서 발간
4. 『목도에서 경쇠치던 벼에게 보낸 편지』
발간
5. 『신비로운 제주의 돌이야기』 발간
6.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업무협력
7.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력



1. 『새들의 천국 제주도』 발간

개관 34주년을 맞아 제주도 곳곳을 누비며 새들과 상생하면서 그들의 생태환경과 애환을 실은 『새들의 천국, 제주도』를 발간하였다. 책자에는 도내에서 활동하는 생태사진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류 생태사진 610컷을 비롯하여 새들의 분포, 습성, 위협요인, 탐조요령 등을 포함하여 제주를 찾은 희귀 조류의 흔적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 조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 조류 목록과 주요 참고문헌을 함께 수록하였다. 집필자인 김완병 학예연구사는 20여 년 동안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주 토박이 조류학자로서, 제주섬이 새들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생물다양성 연구 기관 등에 무료로 배부하였으며, 300부는 도민들에게도 선착순으로 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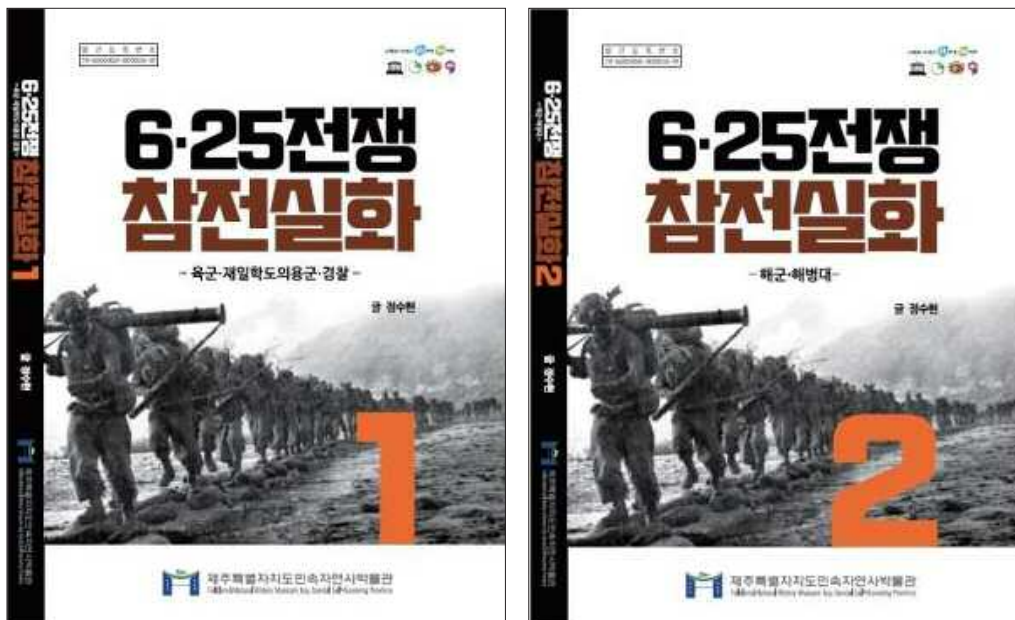
2. 『6·25 참전실화』 발간

6·25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 제주지역 출신 참전자의 전쟁 참전 실화집 『6·25전쟁 참전실화』 1, 2권을 10월에 발간하였다. 제주 출신 6·25참전자의 수는 약 1만3000명(육군 1만명, 해병대 3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여성도 126명이 포함됐다.

『6·25전쟁 참전실화』 1권은 육군, 재일학도의용군, 경찰 출신 참전용사 58명의 활약을 담았고, 『6·25전쟁 참전실화』 2권은 해군, 해병대 67명 참전용사에 대한 글이 실렸다.

저자는 제주도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인 정수현 선생님이 6·25전쟁 참전자들의 실화를 2008년부터 정리하신 분이다.

『6·25전쟁 참전실화』를 내면서 자랑스러운 제주출신 용사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통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의 가슴에 깊게 새겨져 살아있는 역사로 이어질 기원한다.



3. 『제주인의 삶과 도구』 발간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발간은 2013년부터 이루어지는 2022년까지 10년간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일상과 관련된 생활도구를 조사하는 사업이다. 2018년에는 여섯 번째로 성산읍 14개 행정마을 중 산간과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한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의·식·주, 농업, 어업, 축산 등 6개 항목으로 나눠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생활도구와 농사일, 바닷일 등에 사용했던 도구의 쓰임새를 사진촬영과 더불어 구술채록 조사하였다. 제보자는 해당 마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생생한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성산읍 편 보고서를 통해 제주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박물관의 전시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후세대들에게 제주의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 10개년 사업으로 도내 전 지역 전수조사

애월읍(2013), 조천읍(2014), 구좌읍(2015), 안덕면(2016), 한경면(2017), 성산읍(2018), 대정읍(2019), 남원읍(2020), 표선면(2021), 한림읍(2022)



4. 『목도에서 경쇠치던 밧에게 보낸 편지』 발간

박물관 역사자료 총서 ‘목도(木道)에서 경쇠치던 밧에게 보낸 편지-유배지에서 영양공(李衡祥)에게’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작년에 발간된 1집 ‘이별의 한 뼨 수심 이 바다와 같이 깊은데’에 이은 연작이다.

병와 이형상 제주목사(1653~1733)가 지인들에게 받은 74통의 초서편지와 시를 번역한 자료집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제주지역 사료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익수위원이 번역을 맡았다.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제주 감산리에 유배왔던 호조판서를 지낸 오시복을 비롯하여 이조정랑을 지낸 민흥도와 대사성을 지낸 민창도 형제,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심중량과 승지를 지낸 심계량 형제, 파주목사를 지낸 신필청, 형조참판을 지낸 이봉징, 예조참판을 지낸 이진휴등 당시 남인계로 분류되는 문인들이다.

편지를 통해 이형상이 전라도로 유배된 남인계 인물 이봉징을 돌보기 위해 제주목사 파직 후 영광군수로 부임한 사실 등이 파악되는 이번 역사자료 총서는 18세기 유배인의 생활사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제주의 신비로운 돌 이야기』 발간 -김현경

제주도는 섬 자체가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돌의 고장이다. 제주인의 삶 속에 함께해 온 다양한 돌 문화를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보고자 『신비로운 제주의 돌 이야기』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도내 분포하는 암석들의 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현미경사진, XRF분석 등을 사진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Q&A로 엮었다.

또한 관심있는 분들이 스스로 그 현장을 찾아가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사 위치의 위경도를 함께 수록하였다.

우리 박물관은 제주도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내용이 어려워 접근하기 힘든 중고등학생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조금 더 쉽게 제주를 구성하는 암석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자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해나갈 계획이다.



6.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 협력

- 『추자도 학술조사』 참여 -

국립중앙과학관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사무국이 운영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3차 및 제24차 공동학술조사를 2차에 걸쳐(1차: 5월 28 ~ 6월 1일, 2차 9월 3일~9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자도 일대에서 실시하였다. 공동학술조사에는 우리 박물관을 비롯하여 국립중앙과학과, 국립수목원, 문화재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공립 및 사립기관 소속 85여명의 생물다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횡간도, 추포도 일대 조사팀으로 나눠 각 분류군별 분류학적 연구와 지역별 생물상, 행동권, 서식생태 등의 연구를 통해 종 다양도 및 생명정보를 확보하였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정세호(곤충)를 비롯하여 김완병(조류), 김현경(지질) 학예연구사가 참여하였다.

한편 국가생물다양성 기관연합은 생물다양성의 실물과 정보의 지속적인 발굴·확보, 체계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 지난 2007년 16개 기관으로 출범했으며, 5월 현재 총 55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7. 국립중앙과학관과 업무협력

-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한국위원회 총회 제주 개최-

국립중앙과학관은 제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한국위원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을 3월 29일(목)부터 3월 30일(금)까지 이틀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GBIF 한국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 및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한국이 GBIF에 2001년 가입함에 따라, GBIF 정회원으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국가자연사자원의 발굴·수집 및 협력체제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정기총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청(기관)의 간부급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GBIF 한국위원회 위원과 해당 부처(청) 담당자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GBIF 한국사무국 운영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GBIF 한국사무국 활동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청 간 협의, 국내외 생물다양성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관련 공동협력 사항을 논의하였다. 총회에 이어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국립생물자원관 이병운 과장), 4차 산업혁명과 생물다양성 정보 역할(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박종화 교수), 부·처·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상명대학교 김창배 교수)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VI 기타

1. 문화가 있는 날 행사
2. 도민과의 교감의 날 1일 명예관장 운영
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4. 박물관 방문자 소식
5. 친절교육
6. 박물관 홍보
7. 언론 기고
8. 2018년 박물관 관련 보도자료



1.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행사 운영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운영.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무료개방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문화의 날’은 지난 2014년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들의 문화 융성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했던 과제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도 2014년부터 박물관 무료개방만을 시행하다 2015년부터 문화행사를 추가 운영하여 국악, 제주민요, 가요, 댄스, 사물놀이, 마술, 저글링 등의 문화 공연으로 도민과 관람객들에게 고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의 날 행사는 도민과 관람객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무대를 꾸몄는데 2018년에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를 주제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박물관 무료개방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 기간: 2018년 2월 ~ 11월(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4:30 ~ 15:30)
- 관람인원: 도민 및 관광객 13,067명
- 장소: 박물관 광장 및 시청각실
- 내용

2018년 공연은 클래식, 합창, 국악, 댄스, 사물놀이, 다양한 악기 연주 등에 이르기까지 매월 주제를 달리하였으며 특별한 제한 없이 다양한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하여 자유롭게 즐기는 축제의 놀이판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총 10회 운영되었다.

특히, 마술, 저글링 등의 공연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으며 추석 연휴기간 야외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민속공연은 도민, 내·외국인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문화공연의 질도 많이 높아진 한해였다.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의 날 무료개방과 다채로운 행사는 도민과 관람

객들에게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하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한편,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 제주 관광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19년에도 더욱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다양한 동아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연내용

구분	일자	주요프로그램	인원	내국인	외국인
계			13,067	12,072	995
2월	2018.02.28.	- 비나리 / 춘향가 中 사랑가 / 제주아리랑 - 소고춤 / 물허벅춤 / 화관무 - 태평가 / 밀양아리랑 / 뱃노래 / 자진뱃노래 - 국악실내악 공연 (프린스 오브 제주, fly to the sky / 희망가) - 성주풀이 / 달타령	935	922	13
3월	2018.03.28.	- 판굿 / 오돌또기 / 너영나영 - 해녀춤 / 부채춤 / 장구춤 - 국악실내악 공연(모두 꽃이야 / 센과 치히로 / 고향의 봄 / 희망가 - 청춘가 / 매화타령 / 꽃타령 - 배 띄어라	1,708	1,686	22
4월	2018.04.25.	- 하드케이스(남성첼리스트)의 첼로4중주협연 - 색소폰앙상블의 7080노래 연주 - 온라인의 신나는 댄스 공연	1,676	1,624	52
5월	2018.05.30.	- 통키통키의 기타연주와 팝·가요 중창 - 제주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 공연 - 마술콘서트의 마술	1,933	1,644	289
6월	2018.06.27.	- 클빛소리시니어합창단의 시낭송 및 섬집아기, 오빠생각 등 합창 - 제주오름무용단의 해녀춤 - 빠시오네의 아카펠라 공연	1,212	1,017	195
7월	2018.07.25.	- 오카리나 연주 공연 - 일렉바이올린 공연 - 향아리장단 공연	826	750	76
		- 노래하는 신부님 공연 - 12줄가야금 공연			

구분	일자	주요프로그램	인원	내국인	외국인
8월	2018.08.29.	- 매듭순간이동 퍼포먼스 - 댄스스포츠 - 힙합댄스	742	662	80
9월	2018.09.26.	- 사물놀이 공연 - 제주민속춤공연 - 가야금연주공연 - 제주북공연	1,173	1,075	98
10월	2018.10.31.	- 금관양상블, 저글링, 통기타 연주, 마술, 플룻&클라리넷, 색소폰 독주	1,261	1,165	96
11월	2018.11.28.	- 목관양상블, 통기타 연주, 색소폰 독주, 금관 양 상블	1,601	1,527	74

□ 공연사진



2월 '문화가 있는 날'



3월 '문화가 있는 날'



4월 '문화가 있는 날'



5월 '문화가 있는 날'



6월 '문화가 있는 날'



7월 '문화가 있는 날'



8월 '문화가 있는 날'



9월 '문화가 있는 날'



10월 '문화가 있는 날'



11월 '문화가 있는 날'

2. 도민과의 교감의 날 1일 명예관장 운영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2018년도부터 도민과 교감의 날 교감의 날을 운영하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1일 명예관장을 위촉해 왔다.

- 개요
 - 위촉대상: 1일 명예 관장 참여 희망자, 박물관 관련 주요인사, 관외 거주 출향 인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유관기관단체장 등
 - 위촉현황: 12명(남 10명, 여 2명)
 - 근무위치: 민속자연사박물관 내 공감실
 - 운영내용: 위촉장 수여/박물관 운영 상황 공개 및 건의사항 수렴/주요업무보고/시설물 견학 등

1) 1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1.25.(목)
- 위촉대상: 김봉오
 - 주요경력: 제주문화원장, 제주교육청발전위원회위원장, 21세기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박물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문화와 자원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박물관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



2) 2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2.28.(수)
- 위촉대상: 김석윤
 - 주요경력: 한국건축가협회제주지회장, 제주도건축사회회장, 제주문화포럼 이사장 등
- 주요내용: 수놓음관 제막식 참석, 기증자 감사패와 기증자 수여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 발전과 관련하여 건축 관련 자문 등을 포함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3) 3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3.28.(수)
- 위촉대상: 김국주
 - 주요경력: 재단법인 곶자왓공유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 이사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제주문화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기부문화 조성에 힘쓰겠다



4) 4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4.25.(수)

○ 위촉대상: 허민자

· 주요경력: 제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교수, 심헌 도예연구소 대표, 심헌 갤러리 관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을 이해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박물관을 홍보하는데 힘쓰겠다. 직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줬으면 한다.



5) 5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5.25.(금)

○ 위촉대상: 이유근

- 주요경력: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영갑갤러리후원회장, 아라요양병원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 개관 때도 함께했었는데, 역사 깊은 박물관에 한 식구로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박물관에서 제주 고유의 가치를 간직한 소장품을 적극 발굴 수집해 나가야 한다. 또한 모든 일에는 도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므로 박물관 활동상황을 밖으로 알리는데 전 직원이 힘써야 한다.



6) 6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6.21.(목)

○ 위촉대상: 부형중

- 주요경력: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부회장,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위촉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박물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박물관과 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거동 불편한 관람객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사소한 것부터 배려하고 신경 써 달라.



7) 7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7.25.(수)

○ 위촉대상: 현임중

· 주요경력: 신용보증기금제주지점장, 재단법인김유비장학회 이사, 수필가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박물관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박물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제주문화 및 박물관 홍보를 위하여 애쓰겠다.



8) 8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8.29.(수)

○ 위촉대상: 조영숙

· 주요경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부회장,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

치도협의회부회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포토존을 활용한 sns 홍보방안 등 많은 관람객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사소한 것부터 배려하고 신경 써 달라



9) 9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09.27.(목)

○ 위촉대상: 장덕지

- 주요경력: 한라대학교마사학부 초빙교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 제주마문화연구소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제주다운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발굴하고, 현재를 기록하는 역할을 다 하는 박물관이 되어 달라



10) 10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10.31.(수)
- 위촉대상: 박경후
 - 주요경력: 제3대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BTN(불교방송) 제주지사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2~3년 전부터 박물관 전시내용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사설박물관과 차별성을 갖는 박물관이 되어 달라



11) 11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11.28.(수)
- 위촉대상: 송상훈
 - 주요경력: 한림공원 대표이사, 제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부회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앞으로 박물관과 제주지역문화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겠다.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을 관람했었다.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명품박물관이 되어 달라



12) 12월 명예관장 위촉 운영

○ 일시: 2018.12.19.(수)

○ 위촉대상: 조명철

· 주요경력: 혜향문화회 명예회장, 제주시교육청 교육장, 제주문인협회 회장 등

○ 제안사항 및 소감 등

·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인다. 원도심 속의 박물관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박물관이 되어 달라, 국제자유도시에 걸 맞는 박물관을 만들어서 제주문화와 자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3.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봉사회

- 운영근거: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봉사회 구성 경과
 - 2018년 1월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2월~ 회원 모집(60명)
 - 2018년 6월 29일 후원회 구성 관련 사전회의 개최
 - 장소: 박물관 시청각실
 - 내용: 창립준비위원 구성(9명)
 - * 김순택(창립준비위원장), 고재만, 김봉진, 김신영, 김원순, 문순열, 박명순, 전영천, 조영희
 - 2018년 7월 19일 봉사회 창립준비위원 1차 회의
 - 후원회 명칭 선정: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
 - 후원회 운영규정 초안 작성
 - 발대식 및 창립총회 일정 선정: 8. 17.(금) 14:00예정
 - 봉사회 임원 일부 내정
 - 회장(김순택), 부회장(김원순, 김신영), 총무(조영희), 재무(문순열)
 - 운영위원(고재만, 김봉진, 전영천, 박명순) 고문(김봉오)
 - 2018년 8월 8일 봉사회 창립준비위원 2차 회의
 - 창립총회 이전 사전 정리 및 준비
 - 후원회 운영규정 정리 및 운영위원 추가 내정(장덕지, 장호인)
 - 후원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 일정 조정: 8. 23.(목) 17:00
 - 2018년 09월 3일 봉사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
 - 명칭/임원구성/운영규정/ 회비 등 확정
- 봉사회 활동 상황
 - 2018.10.19. 흥기표와 함께 하는 보물섬 제주읍성 걷기 프로그램 참여: 10여명
 - 2018.10.31. 「제주 감빛에 담긴 옷 이야기 전시회 및 패션쇼」 특별전 봉사: 20여명
 - 2018.11.12.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행사 안내 및 음료 봉사 등: 30여명

• 봉사회 임원 명단

회장	김순택
고문	김봉오
감사	문혜숙, 고동희
부회장	김원순, 김신영
총무	조영희
재무	문순열
운영위원	고재만, 김봉진, 전영천, 박명순, 장덕지, 장호인, 고춘복, 진순배

• 봉사회 활동사진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2018.9.3.)]



[홍기표와 함께 하는 보물섬 제주읍성 걷기(2018.10.19.)]



[제주 감빛에 담긴 옷 이야기 전시회 및 패션쇼 특별전 봉사(2018.10.31.)]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행사 안내 및 음료 봉사 등(2018.11.12.)]

4. 박물관 방문

1. 박물관 3천300만명 관람객 맞이

1984년 개관한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누적 관람객 수 3천 300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최고 공립박물관으로 자리 매김 되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5월 5일 11:30에 3천 3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하였는데, 행운의 주인공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최용은님 가족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도를 보고 느끼려면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제주의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과 주민 생활상을 보여주면서 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 전시 공간이다. 1984년 5월 24일, 문을 열어 올해로 개관 34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등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2017년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



[전국 공립박물관 최초 관람객 3,300만명 달성 이벤트(2018. 5. 5.)]

금지조치로 한때 주춤하기도 하였으나, 연평균 100만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3,300만 번째 주인공 『최용은』님은 “제주에서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 듣게 되어 마음먹고 방문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3천 300만 번째 방문자라니 얼떨떨하지만 너무 기쁘다. 환하게 웃으며 환대해 준 박물관 직원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박물관을 평생토록 기억하겠다.”는 소감을 말했다.

2. 중국 하이난성장 방문

제주-하이난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도모 및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한 선샤오밍(沈晓明) 하이난성장 정부관계자 일행이 박물관을 방문함에 따라 중국관광객에게 우리 박물관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중국 하이난성장 방문사진

□ 대표단(9명)

연번	이름	성별	직위
1	沈晓明(선샤오밍)	남	하이난성장
2	倪强(니창)	남	하이난성 인민정부 비서장
3	王胜(왕성)	남	하이난성 외사교무판공실 주임
4	丁晖(딩후이)	남	하이난성 하이커우시(海口市) 시장
5	阿东(아둥)	남	하이난성 산야시(三亚市) 시장
6	张东东(장둥둥)	남	하이난성 외사교무판공실 부처장
7	朱华友(주화위우)	남	하이난성 정부연구실 주임
8	杨希义(양시이)	남	하이난성 정부판공청 처장
9	董文爱(둥원아이)	여	하이난성 대외우호협회 비서장

□ 수행직원(4명)

연번	이름	성별	직위
1	王晓栋(왕소우둥)	남	하이난성 외사판공실 부처장
2	宁海辉(닝하이후이)	남	하이난성 외사판공실 주임과원
3	吴万来(우완라이)	여	하이난성 외사교무판공실 부주임과원
4	易志业(이즈예)	남	하이난성 외사판공실 부주임과원

5. 누구나가 감동하는 고객만족 친절시책 전개

우리 박물관은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 육성」의 기치아래 도민 중심, 관람객 중심의 최상의 고객만족 친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아침 일찍 박물관 로비에 모여 친절 인사를 나눔으로서 관람객을 다정히 맞이하는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로 삼고 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관람객 맞이 및 친절 결의 아침인사

아울러 김은석교수님을 모시고 인문학으로 본 공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오주영선생님과는 고객만족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직원들이 ‘최고의 자존감있는 박물관’을 육성하는데 좀 더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다.



인문학으로 본 공직자 자세
김은석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3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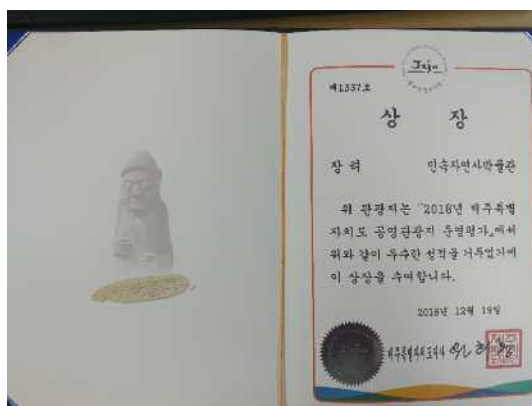
고객만족 실천 방안
오주영 변영실리더십&코칭센터 강사(6월 28일)

올 겨울에는 ‘제주다움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겨울이야기’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개선할 사항들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34년의 역사를 지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삶을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한림화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김형훈 박물관운영위원회 위원님, 김봉오 초대 명예관장님, 김순택 박물관봉사회 회장님도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제주다움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의 겨울이야기’ 부서워크숍

그 결과, 공영관광지 평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영관광지 평가에서 당당하게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 직원 모두는 관람객과 도민 등 모든 고객에게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맡은바 업무에 정려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 공영관광지(32개소) 평가 결과 장려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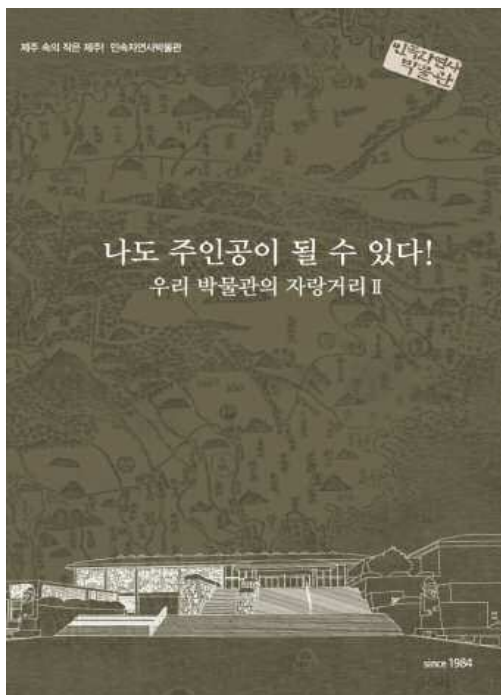
6. 박물관 홍보용 비경 사진집 및 아트리플릿 제작

1)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 II’ 책자 발간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다.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비경을 소개하는 이 책자는 박물관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책자 두 번째 시리즈로, 박물관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박물관 전경, 중앙정원, 팽나무, 초가집, 돌하르방 등을 사진집에 담았다. 그 외에도 박물관의 사계, 박물관 내의 감춰진 모습, 관람객들이 찾는 포토존 등도 실었다.

사진집 제작에 참여한 직원은 “사진 작업을 계기로 아름다운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진집을 본 관람객은 “농치기 쉬운 박물관 풍경들을 사진집에서 찾는 재미가 있다”면서 “좋은 추억을 안고 간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사진집은 박물관 로비에 비치되어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2) 아트리플릿 제작

올해에는 과거의 리플릿과는 전혀 다른 박물관 방문 기념용 아트(Art)리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하였다.

제주의 전통문화와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의 대표 마스코트인 ‘산갈치’, ‘테왁’, ‘항아리’를 리플릿에 담아 디자인했다.

박물관에서는 4개 국어, 4종 칼라로 새롭게 단장한 리플릿을 관람객 유치를 위해 전국 여행사, 전국관광협회, 도내 학교·경로당에 발송하였다.

리플릿을 받아 본 관람객들은 “리플릿이 색달라 박물관 방문 기념으로 소장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관람 후에 버려지는 리플릿을 보면서 돌하르방 모양의 단단할 재질로 리플릿을 예쁘게 꾸미면 누구나 간직하고 싶은 아트리플릿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람으로 만들었다.



7. 언론 기고

6·25전쟁과 제주 그리고 제주인

정세호 관장(제주의 소리, 1.16.)

초겨울의 세찬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욱 떨어뜨려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제주는 바람의 섬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제주에 몰아닥치는 바람은 기압골의 형성과 해수 수온의 영향이 클테지만 제주섬의 중심, 해발 1950m 한라산 앞에서 더 북상하지 못한 채 일본쪽으로 꺾이는 현상이 많은 점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제주섬의 존재 자체로서 바람으로 인한 육지부 피해를 저감시킨다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도 그렇습니다. 6.25는 제주도, 도민과 땀해야 땀 수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산천이 고이 잠든 새벽 4시 북한군 13만 5000여 명은 전차 150대와 야포 600문 그리고 항공기와 경비정 등을 앞세우고 38도선 전역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강력한 적군의 공격 앞에 군비가 허술한 아군은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7월 16일에는 중부권의 요충인 금강방어선을 돌파당하여 전선은 남으로 남으로 밀려 적군에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제주도민들은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자고 부르짖었고, 그 우국의 함성이 요원이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덮어놓았고 농군들은 농기구를 놓아두고, 학생들은 학교별로, 지역의 청소년들은 청년방위대별로 군사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이 한 몸 나라 위해 바치겠다는 거룩한 애국심으로 고향산천과 정든 가정을 두고 군입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에 제주도에 사령부를 둔 해병대로 3000여 명이 입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장하게도 16세부터 모병한 여자의용군 126명도 끼어있었으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7월 16일 제주에 설치된 제5훈련소에 육군으로 1만여 명이 입대하였습니다. 이렇게 10월까지 1만 3000여 명이 출전하였으며 이

용사들은 군에 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알면서도 개인보다 나라가 우선이라는 애국지성으로 혈서를 쓰면서 입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 전쟁 상황은 아군이 10월 1일 38도선을 넘고 북진을 하여 희망에 들떴으나 10월 19일 중공군과 소련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출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이나 진행되었고, 제주용사들은 총탄이 난무하는 산악에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하게 적을 무찔렀습니다. 제주도 출신이 주로 참전한 장장은 육군은 지리산지구, 인제군의 설악산, 고성군의 884고지 및 월비산, 철원군의 백마고지, 김화군의 금성지구 전투에서 실로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해병대는 인천상륙, 수도탈환, 양구군의 도솔산, 924 및 1026고지, 장단군의 장단전투에서 그 투혼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무적해병의 신화를 창출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1년 1월 22일 대구 수성동에 있던 육군 제1훈련소가 대정 상모리로 이전해 왔습니다. 훈련소는 1956년 1월 1일 해체 시까지 50만 병사와 하사관 3만 8745명, 자동차운전병 7355명을 양성하여 전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용사들이 전쟁 주역의 일환이 되어 인해전술을 구사하는 공산군을 무찔렀습니다. 또한, 1951년 2월 1일부터 공군사관학교가 대정국민학교로 옮겨와 4월 23일 떠날 때까지 공군 간부를 양성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정 알뜨르비행장에는 공군전투비행단이 옮겨와서 미 공군 헬스 소령의 지도 아래, 한국 공군조종사에게 F-51무스탕전투기 비행훈련을 잠시 동안이나마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 제2조병창을 1950년 10월 16일 제주여자중학교와 제주주정공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조병창은 1953년 11월 20일 인천시 고잔동으로 이설할 때까지 총탄, 수류탄, 박격포탄을 제조하여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육지부가 전쟁으로 황폐되다보니 피난민이 대거 입도하였고, 1951년 말에는 무려 15만여 명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들도 제주에서 도민과 함께 고난을 참으며 한때를 살다가 귀환하였으며 이로 인해 제주문화는 한층 향상 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후방전략기지로서 국토의 최후 거점으로 인적·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전쟁수행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출전한 수많은 용사가 나라를 위해 산화하였고, 상당수가 전상을 당하였으며 만기 제대하고 귀향한 용사들도 이제 고령으로 하나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진중보국한 거룩한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받들고 후세에 길이길이 전승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의 얼을 되새기고자 참전 68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이라는 기획전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25와 관련된 자료(훈장증, 사진, 책자류, 의복류 등)가 있는 분들은 민속자연사박물관(064-710-7680, 7704)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갈체의 부지런함을 아시나요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1.16.)

새별오름 남서쪽에 위치한 도너리오름은 10년째 자연휴식제에 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원형 분화구와 말굽형 분화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한경면 꽃자왈의 근원지이다. 말굽형 분화구가 갈체 모양이라서 '갈체오름'이라고도 한다. 갈체는 엮어 놓으면 오름 능선과 닮았고 바로 놓으면 한쪽이 터진 오름 분화구이다. 갈체는 제주사람들에겐 어떤 존재였을까.

농사일과 바닷일을 동시에 해야 했던 제주의 어머니들이 챙겨야 할 도구가 구덕과 갈체이다. 구덕은 대나무로 짜서 만든 바구니로 보통 테왁, 쌀, 떡, 빨랫감 등을 넣고 운반할 때 유용하며, 물허벅을 지는 물구덕도 따로 있다. 갈체는 기능적으로 육지부의 삼태기와 같다. 갈체는 틈새가 조금 있지만 촘촘하게 엮어서 만들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망가지기 일쑤다. 다행히 땀땀이덩굴의 줄기는 탱탱하고 탄력성이 좋아서, 갈체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땡땡이덩굴은 제주에서는 정동줄이라고 하는데, 정동벌립(또는 정동모자)을 만드는데 최고의 재료이기도 하다. 갈체를 사용하다가 손이 베이거나 상처가 날 우려가 대나무보다 훨씬 적은 이점도 있다. 어떤 때는 줄기가 여러 겹으로 꼬여서 자라기도 한다. 덩굴성 식물의 줄기가 사람의 갈등 문제만큼이나 꼬여 있기는 하지만, 그 꼬임새를 보고 생활도구로 활용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바로 골체에 스며있는 것이다. 질 좋은 정동줄과 윤노리낭 확보를 위해 평소에 정동줄이 있는 곳을 잘 살펴보는 것은 아버지들의 몫이었다.

농사를 지을 때 꼭 제거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검질(잡초)이다.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어머님들이 농사일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성가시게 하는 것이 검질이다. 밭에 검질이 많다보면, 게으른 집안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이다. 그도 그럴 것이 뽑으면 다시 올라오는 것이 검질이며, 조밭, 콩밭, 보리밭의 검질 매기는 정말 힘든 노동에 속한다.

검질을 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구가 바로 갈갱이와 갈체이다. 땅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잡초를 뽑기 위해서는 맨손으로도 하지만, 갈갱이(호미)가 있어야 효율적이다. 제거된 검질들은 밭 경계면에 따라 버려지지만, 군데군데 모아 놓은 검질들을 구석진 것으로 옮겨 놓으려면 운반도구인 갈체가 필수였다. 또한 갈체는 검질 뿐만 아니라 고구마, 감자, 당근, 거름, 흙, 자갈 등을 옮기는데 아주 유용하다. 특히 고구마 수확기에는 생빠대기(고구마를 썰어 놓은 거, 절간)를 나르거나 뿌릴 때 그리고 마른 빠대기를 주워 담을 때 아주 유용하다. 잠시 눈을 감고 옆구리에 갈체를 차고 잔걸음으로 밭에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이제 50대의 아들과 딸들은 절로 눈시울이 붉어질 것이다.

'갈체 부지럼은 하늘도 못 막나'라는 제주 속담이 있다. 갈체(삼태기)의 부지럼함은 하늘도 막지 못한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갈체는 쉴 겨를도 없이 다음날엔 또 다른 검질을 매야하니, 제주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럼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갈체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터진 부분을 형겔이나 나일론 끈으로 꿰매면서 수리해왔지만, 결국 버려진다. 슬플 뿐이다. 일부는 박물관으로 보내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갈

체에 배어있는 제주 사람들의 성실함과 근검절약은 온데간데 없어서 볼 때마다 참 애잔하다. 갈채오름을 비롯한 제주의 오름과 꽃자왈 그리고 돛박생이(돛박새)와 같은 보물들이 갈채와 같은 신세로 전락될까 우려스럽다.

봄이 와도 기쁘지 않은 이유

김완병학예연구사(제주매일, 2.27.)

하얀 솜털 옷을 입은 진객, 저어새가 떠날 때가 되었다. 처음엔 이들의 방문 소식이 전문가든 물론 기자들도 현장으로 곧바로 달려갈 만큼이나 고마운 정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겨울나기의 궁금증이 무더진다. 지레짐작으로 잘 있겠지 하며, 하도리나 성산포 철새도래지에 찾아가는 것이 뜸해진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뜻하지 일이 일어나거나 제주를 떠났을 때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많다. 자신의 소홀함은 탓하지 않고, 아무런 기별도 없이 떠난 저어새에게만 일방적으로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본다.

전국적으로 화재·지진·미세먼지·한파 등으로 매일 첫 뉴스를 차지할 정도로, 연초부터 닥친 겨울나기는 그야말로 버거운 나날이었다. 특히 농축어민과 시장 상인들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체감지수는 심각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다.

제주에서도 수십년 만에 감당하기 힘든 폭설을 만났다. 일부 도로를 아예 통제해야 했다. 모두들 쌓인 눈을 녹이느라 흠뻑 땀을 흘렸다. 도로에서 활주로에서 비닐하우스에서 골목길에서 그리고 직장에서도 난리였다.

더구나 입춘굿판도 폭설 속에 치르다보니, 벚꽃이 날리는 봄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소망했다. 근데 되레 걱정이다. 왜냐하면 봄소식보다도 정치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메시지가 눈발 날릴 듯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철이다.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도 많아질 것이다. 도민들의 심판을 받는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내미는 악수에 응해주거나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를 끊지 않거나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특히 특정 모임이나 자리에 직접 찾아가게 될 때는 천군만마를 만난 기분일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라서, 팬당이라서, 선후배라서, 그리고 뒤탈을 생각해서도 만나 주거나 참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다. 자주 가지 못하는 유권자입장에선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상대방은 얼마나 고마울까. 처음엔 큰 절도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다. 눈을 치울 때보다 눈이 다 녹을 때가 더 위험하다. 어려운 일은 함께 힘을 모으지만, 조금 편해지면 서로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 긴장 탓에 두 번째 모임을 잡는다. 처음보다 덜 긴장하게 되면, 첫 모임에 모습을 보인 사람은 당연히 올 것이라 생각한다. 원하는 사람도 가야될 사람도 그런 마음이지만, 눈치 있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다. 어떤 이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식구를 보내거나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도 저기도 ‘눈도장’을 찍느라 바쁘다.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가고 싶은 얇은 곳이 정치판이라서, 그만큼 자주 가기가 녹록치 않다.

여러 사람과 좋은 인연을 유지하려면, 눈을 치우는 것만큼이나 눈치 보는 일에 익숙해야 한다. 제주에선 누구나 겪게 되는 인지상정이라, 여기서 터를 잡은 사람들도 그런 속사정을 조금씩 알아간다.

모임과 연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고마운 마음이 점점 섭섭함으로 변해갈 것이다. 자기만 급하고 바쁘다. 그러면 진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속담도 있지 않은가.

유권자 입장에선 딱히 무슨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 없다. 그저 믿어주면 고마울 뿐이다. 누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성심을 다하는지 보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초지일관 주변을 잘 챙기면 된다.

이제 겨울철새들이 떠나면 텃새와 여름철새 간의 세력권 싸움으로 요란질 것이다. 좋은 자리는 새나 사람이거나 탐나기는 마찬가지다.

승패 때문에 괜히 지인에게 애달 필요가 없다. 새들도 의연하게 살아간다. 백록담에 쌓인 눈도 자연스럽게 녹듯이 봄날은 간다. 따가운 눈총을 겨누는 사람보다는 고맙고 당연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후보자들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끌린다.

제주다움은 선(線)과 선(善)을 지키는 것이다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4.12.)

새를 관찰하다 보면 넘지 말아야 선을 넘게 된다. 그저 멀리서 보고 기록 사진으로만 남겨도 될 일을 좀 더 가까이서 찍으려고 하다가, 귀한 손님을 놓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필자의 욕심에 새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준 것이 그들의 행복권을 박탈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앞선다. 까닭하면 새들이 영영 제주도에 찾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괜한 생각도 해 본다. 필자만 이럴까. 제주 사람들의 몸엔 착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있는 미투 운동도 넘지 말아야 선을 무너뜨리면서 생겨났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올해는 43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평화의 선을 지켰다면, 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을까. 가난했지만 불의에 항거한 것이 착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였다. 오죽했으면 순이 삼촌을 떠나보낸 현기영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을까.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싸우는 게 인간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싸워서라도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제주 사람들의 선한 행동이 진정한 제주다움이 아닐까. 바로 이로움을 멀리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착한 삶이 제주다움이다. 제주 사람들에게 무장되어진 삼무정신, 숨비소리, 수눌음, 조냥정신과 같은 착한 행동이 있었기에 제주의 문화원형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소중한 선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의 선이다. 제주 자연자원은 점, 선, 면으로 표현한다. 오름과 오름을 연결해주는 것이 선이고, 공간을 구분해주는 것이 선이다. 제주의 자연은 선이 끊기거나 너무 굵거나 가늘어도 안 된다. 신들이 만들어낸 선이 바로 제주다움이기 때문이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선을 지키는 것이 곧 제주다움이다.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선이었다. 한라산, 오름, 초가, 해안과 같은 선은 그야말로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이며, 직선보다 곡선이 주는 경이로움이야말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드론을 통해 본 하늘 아래의 제주의 선은 가히 환상적이다. 하지만 제주다움을 대표하는 선들이 심상 치 않다. 한라산 자락에 빨대처럼 내리꽂는 기둥들, 올레길과 하천을 점령해버린 시멘트, 오름과 꽃자왈을 파헤치는 탐방로, 사람보다는 자동차의 속도를 우선시하는 도로망, 그리고 과소비와 이기심을 부추기고 생명을 배려하지 않는 악한 행동 등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 또 다시 좌절해야 할까. 역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수십 년 동안 원치 않는 붉은 섬에서 잃어버린 세월을 경험한 제주사람들이기에, 이제는 보다 담대하게 제주다움을 지켜야한다. 잘못된 과거사로 인해 소모적 논쟁보다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적인 선을 물려주어야 한다. 좌우를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 함께 하는 지켜가는 공존과 공생의 선으로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선은 누구에나 놓여 있고 그어져 있다. 출발선은 착한 운동선수들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기울이지 않는 공평한 선이어야 결과도 미래도 공정할 것이다. 그러한 공정한 삶이 점을 따라 선으로 이어져 갈 때, 악함이 소멸하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사람다움은 제주다움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 방향도 서울이 아니라 5대양 6대륙이어야 한다. 제주다움은 제주 사람만이 아니라, 세계인 모두가 공유하는 새로운 위드유 운동으로 번져가야 한다.

3300만 번째 주인공, 바로 당신입니다

김완병학예연구사(제주의 소리, 4.17.)

맏힌 한과 아픈 기억으로 가슴 먹먹한 4.3 70주년을 기리고 추모하는 2018년 제주의 봄은 더욱 큰 의미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제주도민은 지난 4월 3일,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자리에서 4.3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추모사 마무리 인사를 들으면서 화해와 상생, 인권과 평화 수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읽고 예감하며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4.3유족과 도민들에게 전에 없이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바야흐로 제주 섬에 봄이 절정이다. 왕벚꽃축제로 시작한 봄의 향연은 예기치 않은 4월 한파, 꽃샘추위를 겪기도 했으나 유채꽃축제, 가파도 청보리축제, 청정 고사리축제 등이 이어 열리면서 무르익고 있다. 한라산 진달래와 철쭉은 4월을 넘어 5월, 6월까지 고운 빛깔과 자태를 뽐내며 탐방객을 반긴다. 천혜의 제주 자연환경과 함께 제주 선인들이 빚어 온 고유의 전통문화 유산은 이를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 빛을 발하기 마련이다.

올해로 개관 34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지난 1973년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신산공원 일대를 개발할 때 삼성혈과 함께 역사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되면서 탄생한 문화관광시설이다. 소프트웨어는 1974년에 이뤄진 제주도 문화유적 및 민속 종합조사 시행 후 나온 보고서이다. 1978년 9월 30일 박물관 설계 승인, 12월 18일 착공, 1980년 11월 28일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치조례 제정 공포, 1984년 5월 24일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으로는 3번째로 역사적인 개관을 보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의 원형질을 보고 느끼려면 제주속의 작은 제주인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동안 도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다. 코흘리개 어린이부터 100세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연령대 구분 없는 관람객층은 우리 박물관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셈이다.

이제 곧 박물관 누적 방문객 수가 우리나라 공립박물관 처음으로 3300만 명을 기록하게 되며, 5월 초순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예정으로 그 주인공이 어떤 분일지 자못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우리 모두 ‘제주다움의 가치를 키우는 박물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쇠물닭도 남과 북의 통일을 원한다

김완병학예연구사(제주매일, 5.2.)

“뜸부기와 새인데 남·북서 이름 달라 북한 람사르 회원국 승인에 기대 커”

지난 달 중순, 아침 출근길에 제주여고 인근의 구산마을에 사는 한 지인으로부터 급한 소식을 전달받았다. 한 번도 본 적인 없는 희귀한 새가 집 앞에 죽은 채로 있다는 것이다.

현장으로 달려가서 보니 ‘쇠물닭’이었다. 부리에서 혈액이 흘러나온 것으로 보아 도로변에서 로드킬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새는 주로 마을언뚝이나 철새도래지 등의 습지에서 생활하는데, 번식기를 맞아 이동 중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40년 전인 1978년 5월 중앙일간지에 ‘쇠물닭 한 마리가 날개가 부러진 채 제주시 주택가에서 습득되었다’는 보도가 났었다. 당시만 해도 이 새는 우리나라에 도래하

는 여름철새였지만, 번식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희귀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새로 제주도를 포함한 일부 남부 지방에서 텃새화 되었다. 제주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도내 철새도래지와 갈대밭이 무성한 마을 연못에서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습지서 드물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쇠물닭의 개체수가 늘어가는 반면 제주의 습지 면적은 줄어들면서, 쇠물닭의 생존에 비상에 걸렸다. 해안조간대의 갈대 습지를 비롯하여 마을 습지가 매립되고, 새들의 생태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바람에 쇠물닭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는 생태계의 콩팥이라 할 수 있는 습지를 마을마다 갖고 있다. 예전에는 마실 물도 농사에 필요한 물도 귀할 정도로, 마을 연못이나 저수지는 제주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마을 유산들이다. 규모는 작지만,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소중한 자원들이기에 습지의 원형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보노라면, 쇠물닭과 같은 물새들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인 듯싶기도 하다.

쇠물닭은 뜬부기과에 속하고 물닭보다 몸집이 작은 새로, 생김새가 닭과 비슷하고 물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 근데 이름이 남과 북에서 다르다. 남한의 ‘쇠물닭’과 ‘물닭’을 북한에선 ‘물닭’과 ‘큰물닭’이라 부른다.

남과 북이 갈라서면서 새들 이름에서마저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슬픔을 조금이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보다 쇠물닭이 더 희망했을까도 모른다.

오는 5월 중순에 북한이 170번째 랍사르 회원국으로 승인받을 예정이다. 두만강 하구의 라선철새보호구와 청천강 하구의 문덕철새보호구가 랍사르 습지로 지정된다.

이들 2곳은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에너지 충전지로서 중요한 지역이다. 남한은 현재 22곳이 랍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으며, 제주도는 물영아리오름 습지 등 5군데를 갖고 있다.

그동안 철새들의 생태과정과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데 있어 제주도와 북한의 습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의 랍사르 회원국으로의 진입을 발판으로, 지역 간 습지생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쇠물닭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지 40년이 지났다. 충돌사하는 안타까운 뉴스보다는 쇠물닭이 남과 북의 평화를 전달하는 구원자로 등판하는 소식이 더 많았으면 좋

졌다.

이제 한반도에서는 판문점 습지의 도보다리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발 빠르게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실행계획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종전 선언·동북아 철도 여행·이산가족 상봉·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에 버금갈 정도로, 생태연구 교류 사업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자치단체별로 파격적인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안할 것이며, 백두산과 한라산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제주도로써도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북한의 람사르 습지가 한반도의 평화 디딤돌은 물론 남과 북을 오가는 쇠물닭을 하나 된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게 되듯 우리 한민족의 하나 됨에 기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새의 눈으로 본 제주 사연 궁금했죠

김완병학예연구사(제민일보, 6.29.)

새들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먹이와 천적을 살피야 해 시야가 넓다. 자외선을 감지해 다채로운 색을 볼 수 있고 물체에 볼록렌즈를 댄 것처럼 확대해서 보기도 한다. 천지(天地)를 넘나들며 살다 보니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많은 것을 본다. 새 박사로 불리는 김완병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50)는 30여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의

옆에서 제주의 사연을 함께 읽었다. 김 연구사가 새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건 대학생 때였다. 생물교육학을 전공한 그는 현장답사를 통해 새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제주를 찾는 새의 일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제주 곳곳을 누비며 새를 만났다. 밤, 낮 할 것 없이 연구에 매달리면서 새에게 제주는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고민했다. 김 연구사는 수많은 새를 만나면서 희귀종을 발견하고 습성을 알아가는 학문적 성과를 얻는 데 보람을 느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분별한 개발로 새에게 닥친 위험이 곧 제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제주의 생태환경은 제 기능을 잃고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되거나 사라졌다. 꽃자왈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과 도로가 들어섰고 습지나 바다는 매립돼 생물이 살 수 없

게 됐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었다. 제주 생태계가 가진 정체성과 고마움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제적 논리만 고집했다. 김 연구사는 사람이 자연에 의지하듯 자연도 사람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제주시 조천읍 선흘 꽃자왈에서 공존의 의미를 일깨운 물숲새 축제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물과 숲이 건강하면 새는 떠나지 않는다. 사람도 그렇다. 숲을 이룰 수 없는 곳에는 새소리는 물론 사람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다.

김 연구사는 최근 새의 눈으로 본 제주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그가 집필한 새들의 천국, 제주도는 저마다의 이유로 제주를 찾은 새 100여종의 이야기를 담았다. 책은 사람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새들과 자연에 어떤 해를 주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정리했다. 책의 마지막 장에 그는 제주도는 새들의 낙원이어야 한다고 각인했다. 김 연구사는 사람도 새와 같은 생물이기에 함께 사는 법을 고민한다면 제주는 모두에게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새들은 두 개의 날개가 평형을 이룰 때 날 수 있다며 자연과 인간이 새의 날개처럼 균형을 이루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불어도 터지지 않는 제주풍선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7.5.)

태풍이 불면 군함조와 같은 새들이 바람 따라 제주까지 날아온다. 예전에 군함조 큰 군함조도 그런 적이 있다. 군함조는 하루 종일 하늘을 유유히 날다가 먹잇감이 나타났을 때는 빠른 속도로 급강하한다. 특히 수면 위로 날아오르는 날치를 낚아채는 것은 가히 일품이다. 이 새의 수컷은 특이한 주머니를 갖고 있다. 비번식기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번식기에 접어들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하여 턱밑의 빨간 주머니를 풍선처럼 부풀려 구애행동을 펼친다. 수컷들의 부풀림 정도에 따라 암컷들의 선호도가 달라진다.

어릴 적 풍선을 불어본 적이 있지요. 풍선을 선물로 받으면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다. 받자마자 바로 입에 대고 불기 시작한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풍선을 보면서

처음과는 달리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어느 정도가 가장 좋은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입구를 매듭질 정도면 좋은 거다. 친구들이랑 불 때는 사정이 다르다. 원치 않은 경쟁심이 생긴다. 새가슴이라 놀림을 받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빵 하고 터질 때까지 불어보기도 했을 것이다. 일부러 아이의 답력을 키워주려고 부추기도 한다.

예전에 동네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맨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잔칫집 대문이나 신랑 방에 풍선을 달아놓는 일이다. 결혼 당사자나 부모에게는 풍선처럼 날아갈 듯 기분이 절로 든다. 또한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준비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동네의 큰 행사였다. 이 때 또 하나의 풍선이 생긴다. 바로 돼지 오줌보이다. 축구공이 귀한 시절, 돼지를 추렴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냄새나는 오줌보에 보리낭깽이로 공기를 불어 넣으면 뽕뽕한 축구공이 된다. 간혹 놀이공원이나 돌잔치 행사에서 보는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노라면, 저절로 가난한 시절의 돼지 오줌보가 떠오른다.

제주도는 어떤 풍선일까. 태초에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섬이라 붉은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검은 풍선이었다. 자연사적 흐름에 따라, 섬 전체가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참 예술적이다. 봄철의 동백꽃 풍선과 왕벚꽃 풍선, 초록의 오름 풍선, 단풍이 한참 물들어갈 때 영실의 빨간 풍선, 감굴이 누렇게 익어갈 무렵의 노란 풍선, 하얀 눈이 내릴 때에 소복이 튀어 오른 돌담 풍선들. 특히 아침여명이나 저녁노을에 보는 추자도와 가파도의 빨간 지붕 풍선도 매력적이며 황홀하다. 밤하늘에서 본 제주 바다의 별풍선들도 참 예쁘다. 그야말로 제주도는 신이 내린 풍선이다.

근데 풍선 속에 공기가 심상치 않다. 미세먼지와 같은 나쁜 공기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마음을 노하게 하는 경쟁, 갈등, 분열, 반목과 같은 공평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심기들로 채워지는 듯 싶다. 제주 사람들의 술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스며있는 꽃자왈과 오름들의 몸부림을 모른 채 해야 할까. 해안조간대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온통 악취로 고통스럽다. 제주섬은 천연공기와 착한 심성으로 딱 차야 한다. 예쁜 풍선도 불었다가 뺏다가 반복하면 쉽게 터져버린다. 군함조의 주머니처럼 꼭 필요할 때 부풀 때만이 그 생명이 오래간다. 자본이나 외지인에 의해 커져가는 풍선을 두려워하기 전에,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제주 사람들의 지혜로운 풍선이 필요하다. 돼지 오줌보나 고무풍선처럼 버림받지 않아야 한다. 아무나 불어도 아무리 불어도 터지지도 않고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풍선이 제주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저기 크고 작은 구멍들을 내기만 하고 막지도 채우지도 못하면, 민선 7기의 제주 풍선은 아무리세게 불어도 부풀지 않을 것이다.

제주의 자연순환적 전통과학, 도통문화

김완병학예연구사(제주매일, 7.11.)

장마와 태풍 뿌라빠룬이 겹치면서 엄청난 비를 뿌렸다. 영포폭포의 위용이 드러났고, 도내 하천들은 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강으로 변해버렸다.

몇 군데를 제외하고 제주의 하천은 대부분 평상시 물이 흐르거나 고이지 않는 건천이다. 하천이 범람할 정도로 폭우가 내리더라도, 금방 바다로 흘러가 버린다. 한라산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이동경로가 짧고, 경사도가 육지부의 강처럼 완만하지 않고 급경사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제주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부 하천 유역이나 용천수가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했다.

제주 사람들에게겐 물을 귀하게 이용하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과학적 사고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허벅’·‘춤향’·용천수·저수지 등을 접할 때마다 악착같이 살았던 시기가 주마등처럼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수돗물 대신에 삼다수를 펄펄 쓰다 보니, 과소비를 배척했던 제주정신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다.

‘삼무정신’·‘조낭정신’·‘수눌음정신’·‘해민정신’ 등은 제주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제주의 정신이다. 그것은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면서 터득한 근검절약과 상부상조로 이루어낸 문화유산이다.

여기에 하나 더 있다. 지난 6월말에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학회창립 4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전국학술대회에서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이영돈 교수가 제시한 ‘도통문화’의 정신이 그것이다. 그는 ‘인간 → 돼지 → 도통 → 유기농 → 자연순환’으로 이어지는 도통문화의 가치를 강조했다. 제주의 ‘dotongsi’ 문화는 실로 대단하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와 사람의 배설물을 해결해주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양의 물을 아꼈었다.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 또한 척박한 땅에 천연 거름을 생산해내는 전진기지가 dotongsi였다. 그리고 dotongsi에서 자란 돼지는 집안의 경

조사에 음식으로 이용됐다. 현대 과학이 들어오기 전에 농사일과 일상생활로 발생 되는 폐기물을 해 결해줌과 동시에 자원 순환적 관점에서 보면 사라져서는 안 될 전통과학문화였다.

제주사회가 부유해지고 있을까. 사람의 힘에 의해 의존했던 산업이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기계화, 자동화되면서 한정된 자원이 순환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변하고 있다. 화학비료·농약·항생제·금속 등의 과다, 생활하수와 축산 폐수의 증가 등으로 제주의 바다 환경이 치명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1970년대에 비해 해조류 자연 생산이 80%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일부 자원은 자취를 감출 정도다. 돛통시를 포기하면서 얻게 산물이기도 하다. 지난 6월 26일 제주포럼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랄프 제링거 환경보전국장이 지적한 것처럼 시민참여중심의 자원순환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통문화가 제주의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되는 시대에도 도통문화를 강조하는 것이 무의미할지 모르나, 전통적 과학 방식이 제주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지난날의 기여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과학이 돛통시의 원형을 사라지는데 기여한 만큼, 돛통시에 스며있는 제주 정신을 살리는 것 또한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학은 세상을 이끄는 유효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민선 7기를 맞아 그럴듯한 과학의 힘으로 제주의 원형을 새롭게 포장하고 디자인 하려고 할 이 때에, 진짜 과학의 힘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엉뚱뚱포가 비올 때만 찾는 명소였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 품어내는 향기가 그 곳에 늘 숨어 있다. 제주사람들이 생태적으로 터득한 지혜로운 과학성을 바탕으로 도통문화의 정신이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퍼져 나아가길 기대해본다.

도민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민속자연사박물관

부용식 연구과장(서귀포신문, 7.27.)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간 생활하면서 사용했던 물건을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쉽지 않다. 가령 세월이 흘러 쓸모없는 낡은 것이라도 선뜻 달라고 하면 망설여지는 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심리이기에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올해로 개관 34주년을 맞고 있다. 다른 박물관과 달리 접근성이 용이한 원도심 중심에 있고 인근의 각종 문화시설과 어울려 도심의 문화벨트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관광객에게도 제주 전체를 알려면 민속자연사박물관만큼은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전국 국·공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3천 3백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도내·외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개관 이후 줄기차게 이어진 많은 사람들의 자료기증 덕분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4만 1,960점의 민속·자연사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이 소장자료 중 9,849점이 순수 무상 기증자료이며 기증자가 무려 1,000명이 넘는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1분이 615점을 기증해주셨다.

기증자료를 살펴보면, 아기구덕, 돛도구리 등의 민속자료와 고문서, 전적류, 서예·회화 작품, 옛날 화폐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증해 주셨다. 이러한 소중한 자료를 많은 분들이 기증해주셨기 때문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의 대표 박물관이 될 수 있었다.

기증자에게는 반드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증하신 분에게 기증증서 수여는 물론이고 기증자 명패 게시, 관람료 면제, 특별전 개막행사 초청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술연구 발간자료들을 발송해 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예우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

어느 집에 가든지 흔히 거실 중앙 벽면에 가족사진이 걸려 있다. 결혼·졸업사진, 군대 시절이나 여행갔을 때의 사진, 그리고 집안 한 귀퉁이에는 과거에 사용하다 쓸모없어진 생활도구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자료들이 집안에만 있다면 가족사가 되지만 밖으로 나와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기증이 된다면 제주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민의 마음으로 모아 진 도민의 박물관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

남북 평화시대, 동물도 기대하고 있다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10.4.)

공룡이 왜 멸종되었을까. 과학자들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제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알고 있는 만큼이나 진전된 확신이 없다. 자연사 흐름에 의해 사라지기는 했어도 같은 시대에 살았던 다른 동물들은 살아남았다. 몸이 크고 날지 못한 게 큰 이유였을까. 햇빛이 들지 않으면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을 해야 하는데, 몸집이 작거나 날 수 있는 생물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는데 있어서 공룡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했을까. 더구나 공룡은 몸집이 너무 커서 먹이자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고충이 뒤따랐을 것이다.

동물의 진화과정에서, 고래의 조상은 육상에서 바다로 그들의 터전을 이동하면서 다른 동물에 비해 큰 멸종을 피해갔다. 공룡처럼 거대한 몸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무런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방심이었다. 무서운 천적이 나타날 줄 몰랐다.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면서 수많은 자원을 자연에 의지하고 있다. 동물자원도 그렇다. 식량문제를 비롯하여 수렵, 관광, 교통, 반려, 문화자원으로 동물은 사람들의 삶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복지가 야생동물의 복지보다 우선해서는 곤란하며, 동물지배권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새는 공룡보다는 작지만 알을 낳는 공통점이 있다. 진화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뻘이다. 분명한 것은 몸집이 크게 되면 날아오르는데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타조, 에뮤, 키위와 같은 새들은 왜 날지 않을까. 우선 살아가는데 굳이 비행할 이유가 없었다. 먹잇감을 확보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천적에 대항할 힘도 충분하다. 날기보다는 걷거나 달리는 것이 편했던 것이다. 어쩌면 비행과 보행 그리고 뿔의 잠수 행동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진화했는지 퇴화했는지 우열을 따지는 것이 시간 낭비일지도 모른다. 한때 공룡이 세계를 지배했던 자연은 그렇게 커다란 시련이 있었지만, 평화로움을 유지하고 있었다. 근데 생전 보는 천적인 사람이 나타나면서

공룡의 후예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인도양 남쪽에 위치한 모리셔스 섬에살았던 도도새가 사라진 이유도 인간 때문이다. 섬에 도착한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더라면, 아니 사람들이 공정했더라면 도도새는 멸종될 이유가 없었다. 괜참을 거야 하는 사이에 친구도 사라지고, 오히려 동료들마저 사람들 편에줄을 대면서, 결국 도도새는 박물관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날에, 대전에서는 큰 일이 터졌다. 한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 한 마리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탈출한지 4시간 만에 사살되고 말았다. 원래의 서식지를 떠나 좁은 공간에서 인간을 위해 그렇게 헌신한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다. 그렇게 야생동물은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하나 둘씩 지구 상에서 사라져 가고있다.

한때 한라산에서 뛰놀던 대륙사슴, 멧돼지, 삵과 같은 야생동물도 사람들의 지나침으로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백두산에 서식하는 동물들도 매우 위험하다고 한다. 이제 사람이 노루와 호랑이가 불안에 떨지 않도록 더 많이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것이다. 있는 자와 가진 자가 힘없는 자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남북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선이 무너지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활기를 띠 것이다. 덩달아 야생동물들도 걸어서 남북으로 동서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지를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다.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일지라도, 동물들이 그래도 천사같은 사람에게 희망을 거는 까닭이기도 하다.

생물자원 비교조사 등 준비해야 - 전문가 리포트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10.10.)

남과 북을 상징하는 한라산과 백두산은 동물생태계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비교된다. 먼저 중국 장백산 일대의 동물상을 보면 조류 285종 포유류 66종, 양서류 13종, 파충류 19종, 어류 129종, 곤충류 2,957종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한 종으로는 호랑이, 반달가슴곰, 대륙사슴, 스라소니, 호사비오리, 원앙, 두루미, 황새, 검독수리 등이 분

포하고 있다. 한라산에 비해 대형 포유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한 이도백하, 송강하, 금강, 압록강, 두만강 수계에는 칠성장어, 열목어, 끄리 등과 같은 담수성 어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장백산자연박물관에는 진귀한 동물표본과 생태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장백산 일대의 동물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와 백두산은 중국 동부해안과 한반도 서해안을 거치는 철새들의 이동경로 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텃새를 제외하고는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철새들이 많다.

또한 한라산과 백두산의 조류상은 고도에 따른 산림 생태계 차이로 인하여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올라갈수록 종다양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저지대에서 고산지대까지 분포하는 종은 큰부리까마귀, 칼새, hing동새, 노랑할미새, 굴뚝새등이 우점하며, 백두산 천지 일대에서 번식하는 바위종다리는 제주도까지 날아와 월동한다.

제주도에 희귀하게 도래하는 귀제비, 흰턱제비 등은 백두산 해발 900m 이하의 인간 주변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며, 백두산에 분포하는 동고비, 북방쇠박새, 들썰, 잣까마귀 등은 한라산에 서식하지 않는 북방계열에 속하는 종이다.

동물생태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에 속하는 호랑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경지대에 극히 제한되어 분포하는 종으로, 지역에 따라 동북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 아무르호랑이, 한국호랑이, 백두산호랑이 이라 부르기도 한다. 호랑이는 세계적으로 지역에 따라 벵갈호랑이, 아모이호랑이 등 몇몇 아종으로 분류하며, 이중 동북호랑이가 체격이 가장 크고, 용맹스러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에 분포하는 호랑이는 수십 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며 IUCN에서 적색자료 위기종으로 등록될 정도로 국가차원에서 시급히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중국 길림성 훈춘임업국에서는 길림성과 흑룡강 일대의 국경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호랑이국가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탐사단이 방문한 훈춘시 방천마을에 있는 룡호식각에는 동북호생태체험관에서 호랑이 표본을 만날 수 있었으며, 전망대에 올라가면 북쪽으로는 중국호랑이공원, 동북쪽으로 러시아, 서남쪽으로 두만강 너머에 북한의 나선시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두만강 하류까지는 9.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난 2018년 5월 16일에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나선철새도래지

보호지역이 랍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향후, 장백산(백두산),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생물다양성 조사를 위해 남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간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남북 공동으로 한라산과 백두산과의 생물자원 비교조사, 랍사르습지 보호 협력 공동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12월의 두 착공식을 생각하며

김완병학예연구사(한라일보, 12.6.)

요즘 올레길을 걷다보면, 양 날개에 하얀 손수건을 달고 다니는 딱새가 눈에 많이 띈다. 이 새는 여름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다가 겨울이면 올레길을 비롯하여 꽃자왈 주변, 하천이나 농경지, 철새도래지 탐방로에서 쉽게 관찰된다. 보통 숲 가장자리에 키 작은 나뭇가지나 돌담에 앉아 있을 때가 많으며, 당근 밭담이나 마을로 들어가는 올레 돌담에 앉아있는 모습이 아주 정겹다.

육지부에서는 인가 주변이나 사찰에서도 흔하게 번식하는 장면이 보이나, 제주에서는 마을 주변이나 저지대에서 보이지 않고 한라산 1700고지인 윗세오름까지 올라가 번식한다. 제주의 상징인 큰 오색 딱다구리도 겨울에는 신산공원이나 한라수목원까지 내려온다.

저어새나 황새와 같은 희귀 철새들의 방문도 중요하지만, 딱새나 큰 오색 딱다구리와 같은 텃새들이 불안에 떨지 않기 위해 어느 한 곳이 단절되거나 함정이 생기지 않는 자연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주의 해안조간대와 꽃자왈에서 한라산까지 생물자원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술한 세월을 보내면서 제주 사람들은 딱새처럼 바다에서 백록담까지 마당을 다니듯 곳곳에 독특한 문화를 남겼다. 바다와 해안조간대에서의 물질과 해조류 채취 공동 작업, 농경지와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수놓음과 냇정신, 꽃자왈 그리고 오름과 한라산에서 행해지는 자연치유와 목축, 이 모두가 제주 자연을 지켜내면서 이루어낸 값진 문화유산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등굿과 해녀문화, 세계농업유산인 제주밭담, 세계적인 축제로 각인된 들불축제, 그리고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

된 거문오름과 한라산은 제주의 문화아이콘이자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섬 전체가 자연박물관이자 민속박물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과 민속을 하나 된 존재로 보아 온 선조들의 통찰력이 크게 작용한 덕분이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건립 당시에도 ‘제주도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속 및 자연의 보고이다’라고 명시하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제주학의 선구자 석주명도 ‘나비의 학문이라도 깊이 들어가려면 지질학, 생물을 포함하는 박물관도 바라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박물관에 상대되는 물리, 화학도 최소한도로는 알아야 자기의 나비의 학문을 자연과학의 계통에 갖다 맞출 수가 있다. 동시에 Natural History(자연역사 즉 박물관학)에 또 한번으로 상대되는 Human History(인문역사 즉 협의의 역사)에도 손이 뻗어야 인생과의 관계에까지 가져가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 비로소, 나비의 학문도 계통이 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제주의 자연과 민속 문화를 통섭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남북은 올해 9월 정상회담에서 철도착공식 연내 개최를 합의한 한, 이달 중에 공동조사를 끝내고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분단 70년 만에 남북 철도 착공식을 계기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크게 도약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평화의 상징은 물론 자연과 문화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향하는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하며, 그 중심에 민속자연사박물관도 당당해야 한다.

지난 1978년 12월 딱새를 모시고 착공식을 가진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불과 40년 만에 민속과 자연사가 딱한 처지에 놓일까 걱정이다. 착공식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날의 역사가 이어지길 염원하는 행사이다. 남북 철도착공식이 이루어지는 날에, 민속과 자연사도 하나 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해본다.

8. 2018년 박물관 관련 보도자료

일자	보도내용
180104	‘마음이 열리는 오늘입니다’행사 개최 - 새해맞이 통칙 스님과 함께하는 덕담 판화 체험 -
180118	제주다움의 발굴과 도민의 문화행복 증진 - 민속자연사박물관, 2018년 사회교육 계획 수립-
180123	‘제주향기를 그림에 담다’ - 일본 화가 니시가와유키오(西川幸夫) 담채화 교실 운영 -
180125	민속자연사박물관,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소리를 듣다 - 매월 1회 「도민과의 교감의 날」운영, 1일 명예관장 1. 25.(목) 첫 운영 -
180202	옛글을 통해 선인들의 지혜를 배우다 -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문우언(漢文寓言) 교실 운영 -
180205	느영나영훈디드렁 박물관 키워보게마씀 - 민속자연사박물관 발전 후원회(가칭 문화 수놓음회) 구성 운영, 2월~3월 회원 모집 -
180206	이번 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제주에서 왕후를 만나 보세요 - 민속자연사박물관 수놓음관 및 광장에서 설 민속한마당 개최 -
180220	제주다움의 가치, 박물관 문화를 공감하고 소통하다 - 제6기 박물관운영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
180222	‘문화가 있는 날’박물관에 모다들영놀아봅주 - 민속자연사박물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2. 28.(수) 첫 공연 -
180223	‘우도땅콩부럼깨기’집줄농기 체험행사’등 박물관 광장에서개최 - 민속자연사박물관, 정월대보름맞이 세시풍속 체험행사 -
180228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들, 박물관으로 가다 - 박물관 사회교육실 “수놓음관”제막 행사 개최 -
180302	민속자연사박물관, 2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2. 28.(수) 김석윤 건축사,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0308	옛글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한문우언 교실 성황리에 개강
180313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 민속자연사박물관 죽음학 강의 개최 -
180315	「건축에게 묻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건축의 제주다움을 찾다 -

일자	보도내용
180319	‘제주의 가치와 제주다움을 배우다’ - 민속자연사박물관,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수강생 모집 -
180322	학예사와 함께하는 역사기행교실 개최 - 우리 지역에는 어떤 역사유적지가 있을까? -
180326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 만화그리기 교실개최 - 우리 지역 역사유적지를 만화로 그려 볼까? -
180329	어린이 여러분!제주의 신화와 설화를 배워 볼까요? - 민속자연사박물관 동화구연교실 개최 -
180401	‘우영팻돔박낭’ 샌드아트퍼포먼스 운영 - 4·3 70주년 기념 -
180410	제주어 속담,캘리그래피를 만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창의야 나랑 놀자』 인기몰이
180505	전국 국립박물관 최초 누적관람객 수 3천300만명 돌파 민속자연사박물관, ‘신기록의 역사’를 쓰다
180508	술방울이 술부엉이로 변신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 『창의야 나랑 놀자』 4월 참가자 모집
180526	민속자연사박물관, 5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5. 25.(금) 이유근 아라요병원장,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0530	민속자연사박물관, 역사자료총서 2집 발간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편지 번역 자료집
180621	민속자연사박물관, 6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6. 21.(목) 부형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0724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민속자료 무상기증 줄이어 애월읍진군호님 제주옹기 24점 기증
180725	민속자연사박물관, 7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7. 25.(수) 현임중 재단법인 김유비장학회 이사,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0730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닭죽 먹으러 오세요 - 민속자연사박물관, 닭먹는 날 체험행사 개최 -
180829	민속자연사박물관, 8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8. 29.(수) 조영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제주지회 부회장,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일자	보도내용
180904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봉사회 활동 본격화 - 2018. 9. 3.(월) 발대식 및 창립총회 개최, 명칭 확정, 회장 선출 -
180910	민속자연사박물관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운영 방향 밝혀... - 정세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취임 1년을 맞아 그 동안의 변화와 운영 방향을 밝히다. -
180911	제주의 향기를 품다-제주사람들 영허명살아수다 - 목포, 부산 등 도외 순회특별전 개최 -
180927	민속자연사박물관, 9월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9. 27.(목) 장덕지 제주한라대학교 마사학부 초빙교수,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1031	민속자연사박물관, 10월 중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10. 31.(수) 박경후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1101	제주의 설화 주제로 어린이 구연대회가 열려요! - 유치부, 초등저학년부, 초등고학년부 대상, 박물관 홈페이지 접수 제주설화구연대회 -
181126	제주설화 제주어로 골아보게 마썸 - 제주설화 제주어 구연대회 지난 25일 150여명 참여해 성황리에 열려 -
181128	민속자연사박물관, 11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 - 지난 28일 송상훈 한림공원 대표 「박물관 1일 명예관장」으로 위촉 -
181128	산타가 된 돌하루방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출현하다 - 포토존 제공, 이벤트 개최 -
181203	제주의 향기를 품다-제주사람들 영허명살아수다 순회특별전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서 오늘 6일부터 46일간 특별전시회
181203	민속자연사박물관 원본사진 34년만에 박물관에 오다 1984년 개관 당시 故한석홍 선생 원본사진 65점 기증받아
181204	‘오찰방 제주설화’ 공연보러 박물관으로 옵서 -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치부·초등학생 대상 제주설화 공연기획 오찰방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 -
181204	민속자연사박물관, 2018년 하반기 관람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높아 ... - 관람객 만족도 조사 최근 5년간 10회 실시, 역대 2위 -

부록

1. 2018년 주요 추진업무 일정
2.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위원회
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현황



1. 2018년 주요 추진업무 일정

- 01. 11. 새해맞이 덕담나누기 ‘마음이 열리는 오늘입니다’ 판화체험
- 01. 25. 1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 02. 16. 2018년 설 민속 한마당
- 02. 19. 2018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 02. 28. 2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2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3. 02. 정월대보름 체험행사
- 03. 02.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3. 06. 옛글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한문우언 교실 (매주화요일 18:30~20:00)
- 03. 10. 창의야 나랑 놀자(로봇시대의 어린이의 일
- 03. 28. 3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3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4. 03. 고재만선생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퍼포먼스
- 04. 05. 건축학 강좌(흔디 걸어온 34년 민속자연사박물관 발자취)
- 04. 06.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4. 08. 동화구연교실
- 04. 08.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4. 12. 건축학 강좌(자연과의 동행 ‘제주의 초가’)
- 04. 14. 창의야 나랑 놀자(제주어 속담으로 캘리그라피 체험)
- 04. 15.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4. 18. 학예사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역사기행교실
- 04. 18.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1, 2강)
- 04. 19. 건축학 강좌(제주건축 기행
- 04. 25. 학예사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역사기행교실
- 04. 25.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1, 2강)
- 04. 25. 4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4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4. 26. 건축학 기행(제주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 05. 04.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5. 05. 어린이날 행사
- 05. 05. 전국 공립박물관 최초 관람객 3,300만명 달성 이벤트 개최
- 05. 11. 학예사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역사기행교실
- 05. 24. 「목도에서 경쇠치던 벼에게 보낸 편지」역사자료총서 2집 발간
- 05. 11. 「새들의 천국, 제주도」책자 발간
- 05. 12. 창의야 나랑 놀자(솔부엉이가 변신했어요)
- 05. 13.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5. 13. 동화구연교실
- 05. 13.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5. 16. 학예사와 함께하는 초등학교 역사기행교실
- 05. 16.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3, 4강)
- 05. 22.~05.24. 박물관 소장자료 훈증소독
- 05. 23.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3, 4강)
- 05. 25. 5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 05. 26.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5강)
- 05. 30. 5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6. 01.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6. 02.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5강)
- 06. 09. 창의야 나랑 놀자(자연생태놀이)
- 06. 10.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6. 10. 동화구연교실
- 06. 10.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6. 20.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6, 7강)
- 06. 21. 6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 06. 27.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6, 7강)
- 06. 27. 6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7. 06.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7. 08.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7. 14. 창의야 나랑 놀자(전동비행기 만들기)
- 07. 25. 7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7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8. 01. 세시풍속 닥먹는 날 체험행사
- 08. 03.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현장 스케치
- 08. 08. 『제주의 숨겨진 꽃보물』 특별전 개막식
- 08. 12.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8. 21.~8. 22. 감물염색체험
- 08. 29. 8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8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9. 05. 보물섬 제주읍성 성(성)안으로 가즈아~
- 09. 07.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09. 08. 창의야 나랑 놀자(천연염색-손수건 만들기)
- 09. 09. 동화구연교실
- 09. 16.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09. 17. 『제주의 향기를 품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동전시 개막식
- 09. 19.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8,9강)
- 09. 24. 2018년 추석 민속 한마당
- 09. 26. 9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봍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09. 27.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8,9강)
- 09. 27. 9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 10. 05. 제주의 향기를 그림에 담다-제주담채화교실
- 10. 06. 보물섬 제주읍성 성(성)안으로 가즈아~
- 10. 1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 10. 13. 창의야 나랑 놀자(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 10. 14.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10. 14. 동화구연교실
- 10. 17.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10, 11강)

- 10. 19. 홍기표와 함께하는 성(城)안으로 가즈아~
- 10. 24.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10, 11강)
- 10. 26. 홍기표와 함께하는 성(城)안으로 가즈아~
- 10. 27.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12강)
- 10. 31. 「제주감빛에 담긴 옷이야기」 패션쇼
- 10. 31. 10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10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11. 03. 보물섬 제주읍성 성(성)안으로 가즈아~
- 11. 03.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서귀포시)(12강)
- 11. 11. 동화구연교실
- 11. 11. 탐라순력도를 따라가는 문화재만화교실
- 11. 12. 『대한민국을 구한 제주인』 특별전 개막식
- 11. 14. 학예사와 함께하는 청소년 역사기행교실
- 11. 14. 박물관 아카데미 제주다움(13, 14강)
- 11. 17. 보물섬 제주읍성 성(성)안으로 가즈아~
- 11. 20.~ 11.22. 박물관 소장자료 훈증소독
- 11. 25. 제주설화 구연대회
- 11. 28. 11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11월 ‘박물관 모다들엉 놀아봅주’ 문화가 있는 날 공연
- 12. 01.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
- 12. 04. 『제주의 향기를 품다』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이동전시 개막식
- 12. 18.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
- 12. 18. 박물관 홍보용 아트리플릿 제작
- 12. 19. 12월 도민과 교감의 날 운영(1일 명예관장 위촉 등)
- 12. 19. 「신비로운 제주의 돌 이야기」 책자 발간
- 12. 20. 제주설화 인형극 공연
- 12. 22. 세시풍속 동지팔죽 체험행사
- 12. 24.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우리 박물관의 자랑거리 II 발간
- 12. 24.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상산읍편) 책자 발간

2.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 운영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인원: 10인이상 15인 이내(위원장 1인, 당연직 박물관장 1명 포함)
 - 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 자격: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장이 위촉하는 자
- 위원회 심의 사항
 -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2018년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명단

(임기: 2018. 2. 15. ~ 2020. 2. 14.)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고
1	고문서	김익수	남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신규
2	건축	강일형	남	(주)성광종합기술개발 대표	"
3	민속(음식)	김지순	여	김지순요리제과직업전문학원장	"
4	민속	강문규	남	제주도생태문화연구소장	"
5	민속(음악)	홍주희	여	제주대학교 교수	"
6	민속(복식)	장현주	여	제주대학교 교수	"
7	민속	한림화	여	소설가	"
8	동물학	오홍식	남	제주대학교 교수	"
9	전시	양은희	여	스페이스 D 큐레이터	"
10	전시기획	강술생	여	예술가	"
11	과학	권기균	남	과학관과 문화 대표	2회
12	전시기법	안혜경	여	아트스페이스갤러리 관장	신규
13	사진	서재철	남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장	"
14	대외홍보	김형훈	남	미디어제주	"
15	당연직	정세호	남	민속자연사박물관장	"

2018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 현황

- 일시: 2018. 2. 19.(월), 11. 5.(월)
- 장소: 민속자연사박물관 소회실
- 참석위원: 2. 19.(월)-13명, 11. 5.(월) -12명
- 회의결과:
 - 심의사항(2. 19): 해양생물자료 폐기의 건: 수정 가결(청거북 제외)
자연사 사진엑자자료 폐기의 건: 보류(재심의)
2018년 자료수집 계획: 원안 가결
 - 보고사항(2. 19.): 2018년 주요업무 보고, 기타 사항
 - 보고사항(11. 5.): 2018년 성과 및 2019년 사업계획 보고
 - ※ 기간: 2018. 2. 16.~2020. 2. 15.(2년)
 - ※ 역할: 자료수집계획심의, 주요업무보고, 박물관 발전방안 등
 - ※ 설치일: 2006. 12. 1.(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 2019.01.01.]

(제정) 2007-04-04 조례 제 230호

(일부개정) 2015-04-01 조례 제 1268호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1-23 조례 제 1739호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 1763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03-29 조례 제 1841호

(일부개정) 2018-10-11 조례 제 211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박물관의 위치는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2017.3.29.>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8.10.11.>

1. 1월 1일
2. 설날 및 설날 다음날
3. 추석 및 추석 다음날
4. 매주 월요일
5. 훈증 소독기간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 ②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4조(운영) ① 박물관의 관람 및 대표시간은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10.11.>

1. 관람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대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박물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④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9.]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자료를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 ③ 삭제 <2015.4.1.>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민이나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12세 이하의 사람(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3. 65세 이상의 사람(단, 내국인에 한한다.)
4. 박물관에 자료를 무상 기증하는 사람
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17. 환경부에서 발급한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인프라 충전카드 또는 전기자동차 차량등록증(전기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에는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3.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계 존·비속

[전문개정 2017.3.29.]

제7조(관람권) ①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청소년, 군경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11.23.>

1. 청소년: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군경: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순경(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3. 어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4. 단체: 10인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제8조(매표)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제9조 삭제 <2017.3.29>

제10조 삭제 <2017.3.29.>

제11조(사용허가) ① 박물관의 시청각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박물관 자체행사와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자료 및 시청각실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사용료)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박물관 사업의 대행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삭제<2015.4.1.>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7.3.29.>

제15조(복제허가) ① 전시 및 연구를 목적으로 박물관의 자료를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복제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복제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복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복제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복제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복제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를 해체하여 운반하려고 하는 경우
2. 자료를 훼손하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업목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복제허가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복제료) ① 제15조에 따라 복제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의 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복제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

제18조(준수사항) 복제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복제기간중 복제하고자 하는 자료에 대하여 파손하거나 손상하지 말 것
2. 박물관 자료임을 반드시 밝힐 것

3. 복제허가 조건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9조(복제허가의 취소 등) ①도지사는 복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제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복제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제허가를 받은 때

2.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7.3.29.>

제20조(주차장 사용) ① 주차장 사용시간은 박물관 관람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관람목적이거나 공용이 아닌 차량

2. 발화성이나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설비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제21조(주차료 및 가산금) ① 주차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4에 의한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② 삭제<2015.4.1.>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7.3.29.>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4.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차량

4의2. 전기 자동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22조(주차료 징수방법) ① 주차료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징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차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주차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

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 삭제〈2017.3.29.〉

제24조 삭제〈2018.10.11.〉

제25조(무상기증자 예우) 개인, 단체나 기관이 소장하고 있던 역사성이 있거나 고증을 거친 희귀자료를 무상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경우 그 기증자에 대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6조(박물관운영위원회) 도지사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시청각실 사용 허가 절차
2. 제15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복제허가 절차

[본조신설 2017.3.29.]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7.3.29.〉]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제27조에서 이동 〈2017.3.29.〉]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람료등징수조례 및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박물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본다.

제4조(이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이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사용허가로 본다.

제5조(복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허가는 이 조례에 의한 복제허가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에 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관광 스포츠국 (문화예술과)	2	민속자연사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개관 및 휴관 ② 관람 및 매표시간 ③ 관람료의 면제 ④ 관람권 ⑤ 관람의 금지 ⑥ 행위의 제한 ⑦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⑧ 복제허가, 복제허가의 제한, 복제료, 준수사항, 복제허가의 취소 등 ⑨ 주차장 사용, 주차료 및 가산금, 주차료 징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동조례 제4조 동조례 제6조 동조례 제7조 동조례 제9조 동조례 제10조 동조례 제11조 내지 제14조 동조례 제15조 내지 제19조 동조례 제20조 내지 제22조	민속자연사 박물관장

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1호,2017.3.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6조제1항제17호 및 제21조제3항제4호의2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10호, 2018.10.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3.29.>

관람료(제5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사용기준	관람료	
		개인	단체 (10인 이상)
어른	1인 1회	2,000	1,600
청소년·군경	〃	1,000	800

※ 리모델링, 보수공사, 전시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상설전시시설 중 일부를 관람하지 못하는 경우 도지사가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10.11.>

사용료(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수량	사용료(원)	비고
시설물사용료 (시청각실)	1회	10,000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1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초과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별표 3]

복제료 및 복제기간(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내역	복제수량	복제료	복제기간
탁본	1점(장면수)	20,000원	1일
모사(실측)	1점	20,000원	1일
모조(실측)	1점	20,000원	1일
자연사자료	1점	10,000원	1일
사진원판사용	1점	50,000원	2일

[별표 4] <개정 2017.3.29.>

주차료(제21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차종별	주차료(시간당)			비고
	소형	중형	대형	
승용자동차	1,000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주차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 · 가산 징수할 경우 30분미만은 30분으로 간주
승합자동차	2,000	3,000	4,000	
화물자동차	2,000	3,000	4,000	

비고

- 승합차 - 소형 : 15인승 이하, 중형 : 16~35인승 이하, 대형 : 36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승용자동차로 본다.
- 화물자동차 - 소형 : 1톤이하, 중형 : 1톤 초과 5톤 미만, 대형 : 5톤 이상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3.29.>

관람권

관람권 일련번호	연월일 관람권 일련번호
구 분 관람료 연월일	구 분 관람료 건물전경 등(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3.29.〉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주 소				성별	남 · 여
	성 명	인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사 용 신 청 내 용						
사용일시		사용인원		사용목적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귀하						
사 용 허 가 서						
신 청 인			허 가 내 용			
성 명	주 소	사용일시	내 용	사 용 료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20 . .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3.29.>

복제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전화번호		
① 목적						
② 기간						
③ 자료내역						
④ 자료번호	⑤ 자료명칭	⑥ 자료규격	⑦ 자료수량	⑧ 비고		
				칸이 모자라면 별첨 이용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제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귀하						
복제허가서						
신청인	성명 (기관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① 기간						
② 자료내역						
③ 자료번호	④ 자료명칭	⑤ 자료규격	⑥ 자료수량	⑦ 비고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함. 허가조건 :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6.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현황

(‘18.12월말기준)

구분		총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82	37		45	
박물관	계	62	27		35	
	국립	1	1	국립제주박물관	-	
	대학	1	1	제주대학교박물관	-	
	공립	8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 4·3 평화기념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김만덕기념관	1	서귀포감굴박물관
	사립	21	6	제주평화박물관, 파파월드, 선녀와 나무꾼, 메이즈뮤지엄, 넥슨컴퓨터박물관, 한울랜드뮤지엄	15	아프리카박물관, 신영영화박물관, 제주민속촌, 제주건강과성박물관, 보석 앤 화석박물관,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본태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로키티아일랜드,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제주커피박물관바움, 레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 토이파크뮤지엄, 피규어 뮤지엄, 제주해양동물박물관
	공립 전시관	1	1	세계유산전시관	-	
	사립 전시관	20	7	세계미니어처전시관, 제주공룡랜드전시관, 테지움사파리, 제주 아이스뮤지엄, 탐라신화공원, (주)타임파크, 이랜드뮤지엄	13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설록차전시관, 소인국테마파크 전시관, 닥종이 인형전시관, 석부자박물관, 조안 베어뮤지엄, 초콜릿박물관, 제주 옹기박물관, 제주유리박물관, 민거나 말거나, 세계조가비박물관, SOS 박물관, 세계술박물관
	식물원	9	4	방림원식물원, 생각하는정원, 한림공원, 에코랜드	5	여미지식물원, 일출랜드식물원, 제주허브동산, 휴애리, 카멜리아 힐
	수족관	1			1	제주해양과학관
미술관	계	20	10		10	
	공립	7	3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4	서귀포기당미술관, 서귀포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사립	13	7	러브랜드미술관, 돌하르방공원, 성안미술관, 제주 유리의 성, 그리스신화박물관,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옹기숨미술관	6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조각공원, 박물관은살아있다, 왈종미술관, 유민미술관

학예조사연구

1. 제주역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수집기관 간 교류협력
2. 금등리 해안조간대에서 월동하는 조류상
3. 유배인, 광해
4.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 박물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5. 추자도 지질에 대하여



제주역사자료의 보존관리 및 수집기관 간 교류협력

부용식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과장

I. 머리말

선사를 구분짓는 요소는 기록이다. 인류의 출현은 길게 500백만년전 신생대 3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나 최초의 문자로 잘 알려진 이집트의 히에로글리프 혹은 중국의 갑골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쐚기문자 등이 기원전 3,000년경 이후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인류의 생활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기록으로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기나긴 인류 역사속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며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이 없는 즉,

공허한 상태로 남아 있어 인류학자 및 고고학자들이 화석연구를 통하여 희미한 삶의 발자취만을 탐구하고 있을 뿐이다.

현대의 인간은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또 스스로가 많은 자료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러한 수많은 정보는 우리 인류의 보편타당한 세계적 질서를 알려주기도 하고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와 미래적 가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선결조건은 이 수많은 자료를 어떻게 가공처리하고, 어떻게 정리하며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과연 우리 혹은 내가 생산한 자료가 정보적 가치로서 의미를 제공할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손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지역별로, 개인별로 산재해 있는 수많은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하고, 정리

하고, 보존하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해 줄 것인가가 바로 그 자료의 가치, 생명력을 넣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7개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갖고 있다. 가히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분야에서 선진적 유전적 인자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며 유용하게 쓸 것인가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훌륭하게 생산된 기록이고 모든 분야의 정보를 집대성한 총서류의 자료라 하더라도 보존관리가 허술하여 소실되어 버린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다.

II. 제주 역사자료의 의의

1. 의 의

고문서, 사문서, 편지, 일기, 메모, 가계부, 사진, 파일, 테이프, 형상기록 등 그 형식이나 내용, 물리적인 형태에 관계없이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보유중인 모든 유형의 자료를 가리킨다. 유형을 형식이나 내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자료의 평가와 수집의 관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 않으며 자료를 생산하고 보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성격, 위상, 기능, 사회적 임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그 가치를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일 것이다.

민간인으로서 개인의 위상과 기능은 그가 종사하는 직업 및 활동의 사회적 성격, 영향력, 그리고 직업이나 활동내에서 개인의 위상, 기능이 자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민간단체, 기업이 생산하고 보유한 자료 또한 마찬가지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자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역사 연구에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다. 민간 자료 등은 공공자료를 보완한다. 공공자료가 증거할 수 없는 많은 사실을 민간자료가 담아내고 있는 것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분야의 연구자료로서만이 아니라 민간자료는 교육자료로서 여러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것

을 활용하는 사람에 따라 문학이나 예술작품의 좋은 소재가 되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훌륭한 문학이나 예술작품이 되기도 한다.

2. 보존가치

민간자료의 보존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지닌 내용, 즉 논제의 중요성, 사실성, 체계성, 원문성, 포괄성, 희귀성의 요소를 확인해야 하며 형태 및 이용상의 특성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의 가치는 그것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구의 성격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어떠한 보존기구에서 전혀 수집할 의사가 없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정 보존기구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기준에 준거하여 자료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은 균형있는 자료의 축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에서 자료의 가치가 판단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자료는 한시적 유용성이 아닌 분명한 보존가치를 지녀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을 목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이다.

기록보존학자 가운데 Brooks는 1940년 기록물에 영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기록물을 생산하는 단체나 개인이 본래 의도한 가치, 행정적 역사에 관한 기록물의 유용성, 역사적 가치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쉘렌베르그는 1956년 기록물의 가치를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그는 일차적 가치를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가치로 세분화하였는데 이것은 생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목적이 완료된 이후의 보존 목적에 해당한다. 즉 이차적 가치를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로 한정하였다. 증거적 가치란 조직 및 그 기능에 대한 문헌적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것이 아닌 역사적 의미의 증거를 뜻한다. 증거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은 조직 내 각 부서의 위상, 각 부서의 기능,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기록물은 사회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정보적 가치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인물, 일,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서 정보는 광범위한 기록물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데이터, 사실 등을 말한다. 중요성은 정보의 유일성, 집중성, 이용자의 요구정도 등을 기초로 판단된다.

인간은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 실무적, 상징적 동기에서 정보를 기록한다. 이러한 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며 여러 경로를 거쳐 유지되고 갖가지 장소에서 보존된다. 자료의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생산동기와 유지경위, 보존목적에 맞게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파생될 수 있어 자료가 갖는 보존적 가치는 무한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나 민간 분야의 자료는 어느 한 개인 혹은 사회 집단의 주관적 성격을 상징할 수 있기에 조직을 고찰하기에 중요한 보존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Ⅲ. 수집의 주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우선시되는 것이 현재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점검과 자료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하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감귤박물관 및 국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등의 박물관계(係), 4·3사업소, 제주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 등의 기념관계(係),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우당도서관 등의 도서관계(係) 및 제주문화원 등의 문화원계(係)와 사설 박물관과 개인 향토사학자 등이다.

이것과는 별도로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및 각종 국가 기념관 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분야 자료의 수집주체 기관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Ⅳ. 수집의 대상

자료의 수집주체는 수집의 범위선정과 주제 선별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수

집의 범위와 주제 선별작업을 선정하는 것은 곧 수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규정은 수집활동의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와 관련된 주요 자료의 수집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역사 연혁에 관한 자료로서 지명 및 자자체 경계 유래, 행정조직 연혁, 도시계획 자료 ② 주요 인사, 보통사람들의 인물 소장 자료로 초대부터 최근까지 역대 단체장의 개인사가 등에 보유하고 있는 앨범, 훈포장, 서신, 일기, 업무수첩 및 행사자료,

주요사업에 참여한 퇴직공무원, 민간참여자 등의 개인사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보관실 사진담당 퇴직 공무원 소장 자료, 지방에서 존경받는 유명인사 등의 육필원고 등 개인자료, 근대이후 제주 지방관(도사, 도지사) 관련 자료, 집안 문중기록, 4·3, 6·25 등 주요사건, 행사자료 ③ 도내 역대선거, 각종 축제에 관한 자료로 선거 포스터, 홍보물 및 시청각, 마을축제에서 생산된 사진, 동영상, 박물, 일반자료 ④ 역사적, 문화적 지역 전통행사와 관련한 자료로 제주 영등굿, 마을별 본향당, 구비 녹취 기록물, 제주지역의 관혼상제에 관한 자료, 제주 신앙과 관련한 마을 본향당 자료 ⑤ 근대화 산업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인 4H, 새마을운동, 마을이장 자료, 농민일기, 지역의 공장운영 자료, 마을 자생단체(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등)의 활동기록, 농협, 의료기관의 주민봉사 기록 ⑥ 전근대 기록물인 토지매매문서, 절목, 등장, 호적중초 등의 자료, 제주 삼읍(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지방관 관련 자료, 교육자료 등이다.

여기서 고문서는 실제로 조선후기의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후기의 향촌사회의 자료가 보존되거나 전승되는 과정은 대개 작성한 주체(개인이나 집단·조직·기구)에 의해 보존된 것과 이 자료가 주로 활용되던 관련기구와 이들 자료와 관련하여 참여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개인)에 의해 보존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문서의 종류는 지방에 소재한 향교, 서원, 사우, 재실, 루정, 동각, 정려, 사찰, 종가나 개인이 소장한 자료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문서는 도내 각종 수집기관들 중 특히 박물관계의 수집기관들이 주로 수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근·현대 자료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시기상 최근의 것이
라 어떠한 수집기관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어서 최근 수집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근·현대 자료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문서, 카드, 도면,
대장 및 특수 자료와 민간분야에서 생산된 문집류, 개인소장 공공기록물, 개인기록
물 및 각 종 사설단체의 자료라 볼 수 있다.

V 제주지역 역사자료

1. 유형

민간자료는 공공분야와 달리 수집 관리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자료에
대한 관련 법령을 본다면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
사편찬위원회,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군사편찬연구소, “도
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규장각규정”
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규장각, “독립기념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독립기념관, “한
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각종 박물관, 지역 향토 사료관 등이 있다

민간자료중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는 우리 지역의 생활, 문화, 사회경제, 도
시건축, 시설 등의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그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료들
이다. 특히 공공기관 생산 자료중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거나 순수하게 민간분야에
서 생산 보관되고 있는 자료 등이 그 대상이 되고 주된 유형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2. 민간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향

앞서 민간자료의 성격과 수집내용, 유형을 살펴 보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우선 수집대상 자료의 선별이다. 모든 자료는 반드시 수명을
갖게 마련이다. 자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인에 의
해 노화가 진행된다. 특히 1990년대 이전에 생산된 종이 자료 대부분 산성조건에서

제조되어 공기중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누렇게 변질되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산 가수분해가 진행되어 종이의 강도 저하 및 각질화, 부스러지는 현상이 발생,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국내의 경우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생산된 종이 자료의 절반정도가 산성지로 인한 산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30년대 이후에 생산된 종이는 80% 이상이 산성화 환경에서 제조된 것이기에 종이 자료의 훼손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물며 민간분야의 보존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그 자료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보존문제에 있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이러한 역사는 미래의 삶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생산 당시의 자료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간 분야의 자료에 대한 관리는 정말 시급하다. 민간분야에 대한 자료관리의 강제 규정은 없고 단지 수집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앞으로 관련 법령의 재정비시 민간 분야의 자료관리에 대한 강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자료를 아끼고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료의 활용에 있다. 아무리 애쓰게 가꾸고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그 자료가 갖고 있는 가치의 활용이 없다면 그 자료는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민간자료는 제주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전산화는 제주지역 향촌사회의 실상을 생생하게 복원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즉 제주지역의 역사 및 문화적 특성이 육지지역과 다른 요소가 무엇이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및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다.

VI. 수집기관 간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제안

1.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집기관은 독립적인 기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료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특색을 살린 자료관리를 위해서 향토자료의 수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수집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수집기관간의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2. 타 기관 수집기관과의 협력방안

수집기관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의 범위와 주제 선정이 요구된다. 수집의 범위와 주제를 선정하는 것은 곧 수집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규정은 수집활동의 지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 중앙수집기관과의 협력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자료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 누구나 (www.emuseum.go.kr)를 통해서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그 수집업무를 담당한 지자체 수집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기관의 현실상(재정, 인력면에서) 실행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수집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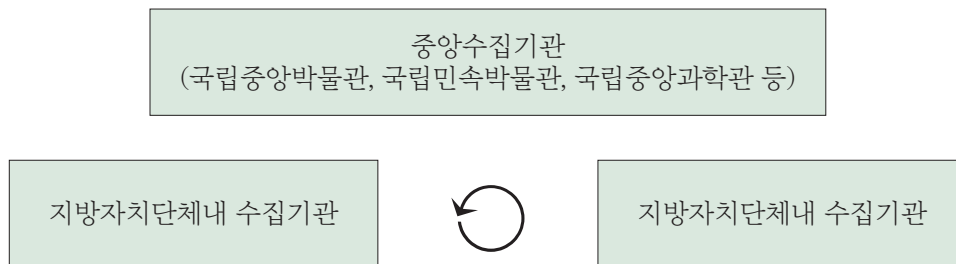
현행 중앙수집기관이 전반적으로 지방의 자료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중앙부처가 관여한다면, 지방자치와는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기념관 및 기록관 등 자체적으로 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할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미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의 수집과 관련한 모든 기관이 최소한의 수집범위와 주제에 대해서 만큼은 서로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각 기관의 공유를 통해 수집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에 따른 교류·협력체- 중앙 및 지자체〉



나. 지방수집기관 간의 교류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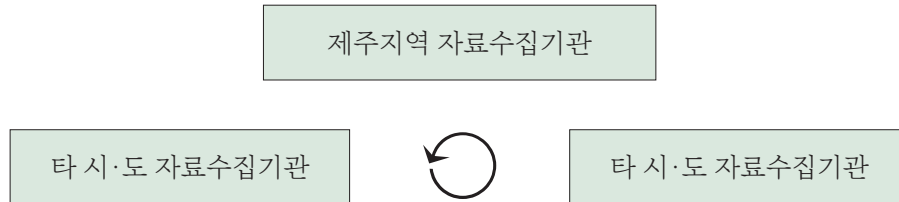
과거로부터 어느 한 지역은 독자적으로 생성되어 발전할 수가 없다. 그 주변의 문화를 수용하거나 전파하기도 하고 인력의 이동 등으로 그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이 확립 발전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제주인들은 한반도의 한 행정단위로 예속되면서부터 많은 착취와 억압에 시달려야 했고 과중한 삶을 짊어지고 살아 왔다.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지속은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의식의 성장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의식의 성장은 제주도라는 섬내부에서만 갇혀서 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외적 활동을 수반하였다. 제주 해녀의 육지부에서의 활동, 근·현대의 가장 아픈 역사였던 4·3과 6·25 등은 제주역사의 하나의 중심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주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어디에 있을까? 제주 혹은 육지부, 아니면 해외 등에 어떤식으로든 남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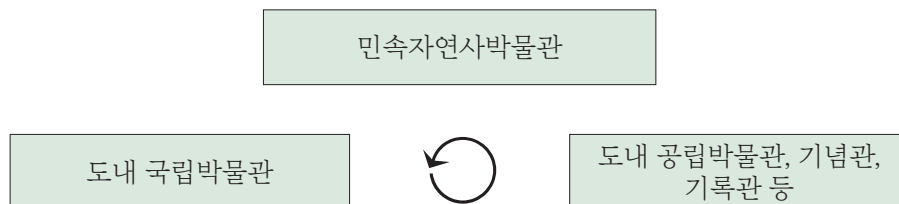
인접한 지자체간에 제주와 관련한(또는 해당지역과 관련한 자료) 자료수집협의체를 구성해 본다면 지금 보다 훨씬 나은 자료들이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웃에는 분명 내가 필요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 이웃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 보면 서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서로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이웃하고 있는 지자체와 자료수집과 관련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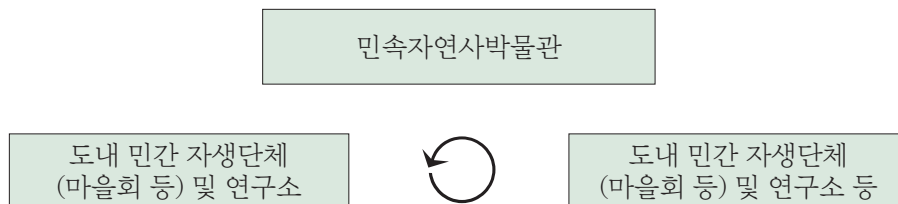
1) <자료수집에 따른 교류·협력체- 지자체 간>



2) <자료수집에 따른 교류·협력체- 제주지역 수집기관 간>



3) <자료수집에 따른 교류·협력체- 민속자연사박물관/지역주민 간>



3. 맺음말

자료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도 잘 관리해 나가며 대외적으로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

또한, 자료수집기관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은 지역복합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그 지역의 공공재산으로, 역사적 자산으로 형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타 기관 및 해당 지역내 자료 전문수집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료수집과 활용방안을 같이 공유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민간분야의 자료 수집은 어쨌거나 민초들이 살고 있는 생생한 현장속에 있다. 그 지역의 행정단위는 읍면동이다. 그렇다면 수집기관은 우리 도 수집업무의 최일선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도내 각종 자료 수집기관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집 정책과 주제를 공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제주도 홈페이지(www.jeu.go.kr)
2. 한국전적종합도서목록 제9집, 제주도내 전적류 조사 현황, 1996 문화재관리국 탐문연)
3. 제주도사연구 제7집(1998. 제주도사연구회)
4. 고문서의 조사 수집 정리 및 기초 연구사업
 -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6년 국학진흥사업 최종보고서, 제주대 탐문연
5. 인구와 호적(제주대, 김동전)

금동리 해안조간대에서 월동하는 조류상

김완병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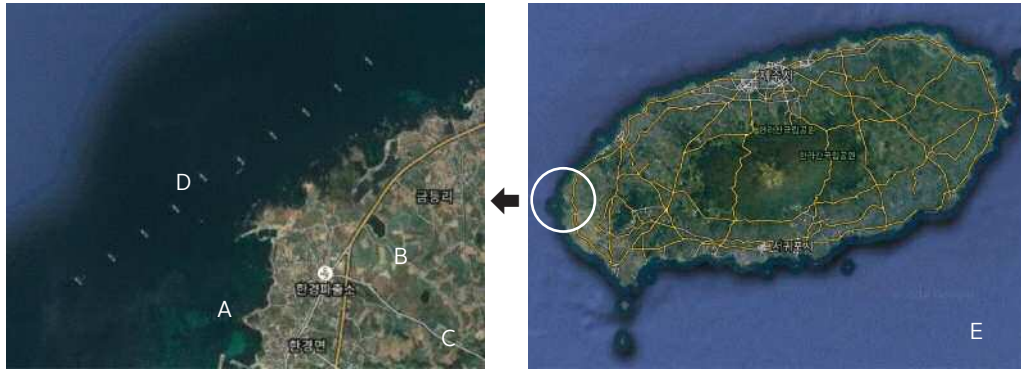
제주도는 지리학적으로 철새의 이동경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번식지, 월동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제주의 해안조간대는 물새들의 먹이공급지와 휴식처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매년 갈매기류, 오리류, 가마우지류, 맹금류 등의 겨울철새들이 해안조간대의 모래갯벌, 바다위, 용암대지에서 월동하고 있다.

금동리 해안조간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금동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조간대 남쪽과 서쪽에는 각각 금동리와 두모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조간대와 금동리 마을 사이에 일주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조간대는 모래갯벌과 파호이호이용암의 넓은 용암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전에는 소금밭과 원담으로 이용하던 곳이었다. 주변에 위치한 금동리 육상 양식장은 주로 광어 양식을 위해 199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해상 풍력은 2018년 9월 금동리~두모리 공유수면에 3MW 발전기 10기가 준공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해안조간대 남서쪽에는 새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두모저류지, 두모저수지, 용수저수지와 소규모 습지 그리고 동서로 차귀도와 비양도가 위치하고 있다.

금동리 해안조간대 일대에서의 조류 조사는 제주도 연안습지에 도래하는 조류상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왔다(강 등, 1993; 김 등, 1999; 김, 1997; 양과 박, 1988; 박 등, 1999; 강 등 2009; 김 등, 2011; 김, 2018).

본 조사는 금동리 해안조간대에 도래하는 겨울철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향후, 해안조간대의 조류 다양성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지역의 위치와 주요 조사 지점(출처: google지도)
(A: 금동리 해안조간대, B: 두모저류지, C: 두모저수지, D: 해상풍력단지, E: 제주도)

2.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가. 조사방법

현지조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별로 1~4회에 걸쳐 총 12회 실시하였다(표 1).

표 1. 조사일정

월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조사일	10. 20	11. 18	12. 21 12. 23 12. 31	1. 2 1. 8 1. 12 1. 17	2. 5 2. 9 2. 21

나. 조사방법

조류 조사는 금동리 해안조간대 일대를 비롯하여 주변의 두모저류지, 두모저수지



금등리 일대의 항공사진



금등리 해안조간대(모래갯벌)



금등리 해안조간대(철새들의 월동 모습)



두모저수지



두모저류지



용수저수지



용수 소규모 습지

조사지역의 전경사진

와 같은 습지도 포함하였으며, 해안가와 습지 주변의 농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좌우에서 관찰된 조류를 기록하는 선조사(Line Transect Method)방법과 한 지점에서 관찰된 종수를 기록하는 정점조사(Point Census Method) 방법으로 조사했다. 종의 확인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쌍안경 및 망원경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조류 탐조가에 의해 촬영된 사진과 영상 자료도 참고하였다. 조류 목록 순서는 한국조류목록(한국조류학회, 2009)를 따랐다.

다. 분석방법

개체군의 군집 분석에 있어서 우점도(Simpson, 1949)와 종다양도(Shannon and Weaver, 1949)는 출현하는 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월별 개체수는 조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 조사시 관찰된 최대 개체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우점도(Dominance, *Dom.*)

$$Dom. = (ni/N) \times 100(\%)$$

(*ni*: 각 종의 개체수, *N*: 관찰된 총개체수)

2) 종다양도(Species Diversity, *H'*)

$$H' = -\sum (ni/N) \times \ln(ni/N)$$

3. 조사결과 및 고찰

3-1. 조류상

금동리 해안조간대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는 46종 1,049개체가 관찰되었으며, 조사시기별로 살펴보면 10월 19종 129개체, 11월 24종 304개체, 12월 31종 606개체, 1월 37종 625개체, 2월 32종 729개체가 각각 관찰되었다(표 2).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생

활형 군집을 보면, 텃새는 왜가리, 흑로, 가마우지, 매, 물수리, 멧비둘기, 물총새, 까치, 큰부리까마귀, 직박구리, 찌르레기, 딱새, 바다직박구리, 참새, 노랑할미새, 알락할미새, 방울새 등 17종으로 대부분 해안가, 인가, 농경지, 숲에서 서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중 왜가리와 물수리는 최근에 제주도에서 번식이 확인되었으며, 가마우지, 논병아리, 찌르레기는 텃새 개체군과 월동 개체군이 혼성하는 경향이 있다.

겨울철새는 큰고니, 알락오리,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쇠오리, 흰죽지, 적갈색흰죽지, 땡기흰죽지, 비오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꿩이갈매기, 흰갈매기, 재갈매기, 큰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백할미새 등 19종이었다. 흰죽지, 적갈색흰죽지, 땡기흰죽지 등 3종은 조간대보다는 인근의 두모저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그네새는 새호리기,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 갯도요, 민물도요 등 5종이었으며, 갯도요, 중대백로, 쇠백로 등은 일 년 내내 제주도에서 확인되지만, 아직까지 번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금등리 해안조간대에서 관찰된 조류 목록(조사기간: 2018. 10 ~ 2019. 2)

NO.	학명	국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최대 개체수	생활형 ¹⁾
1	<i>Cygnus cygnus</i>	큰고니	2	2	2	2		2	WV
2	<i>Anser cygnoides</i>	개리					1	1	
3	<i>Anas strepera</i>	알락오리			28	30	14	30	WV
4	<i>Anas penelope</i>	홍머리오리			4	8	12	12	WV
5	<i>Anas platyrhynchos</i>	청둥오리			86	39	20	86	WV
6	<i>Anas poecilorhyncha</i>	흰뺨검둥오리	28	34	65	68	72	72	WV
7	<i>Anas clypeata</i>	넓적부리		28	46	60	35	60	WV
8	<i>Anas acuta</i>	고방오리		20	30	24	38	38	WV
9	<i>Anas crecca</i>	쇠오리				2		2	WV
10	<i>Aythya ferina</i>	흰죽지				100	98	100	WV
11	<i>Aythya nyroca</i>	적갈색흰죽지				1		1	WV
12	<i>Aythya fuligula</i>	땡기흰죽지				10	14	14	WV
13	<i>Mergus merganser</i>	비오리				1		1	WV
14	<i>Tachybaptus ruficollis</i>	논병아리			4	2	2	8	R, WV
15	<i>Platalea leucorodia</i>	노랑부리저어새	1	1	1	1	1	1	WV
16	<i>Platalea minor</i>	저어새	1	1	1	1	1	1	WV
17	<i>Ardea cinerea</i>	왜가리	36	30	18	33	14	36	R, WV

NO.	학명	국명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최대 개체수	생활형
18	<i>Ardea alba modesta</i>	중대백로	18	6	14	8	6	18	SW, WV
19	<i>Egretta garzetta</i>	쇠백로		1	2	2	3	3	SW, WV
20	<i>Egretta sacra</i>	흑로		1	1	2	1	2	R
21	<i>Phalacrocorax capillatus</i>	가마우지	6	40	47	42	29	47	R, WV
22	<i>Falco tinnunculus</i>	황조롱이		1	1	1		1	WV
23	<i>Falco peregrinus</i>	매	1	2	2	2	2	2	R
24	<i>Pandion haliaetus</i>	물수리	2	2	2	2	2	2	R, WV
25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알락꼬리마도요				2		2	PM
26	<i>Tringa nebularia</i>	청다리도요		1				1	PM
27	<i>Actitis hypoleucos</i>	갸파도요	2	1	2	2	2	2	PM
28	<i>Calidris alpina</i>	민물도요			16			16	PM
29	<i>Larus crassirostris</i>	괭이갈매기		40	120	85	260	260	WV
30	<i>Larus hyperboreus</i>	흰갈매기			1	1		1	WV
31	<i>Larus argentatus</i>	재갈매기		2	80	30	42	80	WV
32	<i>Larus schistisagus</i>	큰재갈매기			1	3	2	3	WV
33	<i>Falco subbuteo</i>	줄무늬노방발채 갈매기	1					1	PM
34	<i>Streptopelia orietalis</i>	멧비둘기				2	2	2	R
35	<i>Alcedo atthis</i>	물총새	1					1	R
36	<i>Pica pica</i>	까치	4	2	2	6	4	6	R
37	<i>Corvus macrorhynchos</i>	큰부리까마귀				2		1	R
38	<i>Microscelis amaurotis</i>	직박구리	2	3	2	2	4	4	R
39	<i>Sturnus cineraceus</i>	찌르레기		70				70	R, WV
40	<i>Phoenicurus aureus</i>	딱새				1		1	R
41	<i>Monticola solitarius</i> <i>Philippensis</i>	바다지박구리	2	4	4	2	2	2	R
42	<i>Passer montanus</i>	참새	12	10	8	38	34	38	R
43	<i>Motacilla cinerea</i>	노랑할미새		2			2	2	R
44-1	<i>Motacilla alba leucopsis</i>	알락할미새	2		2		2	2	R
44-2	<i>Motacilla alba lugens</i>	백할미새	2		2		2	2	WV
45	<i>Carduelis sinica</i>	방울새	6		12	8	6	12	R
	종수	46종 (10아종 포함)	19	24	31	37	32	46	
	개체수		129	304	606	625	729	1,049	

1) 생활형: R(Resident, 텃새), WV(Winter visitor, 겨울철새), PM(Passage migrant, 나그네새)

우점종은 갯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 260개체(24.78%), 흰죽지(*Aythya ferina*) 100개체(9.53%), 청둥오리(*Anas platyrhynchos*) 86개체(8.48%), 재갈매기(*Larus argentatus*) 80개체(7.63%), 흰뺨검둥오리(*Anas poecilorhyncha*) 72개체(6.86%)순으로 관찰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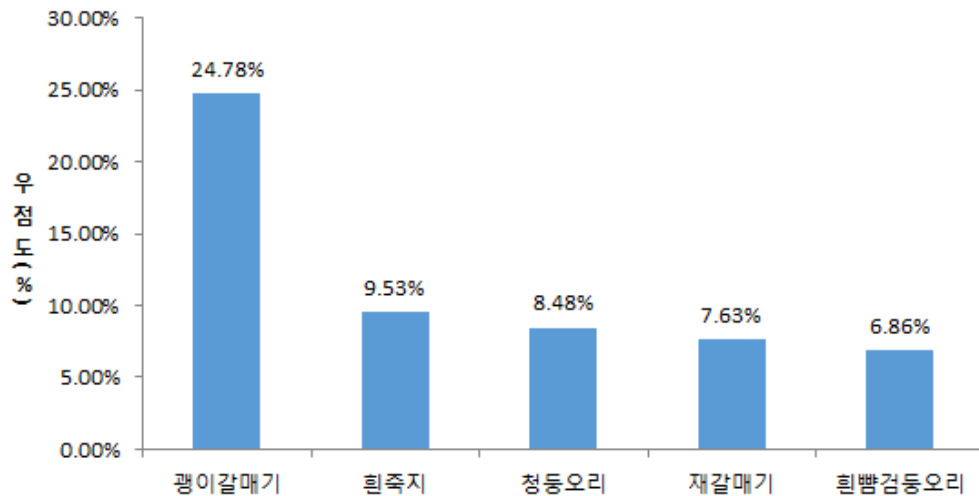


그림 1. 금동리 해안조간대에 분포하는 조류의 군집 비교

3-2. 법정보호종 및 특이종 출현현황

금동리 해안조간대에서 관찰된 천연기념물 보호종은 큰고니,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황조롱이, 매 등 6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큰고니(Ⅱ급), 개리(Ⅱ급), 노랑부리저어새(Ⅱ급), 저어새(Ⅰ급), 매(Ⅰ급), 물수리(Ⅱ급), 알락꼬리마도요(Ⅱ급) 등 7종이 확인되었다(표 3).

큰고니는 두 마리 모두 유조로, 금동리 해안조간대와 용수저수지를 오가며, 주로 조간대에서는 주로 휴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도에서는 성산포, 광령저수지, 종달리 습지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는 조간대 내에서 주로 치어를 낚아채는 경향이 있다. 저어새가 노랑부리저어새보다 더 희귀한 편이며, 특히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3,900여 개체가 생존했으며, 제주도에 매년 30여 마리가 도래한다. 주로 성산포만,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도래하며, 간혹 금동리, 용수

리까지 도래하기도 한다.

개리는 한강, 금강 하구의 갯벌에 도래하는 흔한 겨울철새이지만, 제주에는 극히 드물게 도래하는 경향이 있다. 제주에서는 1998년 11월 용수저수지 2개체, 2005년 12월 하도리 1개체, 2008년 12월 용수저수지 1개체가 각각 도래한 바 있다.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용수저수지와 두모저수지에서 월동하면서 금등리 해안조간대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는 재주의 해안절벽에서 번식하는 텃새로,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 전봇대에서 기다리다가 켜켜게 물 위로 고속 비행을 한다. 주로 물고기나 작은 물새를 공격하며, 번식기 이후에 단독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다. 물수리는 최근 제주도에서 번식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제주도 전역의 해안가에서 주로 송어를 잡아먹는다. 물수리의 다리와 발가락이 다른 맹금류에 비해 물속의 어류를 낚아채기에 유리한 구조이며, 조간대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통해 수직 강하하며, 간혹 전봇대에 앉기도 한다.

한편, 과거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도 이곳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관찰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황새의 도래기록을 보면, 1972년 10월 처음으로 금등리 인근의 용수리 저수지에 5마리가 처음 나타났으며, 최근까지 드물게 찾아오고 있다. 금등리 해안조간대에 찾아온 것은 2005년 11월과 2015년 10월에 찾아와 각각 한 마리가 도래하여 이듬해 8월과 3월까지 머물렀다.

표 3. 금등리 해안조간대에서 확인된 법적 조류 현황

No.	학명	국명	천연기념	멸종위기 등급
1	<i>Cygnus cygnus</i>	큰고니	201-2	Ⅱ 급
2	<i>Anser cygnoides</i>	개리	325-1	Ⅱ 급
3	<i>Platalea leucorodia</i>	노랑부리저어새	205-2	Ⅱ 급
4	<i>Platalea minor</i>	저어새	205-1	Ⅰ 급
5	<i>Falco tinnunculus</i>	황조롱이	323-8	
6	<i>Falco subbuteo</i>	새호리기		Ⅱ 급
7	<i>Falco peregrinus</i>	매	323-7	Ⅰ 급
8	<i>Pandion haliaetus</i>	물수리		Ⅱ 급
9	<i>Numenius madagascariensis</i>	알락꼬리마도요		Ⅱ 급
계	9종		6종	8종

3-3. 군집분석

금등리 해안조간대 일대에서 관찰된 조류를 대상으로 군집구조 분석결과, 월별 최대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 종다양도는 2.73였으며, 월별로 보면 10월 2.22, 11월 2.37, 12월 2.54, 1월 2.74, 2월 2.35로 각각 나타났다. 월동 초기인 10~11월보다는 점차 월동 후기인 12~1월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2월에는 갯이갈매기가 다른 종에 비해 개체수가 260개체로 높게 확인되어, 종다양도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종다양도는 조사당일 날씨와 조사시간대, 간만조에 따른 수심, 사람들의 출입에 의한 어로 행위 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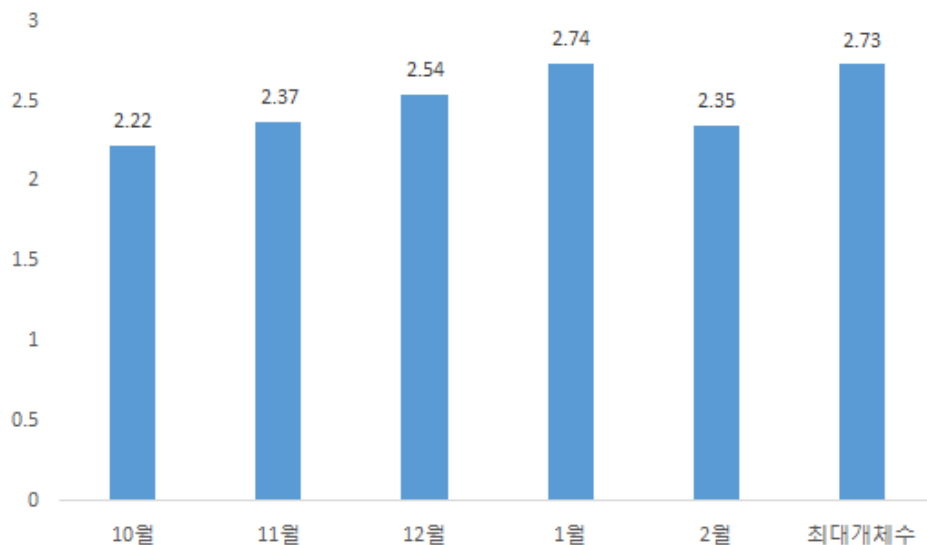


그림 2. 금등리 해안조간대에 분포하는 조류의 월별 종다양도 비교

4. 결론

해안 습지는 조류의 종다양성 및 경관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습지내 수량 및 수심, 조류의 먹이자원 풍부도, 은신처 및 둥지재료 분포, 오염원의 존재 및 유입 가능성 등이 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요소들이다(김과 원 1994; 조 1994; 강

등, 1996; 최와 정 1995; Gray and Hair 1984). 따라서 해안조간대의 습지는 시설물 유지를 위한 매립, 오염원 유입, 어로 행위 등에 의해 조류의 서식조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번 조사 지역에 확인된 조류는 대부분 오리류, 갈매기류, 백로류, 도요류 등으로 제주도 해안 전역에 도래하는 종들이다. 제주의 해안 조간대는 연속적인 이어지는 서식지임을 고려할 때, 주변 해역의 조류의 증감, 방해요인, 혹독한 날씨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두모저수지에서 월동하던 개체들이 조사자의 출입에 의해 금등리 해안조간대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월동 조류들이 강한 바람에 의한 체온 감소를 우려하여(Durgan et al., 1981), 해안가보다는 내륙 저수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금등리 해안 조간대에서 저어새류, 맹금류, 가마우지류, 오리류, 갈매기류 등의 출현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인근 양식장에서 나오는 광어가 새들의 먹이자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일대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먼 바다와 이격되어 있는 고립형 해안습지를 이루고 있어서,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입지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육상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사료찌꺼기와 양식 어류의 배설물 등 수질오염 유발 물질이 먼 바다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조간대에 오랫동안 침전되면서 조간대 생물의 생태와 종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직접 조간대로 흘러 보내는 대신에 배출수관을 원담 밖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금등리 해안 조간대 습지가 조류 서식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식장의 배출수 및 치어 관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오염원 제거, 인근 습지의 생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5. 사사

본 조사를 위해 동행조사와 사진 자료를 제공하여 주신 조영균(영산강유역환경청 람사르습지 해설사), 김기삼(사진작가), 오승목(다큐제주 대표) 등에게 감사드립니다.

6. 참고문헌

- 강정심, 오홍식, 박행신. 1993. 제주도 도요목 분포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논문집 1:33-54.
- 강창완, 강희만, 김완병, 김은미, 박찬열, 지남준. 2009. 제주조류도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국립산림과학원난대림연구소·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강학철, 김완병, 박행신. 1995. 제주도에 도래하는 월동조류의 군집구조 분석. 한국조류학회지2(1): 23-38.
- 김완병, 김영호, 오홍식. 2011. 제주도의 조류 목록. 한국조류학회지 18(1): 93-113.
- 김완병, 오홍식, 박행신, 임인추. 1999. 제주도에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의 현황. 제주대학교생명과학연구 2(1): 83-98.
- 김완병. 1997. 제주도 연안에 도래한 수조류 분포. 조사연구보고서 12: 101-116.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김완병, 2018. 새들의 천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 김화정, 원병오. 1994. 낙동강 하류에 도래하는 수조류의 생태. 한국조류학회지 1(1): 57-71.
- 박행신, 오홍식, 김완병. 1999. 제주도 주요 습지에 도래하는 조류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조류학회지 6(2): 87-100.
- 양정희, 박행신. 1988. 제주도 해조류 군집구조에 관한 연구. 과학교육 5: 135-160. 제주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 최영복, 정숙희. 1995. 중부 이남 서해안에 도래하는 섭금류에 관한 현황-전라북도 광활 지역의 갯벌을 중심으로. 한국조류학회지 2(1): 58-73.
- 한국조류학회. 2009. 한국조류목록.
- Bibby, C. J., N. D. Burgess and D. A. Hill. 1992. Bird Census Techniques.. Academic Press.
- Durgan, P. J., P. R. Evans, L. R. Goodyer and N. C. Davidson. 1981. Winter fat reserves in shorebirds:distribution of regulated levels by severe weather condition. Ibis 123: 359-363.

Gray R. Hepp & Jay D. Hair. 1984. Dominance Wintering Waterfowl(anatini): Effects on Distribution of Sexs, Condor 86: 251-257.

Shannon, C. E. and W. Weaver.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rbana. 177pp.

Simpson, T. 1948. A method of establishing group of equal amplitude in plant society based on similarity of species content. K. Danske idensk. Selsk 5: 1-34.



큰고니(사진 조영균)



적갈색흰죽지(사진 조영균)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넓적부리



고방오리



흑로



왜가리

금등리 해안조간대에서 관찰된 주요 종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개리(사진 김기삼)



매(사진 조영균)



황조롱이(사진 조영균)



물수리(사진 조영균)



흰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사진 조영균)

금등리 해안조간대에서 관찰된 주요 종

유배인, 광해

백지현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시대 제주도는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조선왕조 500여년 간 제주에 유배온 이는 약 260여명이나 된다. 이들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제주로 유배를 왔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동계 정온(桐溪 鄭蘊, 1569~1641), 우암 송시열(尤菴 宋時烈, 1607~1689),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1833~1906), 운양 김윤식(雲養 金允植, 1835~1922), 춘고 박영효(春臯 朴泳孝, 1861~1939)이다.

그동안의 제주 유배인의 성격, 실체, 제주와 유배인의 관계, 영향 등 제주 유배사 연구가 많이 이뤄졌다. 그중에서 제주 유배인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 1608~1623)이다. 광해군은 제주도에 유배 온 인물 중 가장 신분이 높은 인물로, 제주에서 4년여간 지내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광해군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세자로 책봉되어 민심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왕으로 즉위한 후에도 민생 안정 및 황폐화된 전국을 수습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쫓겨난 왕’이라는 이미지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의 재위기간의 역사적 기록은 ‘실록(實錄)’이 아닌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가 되었다.

광해군은 1575년 선조와 후궁 공빈 김씨(恭嬪 金氏)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혼(琿)이다. 형은 임해군(臨海君, 1572~1609)이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은 지 2년 후에 산후병으로 죽었다. 선조에게는 정비 의인왕후(懿仁王后) 박씨가 있으나, 후사는 없어 어린 광해군은 의인왕후의 손에서 자랐다.

1592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났다. 대신(大臣)들은 민심 수습을 위해 세자 책봉을 해야 한다며 선조를 압박하여 결국 광해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었다. 그의 나이 18세 때의 일이다. 세자 광해군은 전국을 다니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7년여의 전쟁이 끝나고 선조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 정치·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임진왜란 중에 세자 광해군의 명나라 재가(裁可)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해군이 적자(嫡子)도 아니고, 장자(長子)도 아니라는 이유로 세자 책봉 재가를 미루고 있었던 것인데, 선조도 세자를 바꾸려는 마음이 있었다. 선조는 1600년 의인왕후 박씨가 죽자, 1602년 김제남의 딸을 인목왕후(仁穆王后)로 받아들여 1606년 영창대군을 얻었다. 광해군은 이미 세자로 책봉된 상태였으나, 적자(嫡子)의 영창대군이 있으니 선조의 마음도 흔들린 것이다. 조정에서는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을 중심으로 영창대군을 세자로 옹립하려는 소북파(小北派)와 이이첨(李爾瞻)을 중심으로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大北派)로 갈라지며 왕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었다. 그러나 1608년 갑작스레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조선의 제15대 왕이 되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정인홍, 이이첨 등의 대북파가 정권을 잡았다. 광해군은 전후(戰後) 수습을 위해 노력하였다. 1608년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여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군비 증강의 일환으로 군사 수 확보를 위한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1611년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국가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를 맺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본과의 교역을 재개하였다. 후금과 명과의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실리를 취하였다. 대규모 토목공사도 실시하여 창덕궁(昌德宮), 경덕궁(慶德宮: 경희궁慶熙宮) 중건하였다. 간행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등을 다시 간행하고,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1613년 칠서의 옥을 빌미로,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고, 인목대비를 유폐(幽閉)하였다. 이는 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의 구실이 되었다. 1623년 이서(李曙), 이귀(李貴) 등의 서인이 중심이 되어 반정(反正)을 일으켜 인조(仁祖)가 왕위에 올랐다. 인목대비의 교서를 통해 광해군을 폐위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 형과 아우를 죽이고 자신을 유폐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무리한 토목공사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셋째, 명나라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1623년 3월, 광해군은 강화도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 광해군은 1624년 이괄

의 난으로 태안으로 이배(移配)되었다가 다시 강화도로 이배되고,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제주도로 보내졌다. 제주도로 내려오는 길에 광해군의 눈을 가리고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당시 광해군이 쓴 시를 통해 그의 처연한 마음을 알 수 있다.

1702~1703년 제주목사(濟州牧使)를 지냈던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남환박물(南宦博物)』에 의하면, 광해군은 1637년 6월 6일 어등포(구좌읍 행원리)로 들어와 다음날 제주에 위리안치되었다고 한다. 1641년(인조 18) 음력 7월 1일 광해군은 나이 67세에 생을 마감하였다. 당시 제주목사였던 이시방(李時昉, 1594~1660)이 광해군의 시신을 염습(斂襲)하였다. 이시방이 제주목사로 부임하고부터 지은 시를 모은 〈서봉시적(西峰詩蹟)〉에 광해군의 유배생활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 광해군의 쓸쓸했던 유배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주도에는 ‘광해우(光海雨)’라는 민요가 전해진다.

칠월 초하루 날이여. 칠월 초하루 날이여. 대왕 어봉 하신 날이여. 가물당도 비 오람 서라.

광해군이 죽은 음력 7월 1일이 되면 비가 온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가뭄 속의 단비를 기다리며 광해군의 넋을 달랬다고 한다.

‘폭군(暴君)’, ‘폐위(廢位)된 왕’으로 불리어졌던 광해군. 하지만 그는 난세(亂世) 속에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던 왕으로 다시 평가되어지고 있다. 광해군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와 함께, 광해군의 유배생활에 대한 더욱 많은 자료의 발굴을 통해 광해의 제주 유배생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2018년 유아교육기관 대상 설문조사 및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정미정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박물관은 예술, 역사, 미술, 과학, 기술 등에 관한 자료 및 표본을 수집하고, 보존·전시하며, 이를 조사·연구하여 문화, 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사회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박물관은 종래의 고전적 기능으로부터 오늘날에는 교육적 기능을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기능이 변화하여 사회·문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교육기관의 협력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유아대상교육기관과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미흡하여 단순히 소풍이나 나들이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유아 발달에 적절한 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 분석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 박물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도내 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비교

제주도에는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79개의 등록박물관·미술관이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국립박물관과 제주교육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대상으로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박물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과 유아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주중에 운영되며, 전시연계나 특정 주제를 갖고 이루어진다.

유아동반 가족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며 전시관람 후 연계활동으로 이루어지거나 박물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자 또는 교육자에 의해 진행되거나 유아가 직접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도 한다. 유아가 직접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프로그램으로는 활동지나 박물관 키트가 제공된다.

1) 국립제주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하는 고고·역사박물관으로 2001년 6월 15일에 개관하였다. 개관이후 제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지역의 문화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매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대상별로는 어린이/가족, 청소년, 성인들 프로그램과 학교연계, 특별전연계, 전문인력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유아대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2개 과정으로 '박물관 호기심 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견학을 오는 유치원 단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의력과 호기심, 상상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2019 할망, 하르방 지혜의 샘' 프로그램은 유아와 초등학생 동반 가족프로그램이다. 주제는 제주 전통 음식을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제주관련 다양한 주제를 갖고 이루어진다면 유아들이 박물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한 문화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표 1〉 국립제주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대상	강좌명	내용	운영기간	비고
유아 단체	박물관호기심천국 - 안녕! 그림자야	그림자를 주제로 한 체험 활동	3월~12월	지속형
유아가족	할망, 하르방 지혜의 샘	제주음식	4월~10월	



박물관 호기심 천국



할망, 하르방 지혜 샘

2) 제주교육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제주교육박물관은 제주도 교육관련 유물관 자료를 전시해 놓은 교육전문박물관으로 1996년 4월 26일 개관하였다. 제주교육박물관은 유아대상프로그램으로 동화교실과 봉숭아꽃 물들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설화와 세시풍속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표 2〉 제주교육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대상	강좌명	내용	기간	비고
유아, 초등	제주설화로 들려주는 동화교실	동화구연으로 들려주는 제주신화	7월~8월	
유아, 학부모	봉숭아꽃 물들이기	봉숭아꽃을 이용한 세시풍속 알기	7월	



박물관 호기심 천국



할망, 하르방 지혜 샘

3)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 대표박물관으로 1984년 5월 24일 개관하여 제주 고유의 민속과 자연사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전시, 조사연구, 국내외 학술교류와 사회교육 운영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공립 관람객 최초 33,300,000명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추석민속행사 및 세시풍속 행사 등 제주의 민속과 자연생태를 주제로 2018년에는 사회교육 13개과정, 특별강좌 및 세시풍속 행사 12개과정으로 143회 운영되었으면 14,1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표3 과 같으며 주로 제주 설화와 문화재를 주제로 운영하였다. 인형극은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개의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여 호응도가 높았다.

〈표 3〉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현황

대상	강좌명	내용	일시	비고
어린이	동화구연교실	제주의 신화 교육 및 설화 체험	4~6월 9~10월	
어린이	문화재 만화그리기	탐라순력도 상에 나온 문화재 만화그리기	4~10월	7, 8월 휴강
어린이	2018 제주 설화 구연 대회	제주어 사랑 실천의 기회와 제주 설화를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11월	
어린이	제주설화 오찰방 인형극	제주설화 오찰방 인형극 공연	12월	



동화구연 교실



제주설화 오찰방 인형극

Ⅲ. 도내 유아교육기관 설문 조사 및 검토 결과

유아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프로그램 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55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였다.

박물관 안내데스에서 방문하는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1)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유아교육기관의 원생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횟수 및 박물관의 방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및 박물관에 바라는 점을 설문하였다. 도내 유아교육기관 500여 곳에 설문지 우편발송과 박물관을 방문하는 유아교육기관의 협조를 받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지 95부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결과를 검토하였다. 설문내용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원생의 인원을 표기해 주십시오.

구분(합계)	만3세	만4세	만5세	기타(만1~2세)
100%	27%	22%	48%	3%

1번 설문은 유아대상 교육기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아의 수를 물었다. 결과는 만5세가 48%로 가장 많았으며, 만3세, 만4세 순이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들 중 상급반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2. 원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평균 박물관을 방문하시는 횟수는?

- ① 7회 이상(2%) ② 5~6회이상(15%) ③ 3~4회(30%) ④ 1~2회(48%)
⑤ 기타(5%)

위의 설문은 1년에 박물관을 몇 회정도 방문하는지를 물었다. 결과는 3~4회 가 30%로 제일 많았으며, 봄과 가을에 주로 방문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렇게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박물관을 꾸준히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로 현장학습 소풍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3. 평소 박물관을 자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장학습 장소(88%) ② 특별전 및 전시 관람(12%)
③ 학부모의 관심이 있어서에 ④ 기타 ()

박물관을 찾는 목적으로는 현장학습 장소를 방문하는 사례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특별전 및 전시 관람을 위해 찾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현장학습 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귀 원에서 본 박물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프로그램의 내용(46%) ② 관람요일(5%) ③ 관람시간(10%)
④ 체험비용(4%) ⑤ 박물관 미술관 인지도(10%)
⑥ 교육환경 및 시설(25%) ⑦ 기타 ()

박물관을 방문시 어떠한 점을 우선 고려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선택하였다. 유아대상 적절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및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선호한다는 평이었다. 이 외 교육환경 및 시설로 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관라 및 교육을 받을수 있는지를 교사들은 중요시 생각하였다. 그 밖에 박물관 인지도, 관람시간, 요일 등 순이었다.

5.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 가능한 요일은 언제 입니까?

- ① 월(10%) ② 화(20%) ③ 수(22%) ④ 목(26%) ⑤ 금(22%)

교육프로그램 참여시 가능한 요일에 대한 설문결과는 주중에 요일에 크게 관여

없이 가능한 것으로 답하였다.

6.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대는 언제 입니까?

- ① 오전 1시간(63%) ② 오전 2시간(29%) ③ 오후 1시간(8%) ④ 오후 2시간
⑤ 기타()

운영시간에 대한 설문이다. 결과는 오전을 선호하며 1시간을 가장 선호하였다. 다음으로는 오전 2시간을 운영을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7. 기존에 귀 원에서 참여한 교육프로그램(타 박물관 및 미술관 참가 경험 포함)에서 얻고자 했던 성과에 만족하십니까? 기관과 프로그램명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예 ② 아니오
○ 기관: ○ 프로그램명:

유아교육기관에서 참여하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교육프로그램 중 만족하였던 기관과 교육프로그램내용에 대한 설문이었다. 기관으로는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교육박물관, 해녀박물관, 도립미술관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설화구연, 어린이극장, 미술체험, 4.3관련 체험 등이 있었다. 비교적 유아들이 어렵지 않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8. 원생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중복가능)

- ① 아이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기(20%) ② 미술에 흥미와 자신감을 길러주기(3%)
③ 아이의 창의성을 높여주기(12%) ④ 예술적 감각을 키워주기(7%)
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31%) ⑥ 교육 효과 상승(15%)
⑦ 전시내용의 이해도를 길러주기(8%) ⑧ 스스로 학습을 선호(2%)
⑨ 기타 ()

유아교육기관에서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다.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한다는 답변이 3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아이의 문화적 수준 높여주기 위하여, 교육효과상승, 창의

성 향상, 전시이해도를 높여주기 위하여 순으로 높은 결과가 나왔다.

9. 귀하께서는 박물관에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상설전시연계교육프로그램, 제주어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대회, 염새체험, 전통놀이체험, 인형극(성교육, 교통안전, 설화, 신화) 공연, 4.3관련 교육, 미술체험프로그램, 제주민속 관련 교육에 대한 운영을 제안하였다.

10. 귀하께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서비스를 받는 관람객 입장에서 박물관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주십시오.

설문결과 어린이 전용 관람영상프로그램 상영, 찾아가는 방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었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봄, 가을에 현장학습 장소로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으며, 연계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교사 및 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다가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요구하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운영 시 참고할 사항이다.

IV. 맺음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대상으로 제주의 민속, 역사, 자연생태 문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유아대상 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 유아대상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자한다.

첫째, 상설전시 연계교육프로그램 운영이다. 제주의 민속, 제주어, 식생활 문화 및

자연 생태에 대하여 유아대상 활동지 제작 및 프로그램을 운영이다. 전시관람 후 전시와 관련된 만들기 및 체험프로그램운영이다.

프로그램 운영 전 방문 교육대상에 사전 있는 박물관 관련 주제탐구활동을 위해서는 교사와 유아의 철저한 준비와 사전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견학 내용과 주제를 명확히 하고 견학 장소를 잘 선정하여야 하며 견학일정 및 관람할 전시물을 유아 수준에 맞추어 계획하여야 한다.

둘째, 특별전시 연계교육프로그램운영이다. 박물관은 연3~4회 특별전을 개최한다. 특별전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유아들에게 창의력 발달 및 호기심을 자극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셋째 박물관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를 대상으로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가 박물관 탐구활동과 관련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유아의 수준에 맞는 여러 가지 자료 및 시설을 제공하여 유아교육기관과 박물관이 연계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유아기관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공연운영이다. 2018년 12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진 오찰방 공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관람 호응도가 좋았다. 제주신화나 교통안전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어린이 공연 또한 좋은 예이다.

마지막으로, 방학프로그램 운영이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는 정규방학에 자율등원이라는 시기가 있어 야외로 체험학습을 다닌다. 또한 유아동반 가족대상으로 방학 특강을 개최하여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박물관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홍보로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박물관과 유아교육기관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아교육기관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얻기 위한 현장학습의 장으로서 박물관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박물관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확충 및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의 관계자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추자도의 지질

- 제주도 지질과 비교연구 -

김현경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도는 본 섬을 비롯하여 마라도, 가파도, 우도, 비양도, 추자도, 차귀도 등 8개의 유인도와 7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이번 조사지역인 추자도는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에 속해 있으며(그림 1) 전라남도와의 제주도 사이에 있는 제주 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섬으로 4개의 유인도(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추포도)와 그 주변으로 38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는 제주도 본섬의 지질과 추자도의 지질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점을 관찰



그림 1. 제주도본섬과 추자도의 지형학적 위치(출처: 네이버지도)

하고자 진행되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기관연합으로 매년 진행되는 국가생물다양성 조사에 참석하여 연구역량을 키우나가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추자도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

1. 추자도의 지형

추자도는 북서-남동 방향의 능선을 따라 발달하고 있으며,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사이에는 폭 약 220m의 해수로가 존재하고 있으며 추자대교*로 연결되어 있다. 상추자도에는 120~130m의 저구릉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하추자도에는 140~148m의 저구릉이 발달하나 100~140m와 100m내외의 높이를 갖는 두 개의 구릉이 동-서와 북서-남동 방향으로 분지하여 발달되어 있다(그림 2).

추자도의 대서리와 영흥리, 신양리, 예초리 일대에는 해안선을 따라 암석만이 형성되어 있고 남서해안에는 직선상으로 70~80°의 급경사를 이루는 해안절벽이 발달되어 있다.

반면 추자도 북동 쪽의 해안선은 남서해안에 비하여 다소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나 암석 노출면이 해안선을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추자도는 전반적으로 주상절리의 발달과 주상절리에 따른 파식으로 파식애(sea cliff)가 발달하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대소의 바위섬 스택(sea stack)이 북동과 남서 해안선에 급경사를 이루며 발달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만(bay)과 해식동(sea cuve)이 발달하며 소만의 내측에는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어 대서리, 영흥리, 예초리, 신양리에서 해빈을 이루고 있다. 북서단의 암석에는 노출면의 풍화에 따라 장석질 부분에 직경 5~7cm(최대 15cm)의 기공이 불규칙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수직 단층면을 따라 소규모의 틈이 발달되어 있다(추자도 특집:추자도 부근의 지질 환경, 유환수, 유경아-한국도서연구 1998).

*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연결하는 다리로 1972년 길이 156m, 너비 3.4m의 규모로 완성되었으나 붕괴위험이 제기되어 1995년 5월 3일 총길이 212m, 너비 8.6m의 새다리가 완공되었다. 옛 추자교는 인공어초로 활용하기 위해 슬래브와 교각 등을 16개로 절단하여 추자면 묵리(默里)해상에 투하하였다.



그림 2. 추자도 지형(출처: 국토지리정보원)

추자면 주변해역은 우리나라 남해(south sea)에 속하고 있으며 해저지형의 구분
에 의한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갖는 한반도 남
서연안의 섬들과 같은 지형지질적 특성을 보인다. 제주도와 남해안 사이에는 제주
해협(Jeju Strait)이라고 하는 동서로 길게 뻗은 해저 협곡이 존재하는데 이 곳은 수
심 약 130m의 매우 깊은 골짜기 이다. 즉, 추자면은 해저지형에 의한 육역 구분에서
우리나라 남해안 도서들과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추자면 역사문화지,
2012).

2. 지질

2-1. 제주도 본섬의 지질

제주도는 남동아시아 대륙판의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제주도 주변의 주된
판구조경계를 보면 필리핀 해판과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하부로 섭입함에 따라

형성된 Rhykyu trench가 남동쪽으로 650km거리에 위치하며 좀 더 동쪽에는 Japan Trench가 있다(J.H.Song et al., 2018)

제주도와 한반도는 중생대와 신생대에 동안 동일한 판구조활동을 겪었다(Chough et al., 2000; K.H.Kim et al., 2002; Sager et al., 1988; Yang et al., 2010). 백악기에 이 지역은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proto-태평양판과 관련된 arc-back-arc system의 일부였다(Chough et al., 2000). 백악기 후기부터 제3기초 동안 섭입판의 roll-back은 back-arc의 확장환경을 이끌었다(Chough & Sohn, 2010; K.H.Kim et al., 2002; Woo et al., 2014). 신생대 back-arc basin의 열림으로 인해 동해와 동중국해가 27~15Ma에 형성되었고(Chough et al., 2000; Otofujii et al., 1985) 제주도와 한반도는 back-arc에서 intraplate tectonic system으로 변하였다.

제주도는 신생대 플라이스토세 초기부터 약 180만년동안 이어진 화산활동으로 한라산(해발 1,950m)을 비롯한 크고 작은 단성화산체(monogenetic volcano)와 다양한 화산지형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제주도 지표의 지질은 주로 용암류와 화성쇄설층으로 구성되며, 용암류는 약 100만년전부터 홀로세까지 지속된 용암분출에 의해 누층을 이룬다(고기원 등, 2013) 약 45~67%의 SiO₂ 함량 범위를 가지며, 현무암에서 조면암에 이르는 알칼리 계열의 암류, 전이질 현무암, 그리고 톨레이아이트(Thoeiite)질 현무암과 톨레이아이트질 안산암의 비알칼리 계열의 암류로 구성된다.

2-2. 추자도의 지질

추자도는 화산암인 유문암과 응회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제4기 충적층이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하추자도의 서측 중앙부, 묵리 일부에 걸쳐 유상구조를 나타내는 유백색의 유문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응회암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응회암은 수직에 가까운 절리를 보이고 있으며, 하추자도 북쪽에서는 용결응회암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유문암은 반정광물로 석영, 장석, 운모가 소량 관찰되며, 기질의 입도는 세립질을 이룬다. 응회암은 주구성광물이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도는 치밀, 세립질로 이루어져 있다. 충적층은 산간계곡부에 분포

하고 있으며 상추자도에 비해 하추자도에서 비교적 넓게 분포하고 있다.

2-2-1. 추자도의 지질구조

추자도 본섬과 북동쪽에 위치하는 작은 섬에 대한 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하여 지질구조선 분석을 실시한 결과 N40~60E방향이 가장 우세한 가운데 N40~50W방향과 N0~10E방향으로 지질구조의 방향성이 확인되었다(그림 3)(권오일, 2017). 이를 근거로 추자도 부근에 총 5개의 지질이상대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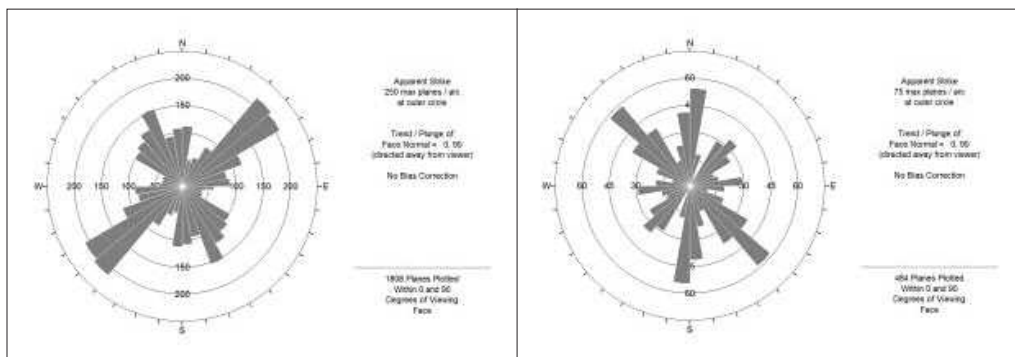


그림 3. 추자도 주변의 지질구조(로즈다이어그램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3. 제주도 본섬과 추자도 암석 비교

추자도의 형성과정은 제주도 본섬과는 매우 다르다. 제주도 본섬은 신생대 제4기 화산암류임에 반해 추자도는 중생대 백악기 응회암으로 추정되며 오랜 시간동안 지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아 도로에 노출된 암반에서는 수직의 절리(joint)가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화산암류는 구성광물의 육안구분에 의한 암석분류가 힘들다. 따라서 암석시료를 분쇄하여 주성분화학분석을 실행하게 되며 그 결과로 암석명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박편제작을 통한 현미경관찰을 통하여 각 광물결정이 지니는 광학적

** Rose diagram은 경사를 제외한 방향과 빈도만을 나타냄. 주로 주상절리나 단층조선과 같은 선형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쓰임. 각 막대는 선구조의 방향을 막대의 길이는 빈도를 의미함

특징을 이용하여 구분하고 기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제주도 본섬 5개 지점(그림 4)과 추자도지역 5곳(그림 5)에서 암석을 샘플링하여 XRF분석을 실시하고 박편을 제작하여 현미경관찰을 실시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3-1. 조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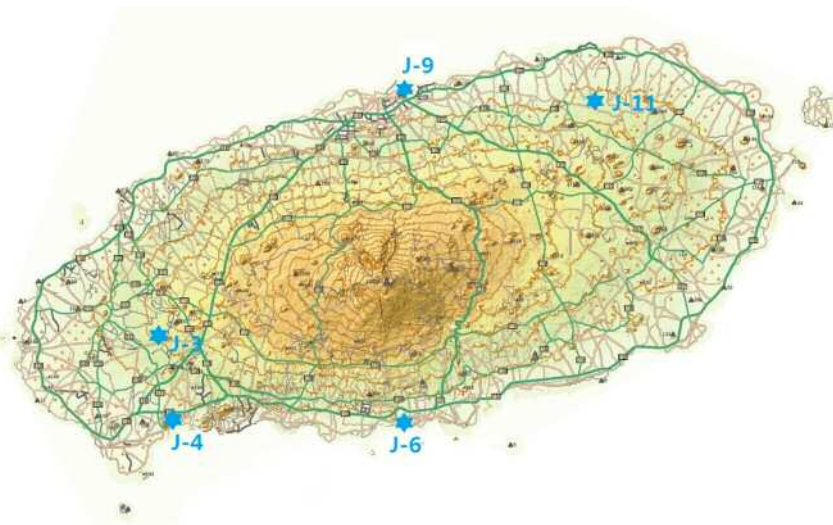


그림 4. 제주도 본섬의 조사위치(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그림 5. 추자도 조사위치(출처: 국토지리정보원)

3-2. 화학성분분석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이란 시료에 X-선을 주사한 후, 시료에서 발생하는 형광 X-선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장비를 말한다. TAS Diagram에 분석 결과를 도시하여 암석명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제주도 본섬(그림 6)은 산방산의 조면암, 조면안산암, 현무암질조면안산암, 알칼리현무암, 쉘레이아이트질 안산암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추자도(그림 7)는 모두 유문암이며, C-4는 유문암내 포획암을 분석한 결과로 Dacite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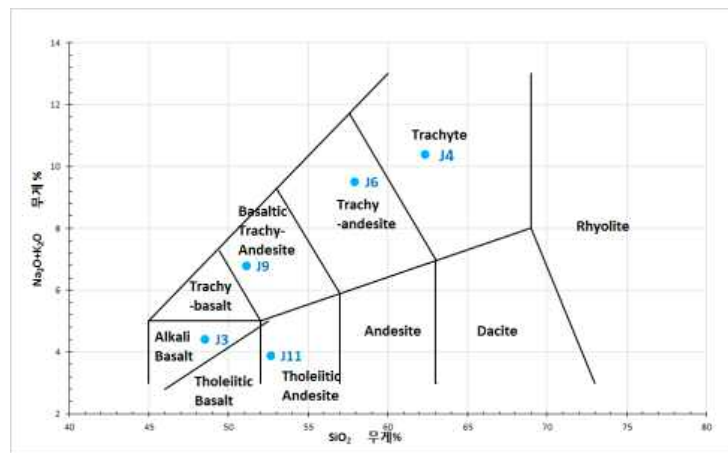


그림 6. 제주도 본섬 암석의 XRF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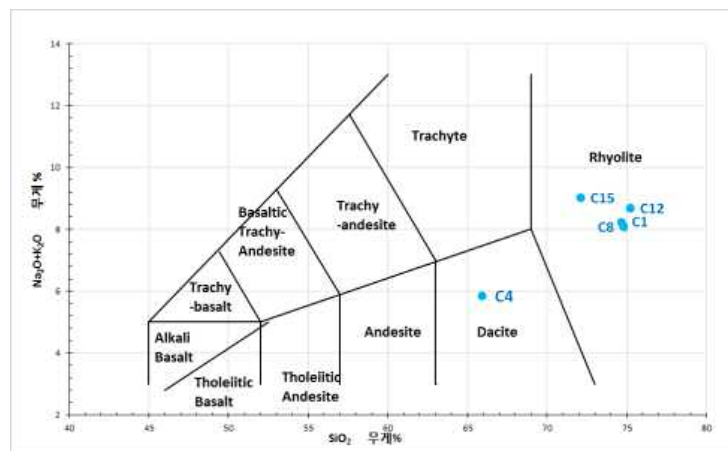


그림 7. 추자도 암석의 XRF 분석 결과

3-3. 편광현미경 관찰

박편사진은 개방니콜과 직교니콜 하에서 동일한 부분을 촬영하였으며 scale bar의 길이는 실제 각각 2mm(전체 조직관찰), 0.5mm(특정 부분 확대)이다.

사진촬영시 표품의 조직을 대표하는 부분을 선택하였으며 현미경하에서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 2mm이상의 라필리(lapilli), 2mm이하의 화산회로 구분되어 각각의 우세 여부에 따라 라필리 응회암과 화산회 응회암으로 구분하였다.

입자의 종류는 암편, 결정편과 유리편으로 구분되는데 상대적인 우세 여부에 따라 파리질 응회암(vitric tuff), 결정질 응회암(crystal tuff), 암편질 응회암(lithic tuff), 결정-파리질 응회암(crystal-vitric tuff), 파리-결정질 응회암(vitric-crystal tuff), 결정-암편질 응회암(crystal-lithic tuff), 암편-결정질 응회암(lithic crystal tuff)으로 구분된다.

유문암의 경우, 용암류가 유동하며 만들어진 유문조직(flow texture), 탈파리화과정(devitrification)동안 만들어진 구과상조직(spherulitic texture)가 기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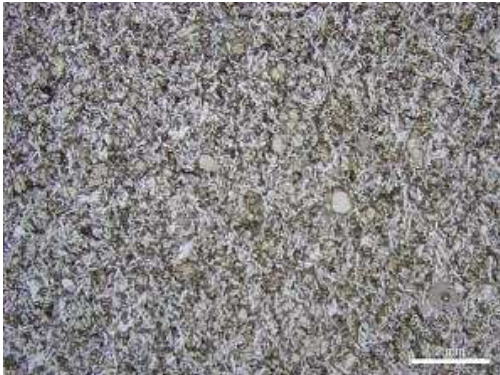
박편사진에서는 용어를 약자로 표시하였다.

(사장석:Pl, 석영:Qz, 흑운모:Bi, 녹니석:Ch, Fe-Ti 산화광물-Qx, 암편: Lt, 유리편: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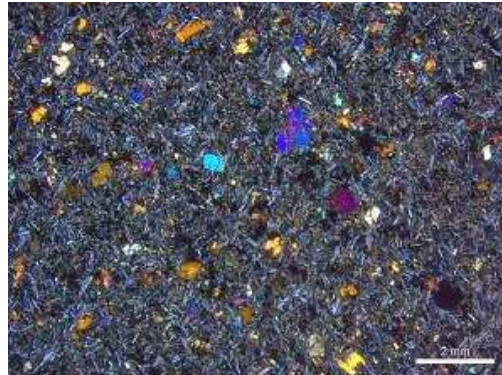
제주도 본섬의 J-3, J-4, J-6, J-9, J-11과 추자도의 CH-1, CH-4, CH-8, CH-12, CH-15 지역에서 샘플링한 암석을 박편작업하여 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1) J-3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알칼리현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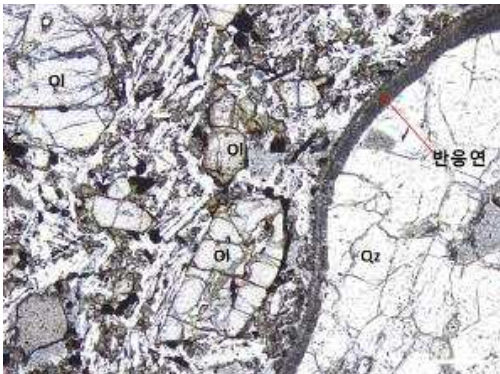
- ▶비반상 조직이나 미반정의 감람석이 우세한 감람석현무암으로 구분할수 있음
- ▶단사휘석(보통휘석)은 미정질의 석기로 산출함
- ▶약 0.5cm의 처트(chert:석영결정집합체)를 포획체(xenolith)로 가지며, 그 주변부를 따라 석기와외의 반응연(reaction rim)을 지님, 석영은 파동소광을 보임
- ▶침상형의 Fe-Ti산화광물이 산출됨
- ▶석기는 은미정질의 결정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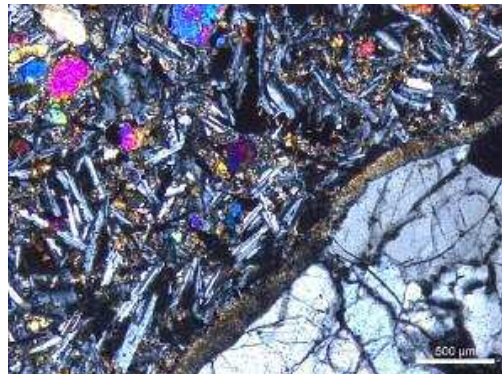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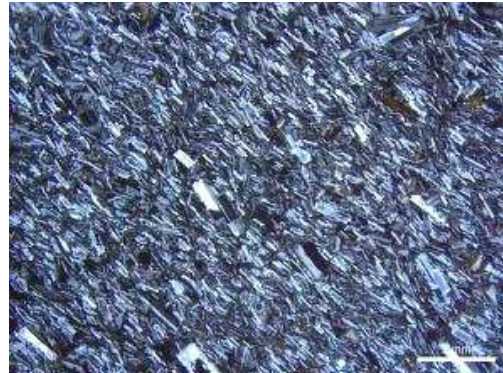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2) J-4(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조면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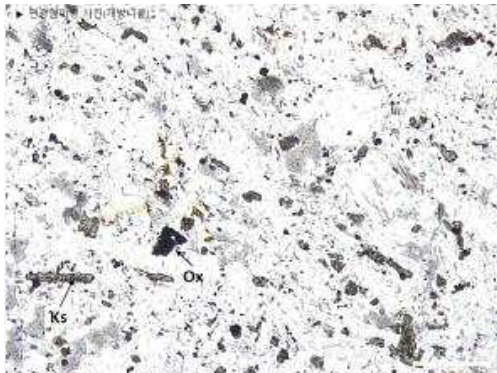
- ▶미정의 장방형인 사장석이 일정한 방향의 배열을 보이는 조면조직을 이룸
- ▶사장석은 대부분 누대구조를 지니고 칼스바드 쌍정을 하고 있음
- ▶사장석결정의주변부는알칼리장석이감싸고있는안티라파키비(antirapakivi)조직을가지기도함
- ▶이외에 녹색의 막대형태를 지니는 커수타이트(Kaersutite), 단사휘석, Fe-Ti산화광물이 석기를 이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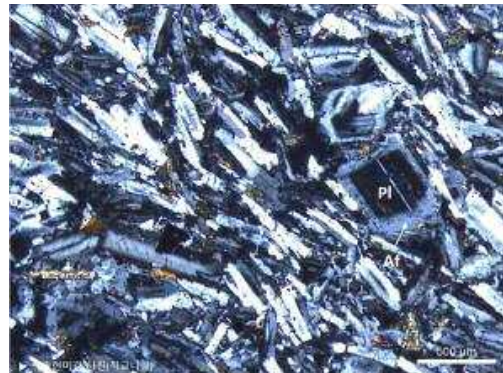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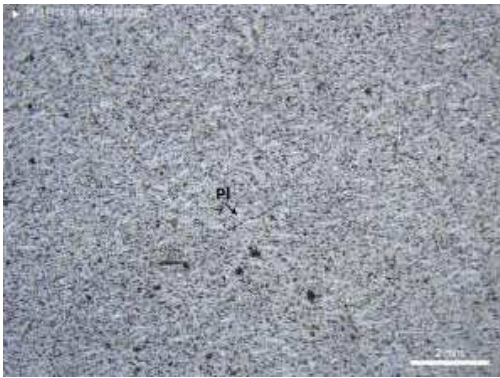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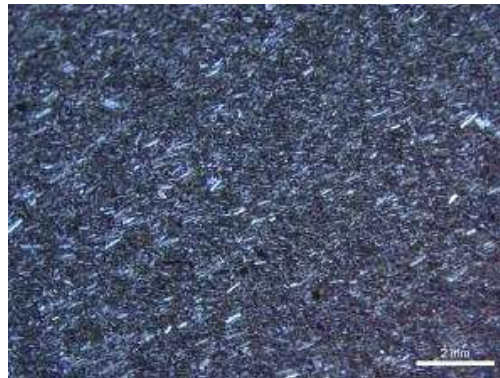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3) J-6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조면안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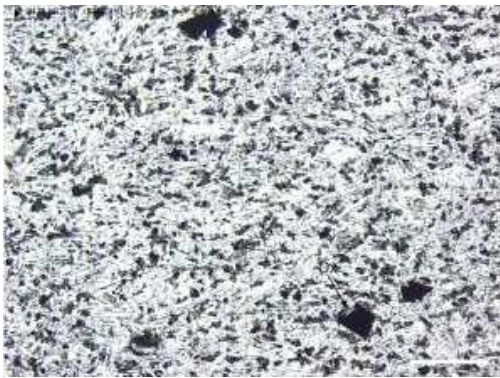
- ▶미정의 장방형인 사장석이 일정한 방향의 배열을 보이는 조면 조직을 이룸
- ▶아주 드물게 사장석 미반정이 뭉쳐진 취반정으로 산출되기도 하며, 미약한 누대구조와 칼스바드-페리클린 쌍정을 지니며 주변부가 용식되어 있음.
- ▶Fe-Ti 산화광물이 석기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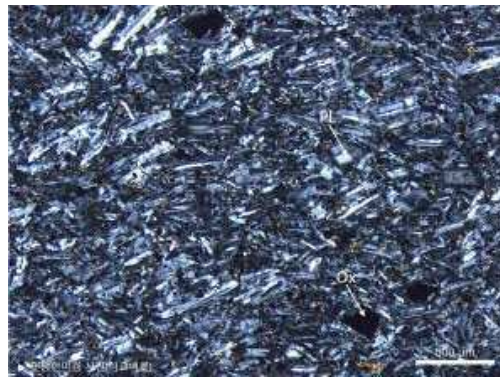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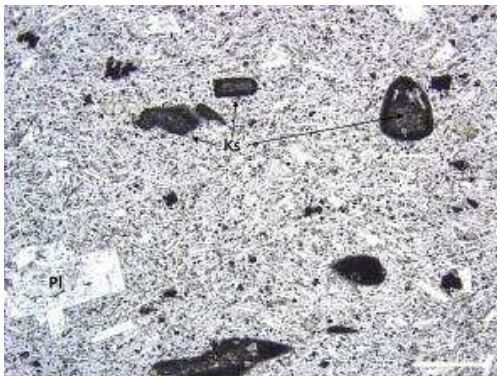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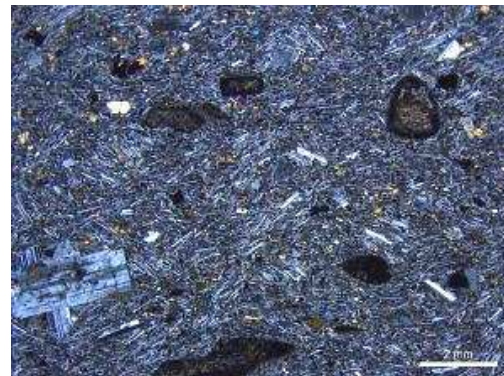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4) J-9(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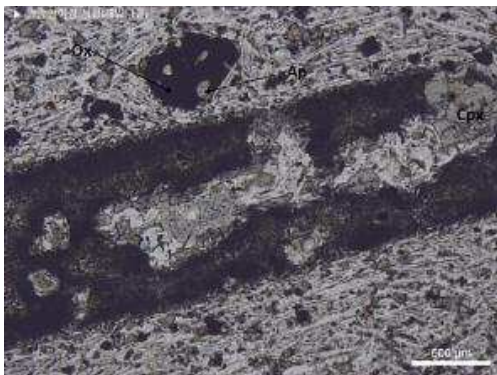
- ▶ 치밀질이며 전반적으로 반정광물이 우세하여(10%이상) 반상 조직을 지님
- ▶ 우선 검정색의 커수타이트 반정이 특징적임. 다양한 형태의 커수타이트는 가상(Pseudomorph)만 남고, 미정의 단사휘석(보통 휘석) 및 Fe-Ti 산화광물과 인회석과도 군집을 이룸
- ▶ 드물게 단사휘석과 감람석이 자형 결정을 이루어 산출함
- ▶ Fe-Ti산화광물은 인회석(회색, 자형)을 포획하거나 공존(coexist)하고 있음
- ▶ 미정질의 조면 조직을 지님
-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반상 장식 커수타이트 현무암류로 분류됨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5) J-11(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톨레아이트질 안산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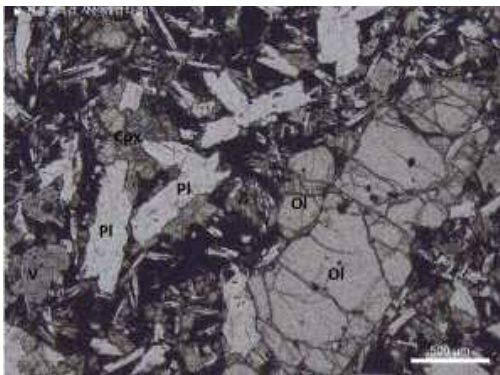
- ▶ 주상의 감람석 반정과 사장석이 간진상 조직을 이룸
- ▶ 사장석은 칼스바드-알바이트(albite) 혹은 칼스바드-페리클린 쌍정을 이룸.
- ▶ 이들 결정사이의 간극은 유리질이 급랭으로 만들어진 타킬라이틱(tachylitic) 조직을 이룸
- ▶ 단사휘석(보통휘석)은 자형 내지 반자형으로 Fe-Ti산화광물을 포획체로 지님 때로 미정의 감람석과 취반정을 이루기도 함
- ▶ 바늘형이 Fe-Ti산화광물이 산출함
-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침상장석감람석현무암류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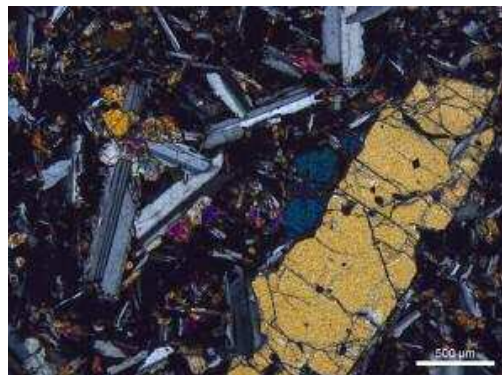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6) CH-1

- ▶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유문암
- ▶ 석영, 사장석, Fe-Ti산화광물과 흑운모(대부분 녹니석화 되었으나 일부 남아 있음)으로 결정입을 구성됨
- ▶ 암편으로는 석영과 장석 반정을 가지는 라필리 크기에 해당
- ▶ 용결된 유리질 샤아드(shard)는 길게 신장되었으며 대부분 탈파리작용을 받았음
- ▶ CH8에 비해 좀 더 신선함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라필리 응회암, 암편-결정질 응회암, 용결응회암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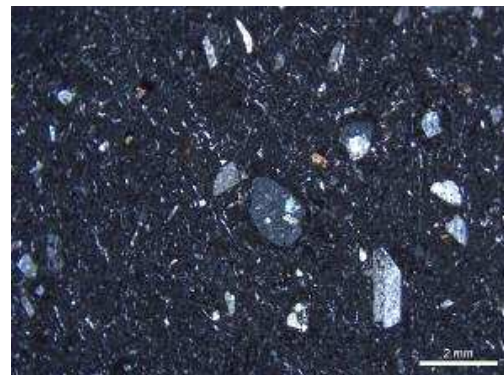
CH-1 노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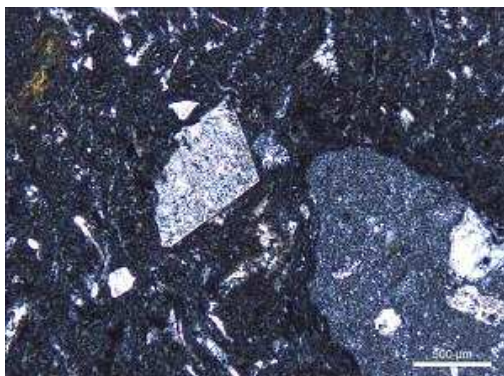
CH-1 암석샘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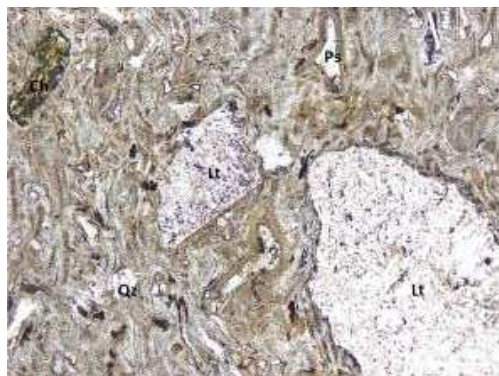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7) CH-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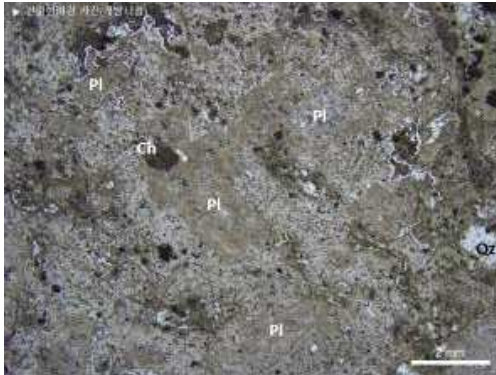
- ▶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데사이트
 - ▶ 주상의 사장석(칼스바드-페리클린 쌍정)과 Fe-Ti 산화광물(아주 드물게) 이 반정 광물을 이룸
 - ▶ 사정석 및 석기부분이 대부분 탄산염화 작용으로 변질되었으며, 석기의 일부 분은 탈파리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미립의 석영 결정과 방해석 결정이 주를 이룸.
 - ▶ 녹니석화된 운모류(흑운모)반정을 드물게 지니기도 함
- 응회암내에 포획된 암괴로서 조직의 특성상 장식 반암류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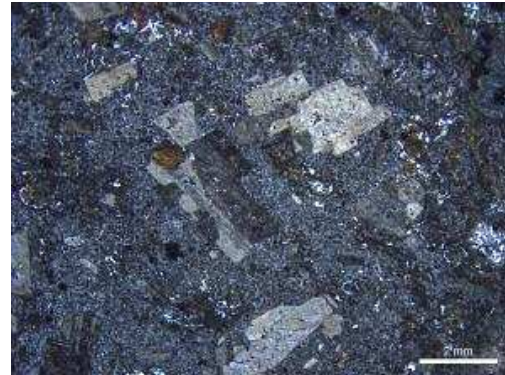
CH-4 노두사진



CH-4 암석샘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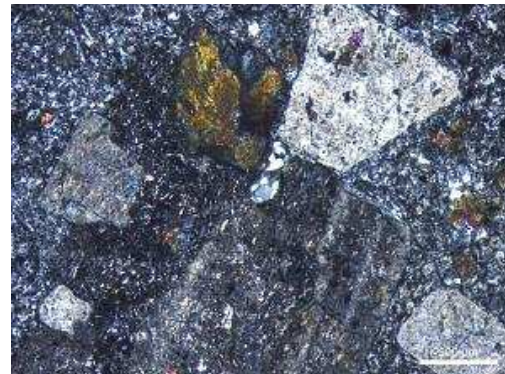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8) CH-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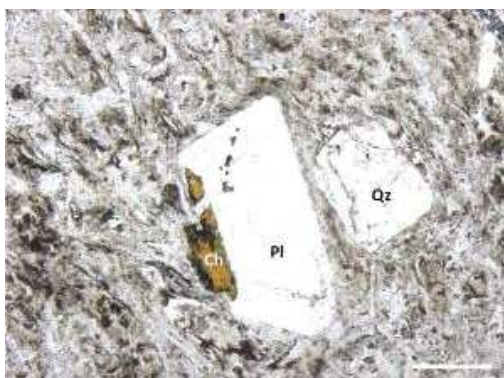
- ▶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명 : 유문암
- ▶ 석영, 사장석, Fe-Ti 산화광물과 흑운모(대부분 녹니석화 되었으나 일부 남아 있음)으로 결정입을 구성됨
- ▶ 암편으로는 석영과 장석 반정을 가지는 라필리 크기에 해당
- ▶ 용결된 유리질 샤아드(shard)는 길게 신장되었으며 대부분 탈파리작용을 받았음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라필리 응회암, 암편-결정질 응회암, 용결응회암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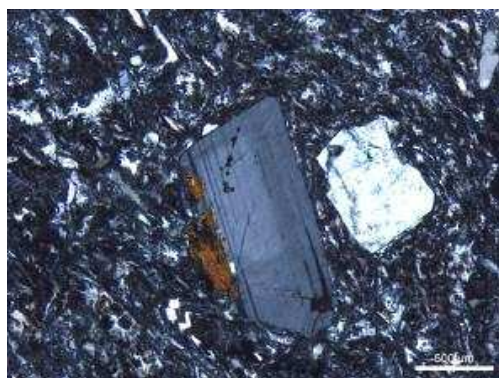
CH-8 노두사진



CH-8 암석샘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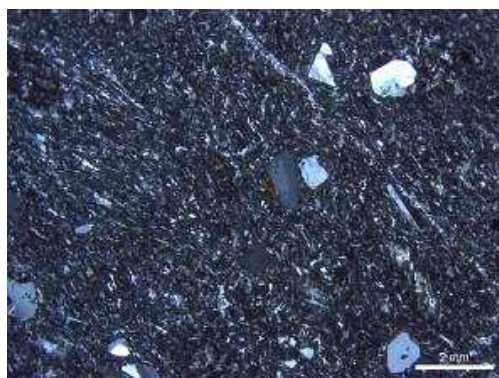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9) CH-12

- ▶ 석영, 사장석, Fe-Ti산화광물과 흑운모(대부분 녹니석화 되었으나 일부 남아 있음)으로 결정입을 구성됨
 - ▶ 암편으로는 석영과 장석 반정을 가지는 라필리 크기에 해당
 - ▶ 용결된 유리질 샤아드(shard)는 길게 신장되었으며 대부분 탈파리작용을 받았음
 - ▶ CH8, CH10 에 비해 좀 더 신선함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라필리 응회암, 암편-결정질 응회암, 용결응회암으로 분류됨



CH-12 노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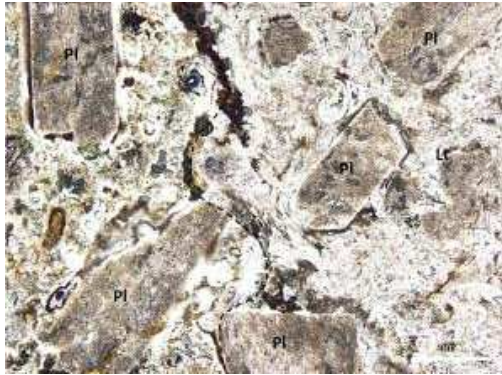
CH-12 암석샘플사진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10) CH-15

- ▶ 유문구조를 가지며 부분적으로 미약하게 구과상조직을 지니고 있다.
 - ▶ 사장석과 녹니석화된 흑운모를 반정으로 가짐
 - ▶ 석기부분은 대부분 탈파리작용을 받았음
 - ▶ CH8 & CH12에 비해 좀 더 신선함
- 조직의 특성으로 미루어 유문암으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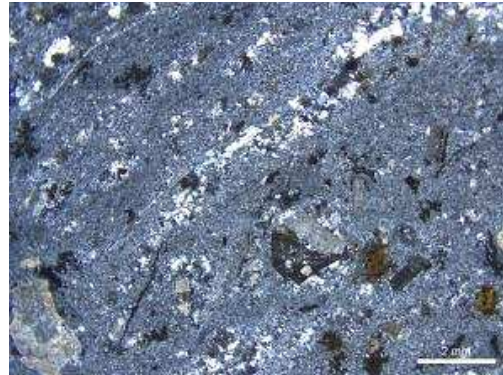
CH-15 노두사진



CH-15 암석샘플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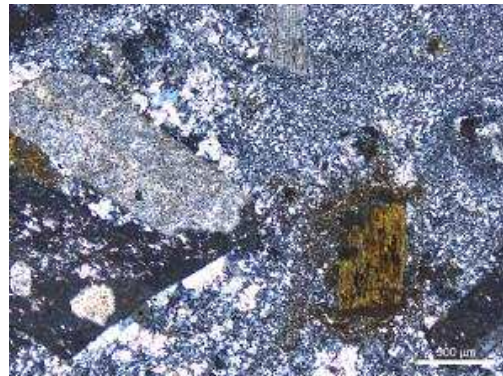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사진(직교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개방니콜)



편광현미경 확대사진(직교니콜)

4. 결론

두 지역을 현장 조사시 추자도에서는 제주도 본섬의 현무암과 비슷한 양상을 띄는 CH-8과 같은 암석을 관찰할 수 있다. 치밀질이며 검은색을 띄어 현장 육안 관찰만으로는 암석명을 명명하기 힘든 경우이다.

하지만 화학성분 분석결과를 보면 제주도 본섬의 암석인 J-9는 현무암질 조면 안산암으로 SiO_2 함량이 51.11%, $\text{Na}_2\text{O}+\text{K}_2\text{O}$ 의 함량이 6.78%를 보이는 반면 추자도의 암석(CH-8)은 유문암으로 SiO_2 함량 74.84%, $\text{Na}_2\text{O}+\text{K}_2\text{O}$ 의 함량 8.08%로 나타난다.

두 사이트의 암석(J-9, CH-8)의 박편을 비교해보면 제주도 본섬(J-9)에서 샘플링한 암석은 치밀질이며 검은색의 커스타이트 반정이 관찰되며 미정질의 조면 조직

을 보이는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이다.

추자도의 노두에서 관찰되는 치밀질의 검은색을 띠는 암석(CH-8)은 박편 관찰시 용결된 유리질사아드(Shard)가 길게 신장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추자도는 제주도에 속하나 지질학적으로는 제주도 본섬과는 다르며, 전라남도 남해안의 지질과 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본섬의 암석 샘플(J-9)



추자도 암석 샘플(CH-8)



제주도 본섬의 박편사진(J-9)



추자도 박편사진(CH-8)

- Izanagi triple junction in the Late Jurassic and Early Cretaceous (M21-M10). *Tectonophysics*, 155(1-4), 345-364. [https://doi.org/10.1016/0040-1951\(88\)90274-0](https://doi.org/10.1016/0040-1951(88)90274-0)
- Sager, W. W., Handschumacher, D. W., Hilde, T. W., & Bracey, D. R. (1988). Tectonic evolution of the northern Pacific plate and Pacific-Farallon
- Yang, K., Hidas, K., Falus, G., Szabó, C., Nam, B., Kovács, I., & Hwang, B. (2010). Relation between mantle shear zone deformation and metasomatism in spinel peridotite xenoliths of Jeju Island (South Korea): Evidence from olivine CPO and trace elements. *Journal of Geodynamics*, 50(5), 424-440. <https://doi.org/10.1016/j.jog.2010.05.005>
- Chough, S. K., Kwon, S. T., Ree, J. H., & Choi, D. K. (2000). Tectonic and sedimentary ev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review and new view. *Earth-Science Reviews*, 52(1-3), 175-235. [https://doi.org/10.1016/S0012-8252\(00\)00029-5](https://doi.org/10.1016/S0012-8252(00)00029-5)
- Chough, S. K., & Sohn, Y. K. (2010). Tectonic and sedimentary evolution of a Cretaceous continental arc-backarc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New view. *Earth-Science Reviews*, 101(3-4), 225-249. <https://doi.org/10.1016/j.earscirev.2010.05.004>
- Kim, K. H., Tanaka, T., Suzuki, K., Nagao, K., & Park, E. J. (2002). Evidences of the presence of old continental basement in Cheju volcanic Island, South Korea, revealed by radiometric ages and Nd-Sr isotopes of granitic rocks. *Geochemical Journal*, 36(5), 421-441. <https://doi.org/10.2343/geochemj.36.421>
- Woo, Y., Yang, K., Kil, Y., Yun, S. H., & Arai, S. (2014). Silica- and LREE-enriched spinel peridotite xenoliths from the Quaternary intraplate alkali basalt, Jeju Island, South Korea: Old subarc fragments? *Lithos*, 208-209, 312-323. <https://doi.org/10.1016/j.lithos.2014.09.003>
- Otofujii, Y.-I., Matsuda, T., & Nohda, S. (1985). Opening mode of the Japan Sea inferred from the palaeomagnetism of the Japan Arc. *Nature*, 317(6038), 603-604. <https://doi.org/10.1038/317603a0>
- 고기원, 박준범, 강봉래, 김기표, 문덕철, 2013, 제주도의 화산활동, 지질학회지 49권, p.209-230
- 권오일, 2017, 공간통계 기법에 의한 대심도 해저 지질구조선 분석, p.128.
- 유환수, 유경아, 1998, 추자도 특집: 추자도 부근의 지질환경, 한국도서연구, p.2.
- 추자면 역사문화지, 2012, 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p.14.

